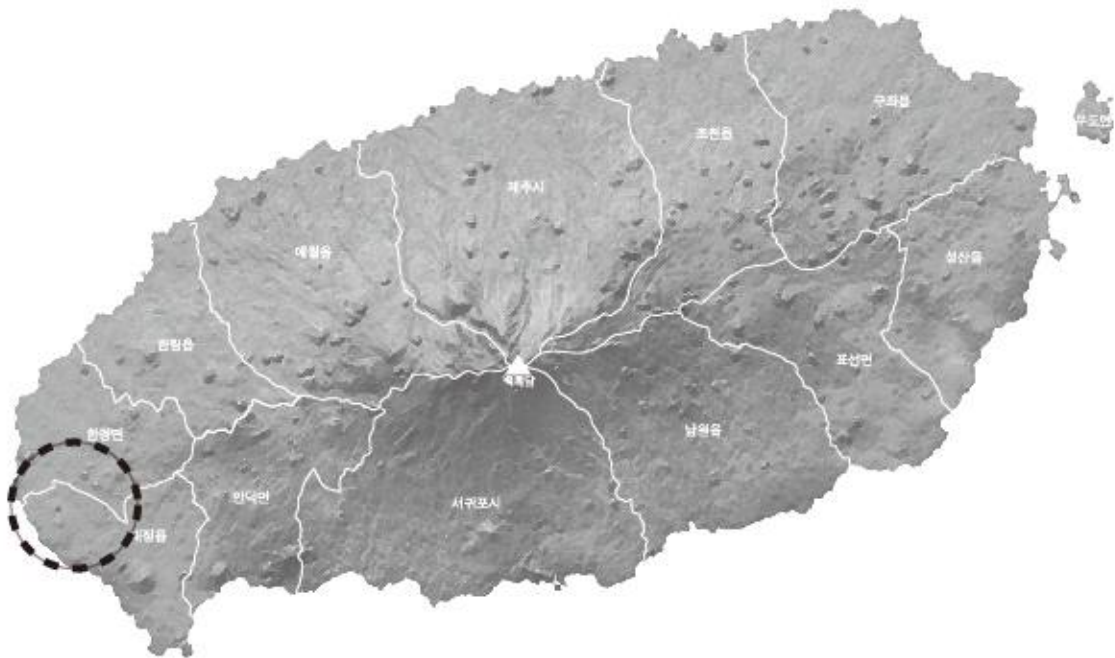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305-01

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신우봉
조사지점 대정읍 신도리

21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21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9

제2장 대정읍 신도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0
2.2. 조사 기간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10
2.4. 전사	11
2.5. 장비	12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3	2. 제보자 일생	21
3. 밭일	28	4. 들일	41
5. 바다일	46	6. 의생활	46
7. 식생활	54	8. 주생활	59
9. 신앙	68	10. 세시풍속	68
11. 놀이	78	12. 통과의례	84
13. 민간요법	95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97

제2절 어휘

1. 인체	99	2. 육아	105
3. 친족	112	4. 의복	115
5. 음식	121	6. 가옥	129
7. 생업	134	8. 수와 단위	146
9. 민속	149	10. 신앙	152
11. 자연	152	12. 동물	160
13. 식물	169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돌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돌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대정읍 신도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변동휘 (남, 1941년생)

이부자 (여, 1939년생)

2.2. 조사 기간: 2014. 10. 28.~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변동휘	00:33:07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	변동휘	00:22:47	○
	구술 2. 제보자 일생	이부자	00:19:01	○
3. 밭일	구술 3. 보리 농사	변동휘	00:18:45	○
	구술 3. 조, 콩 농사	변동휘	00:47:47	○
	구술 3. 감자 농사	이부자	00:53:30	○
4. 들일	구술 4. 들일	변동휘	00:42:12	○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이부자	00:15:00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이부자	00:34:12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1	이부자	00:12:27	○
	구술 7. 식생활2	이부자	00:21:01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	이부자	00:23:58	○

9. 신앙	구술 9. 신앙	이부자	00:15:12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이부자	00:22:07	○
11. 놀이	구술 11. 놀이	이부자	00:35:51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1	이부자	00:05:05	○
	구술 12. 통과례2	이부자	00:14:26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이부자	00:15:46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이부자	00:17:21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	이부자	00:20:15	○
2. 육아	어휘 2. 육아	이부자	00:22:45	○
3. 친족	어휘 3. 친족	이부자	00:26:43	○
4. 의복	어휘 4. 의복	이부자	00:35:34	○
5. 음식	어휘 5. 음식	이부자	00:52:05	○
6. 가옥	어휘 6. 가옥	이부자	00:54:04	○
7. 생업	어휘 7. 생업	이부자	01:19:01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이부자	00:23:27	○
9. 민속	어휘 9. 민속	이부자	00:25:49	○
10. 신앙	어휘 10. 신앙	이부자	00:11:16	○
11. 자연	어휘 11. 자연	이부자	00:50:08	○
12. 동물	어휘 12. 동물1	이부자	00:36:06	○
	어휘 12. 동물2	이부자	00:50:15	○
13. 식물	어휘 13. 식물	이부자	01:21:32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하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

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 신우봉, #1: 변동휘, #2: 이부자)

1. 조사 마을

101001 @ 어 원래 이 신도 일 리 마을에 대해서 먼저 좀 물어볼게예. 그 마을은 어떻 형성된마씨? 그냥 편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 주면 돼마씨. 편하게.

101001 #1 그 정확 그 마을 그 설동의 유래가 정확하게는 어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 어 천구백 천오백십구년 을미사환가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그때 사화에 연류되어 가지고 이 저 고구 이 씨 입도조 이 셋째 번째 그 도사가 이제 그 제주도로 유배 오면서 그 이 지역에 그 사람들한테 훈락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는데. 그걸로 보면은 그 당시에 천 오백 한 이십 년 전 후에서도 여기 사람이 살았던 거는 분명한데. 그 목장의 유래는 확실히 여기서는 거 파악이 못하지만은 어 육소 계니깐 십이 제주도 십소장과 별개로 어 여 이쪽에 거 모동장이 있었는데 모동장.

101001 @ 모동장마씨?

101001 #1 어 모동장. 어 여기서 보통 모동장 모동장 하는데 나가 생각하기는 그 한글 우리나라말 어원으로 모동장. 모두 모두어서 관리했던 곳이 아닌가. 그 현재 모동장 모동장 해서 모동장에 에 남장 서장 중장 이렇게 그 삼장을 나누어 가지고 그 목자 그 목 어 머 거기 그 여러 가지 그 그 우마를 관리하는 그런 집결을 뒤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에 그 그 관리할 때부터 우리 마을에는 사람이 살았던 걸로 보고. 또 이쪽에 그 포구 뭐 자구네 포구나 아니면 신도 이 리, 이 포구 현재 신도 이 리 포구에 사람이 살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추측이 가능한데 이 셋째 번째 에 그 분이 그 도사개설 한 분이. 제주도로 귀양오면서 그 당시 돈포 그 당시 돈포 현재는 고산갱이주만은. 그 당시 돈포에 생활을 하면서 훈락을 했던 기록으로 보면은 그분이 에 귀양 오기 전부터. 어 벌써 그 산지되어 있지만은. 이 이쪽저쪽으로 분산되어 있지만은 어 인가가 최소한 한 이십 세대 이상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 에 그때부터 유래 그 마을이 설 어 설동에 그 기초를 두고. 어 지금 우리가 파악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주만은. 어 그 기록이 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얘긴 할 수 없지만은. 우리 마을에 음료수 개정했다는 그 기록이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데 한 천오백팔십구 년인가 이제 처음으로 음료수를 개정했다. 게 음료수를 개정했다 하는 것은 사람이 최 최소한의 어 수십 가구 수시 한 백여 명 이상이 모여 살아서 어 주민들이 그 합의해서 음료수를 개정했을 거다. 봤을 거다 그 당시는 봉천수니까. 어디 여기 지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봉천수니까 그렇게 해 했을 거다 해서 이에 음료

수 개정 그 연원에 보면은 윤나뭇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는데 윤나뭇이 천오백팔 십구 년인가 구십년도에 개정된 걸로 이 이렇게 간 걸로 봐서. 에 천 십오 세기부터 십오 세기 초부터 십오 세기로 아 천오백 년도 그아 천오백 년도 십육 세기네 십육 세기 초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은 분명한데 에 십육 세기 게니 천오백구십 년 경부터는 그래도 조그마한 마을 형태로서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 그때 에 그 마을에 그 형성된 그 것을 보면은 대정에 그 게니까 뭐 거 대정이건 뭐건 전체적으로 이 근방 대정군 거거 제주목 대정 현 어 정 현 이렇게 해서 할 때는 대정현은 현재 한경면 일대가 에 제주시 관할 한경면 일대가 거의 대정현 안에 들었는데 에 저쪽으로 보면 거 읍성 이난 보성 그렇게 해니까 대정군청 소재지 거기하고 상 에 마 모슬포 계남 상모슬 하모슬 게니까 모슬 하모슬은 없을지도 모르고. 모슬하고 일과리 다음에는 금악하고 일 일과리 사 다음에는 마을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 마을이 에 처음으로 거 일과리하고 금악 사이에는 우리 그 시 저 신도가 옛날 그 된개라는 이름으로 설동됐다.

101001 @ 옛날 된개마씨?

101001 #1 어 된개. 된개는 순수 우리말이고.

101001 @ 그게 무슨 뜻마씨?

101001 #1 어 돈포라고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학자 그 학자에 따라서 틀렸는데 된 돈자 개 포자를 쓴 쓴다는 사람도 있고 주돈 돈자에 개 포자를 쓰는 사람도 있고 게니깐 하지만은 그 우리말 그 후세 사람 우리말 후세 사람들은 된 돈자나 두터울 그 저저 뭐냐 어 주돈 돈자는 이건 아니다 해서 어 게니까 그 양 쪼끔 천허다 그 이름은. 게서 두터울 돈을 써서 돈포라고도 했지만은 나가 생각하기에는 에 된 돈자에 개 포자를 썼기 때문에 저 우리말로는 된개. 된개로 해서 어 된개라는 이름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저쪽 그 정희 쪽으로는 몰라도 정희 쪽 이쪽으로 한 현재 한 남원 제주시 이 저 서쪽으로는 된개라는 사라 아 하면은 거의 아 어느 지역에 된개라 있다는 건 옛날도 알았젠허여. 알았다 그리고 어 그래서 하다가 이제 사실상 대정현 어 우 여튼 우면은 하든 여튼 행정구역상으로 편의 저 마을 이름이 한 것은 에 십칠 세기 후반. 된개 저 우리 마을이 행정 행정 단위 마을로 이제 뭐냐 드 등 등기에 나냐 등기라고 하면 표현이 해야 되나 우리 마을이 대정 그 군에 한 마을로 이름을 올린 것은 에 천 아 저 십칠 세기 말 십칠 세기 말 천육백 한 구십년경 천구백 아 저 천육백 그렇게 봐야 되나. 아 그렇게 해서 어 비로소 마을이 완전 형성이 된 거고. 그들 그들 그 그때부터 어 바로 마을 한 그 마을로서 이제 그 책임자도 있고 그 당시 그 직제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됐고 그 당시 우리 마을 경계는 고살 현재 당산봉. 북쪽으로. 동쪽으로는 저 한경면 이제 그게 사신오름.

101001 @ 아 사신오름. 사신오름마씨?

101001 #1 에. 남쪽으로는 영광이 밑에 돈 돈두 돈두악이라고. 게서 돈두악하고 이게 내 일과리하고 이게 금악 사이에는 우리 마을이 그 당산봉에서 일과리 저게 영광이 밑에 돈두악하고 해서 하표를 대네 가지고 요건 된개라는 이름으로 그저 마

을을 쪽. 운영해 오다가. 운영해 오다가 그 후에 그 대정군지에도 보면 그래지만은 어 이조 때 문과 급제 한 한 사람이 대정군에 몇 사람 안 돼. 정확히 나온 사람은 세 사람. 사 사후에 벼슬 저 교지를 저저 합격한 그 사후 참판 김명자 한 잔가 김명자 한 잔가 그분까지 포함해서 문과 급제 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 외에 무슨 뭐 그 외에도 뭐 후에 후에는 어떤 면에서 난 그 저 인정도 하고 싶지 아니한데. 그 저 국가에서 예산 없으면은 지방 관리들한테 뭐에 백지 교지 주어 가지고 돈 받아 그 내 그 행정 가스리한! 그런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지 과거를 봐서. 실지 과거를 봐서 합격 한 사람은 대정 전체적으로 세 사람으로 보는데 두 사람이 우리 마을 사람이라.

101001 @ 아 두 사람이마씨?

101001 #1 아 두 사람. 그러기 때문에 에 우리 마을을 지나갈 때는 말에서 내려서 지나갔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

101001 @ 아. 기구나예. 그문 신도 지금은 일 리, 이 리, 삼 리잖아예. 어르신 태어나실 때는 어 어른 태어나셨을 때도 신도 일 리, 이 리, 삼 리로 나뉘진마씨?

101001 #1 어 우리가 태어났을 그 우리가 금방 태어났을 때는 일 구, 이 구.

101001 @ 일 구, 이 구마씨?

101001 #1 일구 이구. 어 신도 일 리, 삼 리 경 허난 말이 그 저 아까 걸 나가 나가 얘기한 거 마무리 돼야 그 연관되겠는데. 그 후에 에 그렇게 그 뭐 향교에 가서 뭐 훈장 과거 급제해서 최소한 그래도 한 정 한 사품 벼슬까지 한 분들. 그양! 해 가니까. 이런 마을에 개 포자. 개 포자는 포구에는 이제 포구. 개난 그저 포구에 하건 뭐 거 사농공상 옛날에 저 그런 그 쫘 그 계급 사회라 놓으니까 포자를 붙 그 붙든 그 마을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느냐. 아 그래서 개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가 도원으로 개명돼. 도원으로.

101001 @ 도원마씨?

101001 #1 도원으로 된 데가 한 천 천팔백 년 어 전후 해가지고 도원으로 개명되고 어 완전히 그 법적으로 그 당시 법적으로 도원으로 등록된 것은 처 천팔백십 일 년 신미년에 등록이 되고. 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후에 에 천구백 년 되니까 또 어 그 서로 그 스 파벌 싸움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다시 한 번 바꿔야 된다. 뭐 도원 순창!이다 하다가 절충안으로 나온 게 신돈데. 절충안으로 나온 게 신돈데 신도를 줌 어 한 십여 년간 운영할 때, 한일합방이 됐고, 한일합방이 되고 천구백십삼 년도 십팔 년까지 거 전국 토지 조사. 보통 우리가 하는 거 세부 측량이라 하는데. 세부 측량이 끝나는 해에.

101001 @ 예? 뭐라고마씨? 어르신 다시 한 번. 세부창?

101001 #1 세부 측량.

101001 @ 세부총량.

101001 #1 우리 그 전 국토 그 토지 조사. 토지 조사를 해서. 그 당시 지적도 만들어 진 거지. 왜놈들에 의해서.

101001 @ 왜놈들한테마씨?

101001 #1 응. 왜놈들에 의해서. 계서 거 끝나는 해에 에 지역 그 관리를 위해서 신도 일구 이구로 나뉘었다가. 어 건국 후에 저 삼리는 별도로.

101001 @ 아. 별도로.

101001 #1 어. 신도 이 리에서 나뉘지고 신도 일 리, 일 구를 포함해서 저 삼리는 별도로.

101002 @ 아. 어르신 그러면 신도 일 리는 주로 성있잖아예. 사람들. 무슨 씨가 제일 많아마씨?

101002 #1 경주 김씨가 사실상 그저 중반까지는 건 저 한 사십 프로 차지했는데.

101002 @ 경주 김씨마씨.

101002 #1 예. 경주 김씨가. 그런데 현재도 거의 한 이십 한 칠팔 프로. 거의 삼십 프로 가깝지. 가까이 경주 김씨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워낙 그 여기가 그 농 우리 그 마을 그 뭐가 피폐해 놓으니까 소득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해놓으니까 이거 거의 저 육지나 제주시로 나가 가지고. 씨족들이 어떻게 인연이 있는 씨족은 서울이나 제주시로 가고. 인연이 없는 씨족은 여기 있어거 지금은 경주 김씨 이외에는 뭐 변씨, 고구 저 이씨, 뭐 광산 김씨,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뭐 그냥 그렇게 분포.

101002 @ 이 마을은 주로 무슨 성씨가 많아마씨?

101002 #2 성씨? 경주 김씨 하르방이 첫째 이디 완. 그 변## 알아지지? 변##도 이 마을이지. 그 변##이 권당. 겐디 이 경주 김씨 하르방이 여기왕 사난 경주김씨가 제일 많아. 그 다음은 이 마을에선 변씨들이 제일 많지.

101003 @ 아 이젠 거의 비슷하게 된마씨.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옛날에 신도 일 리 사람들은 어 무슨 일 항 주로 며 먹고 살안마씨?

101003 #1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뭐 특수한 그런 거 저 생수도 없고. 뭐 땅속에서 나는 지하수도 없고 하나까. 주로 밭 농사. 일반 밭 농사를 하고. 하늘에 빨겨 가지고 뭐 비가 와주면 농사를. 풍작되는 거고. 비가 않고 바람 불면 안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순수한 뭐 점 아주 옛날은. 아주 옛날은, 조, 뭐, 보리, 뭐, 콩, 그런 것도 하는데, 에 그 건국 후에도 자여 에 천구백 한 육십 년대까지는 비료가 자급자족이 우리나라가 안 된때라 놓으니까. 이 마을 주변에 비옥한 땅에는 그래도 농사를 좀 어떻게 해먹고. 그 외에는 척박한 땅에는 보리도 쌀보리 같은 건 안 되고 걸보리나,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고 하고. 순수한 밭 작물. 보리 겐디 보리 콩 뭐 고구마 뭐 여 이것도 뭐 수확 다 수확 그런 게 아니고 연명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재배를 해. 하다가, 산업화 되면서 천구백칠십년 전후해서 중농정책 그 오 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주.

101003 @ 아 어떻 변화인가마씨.

101003 #1 게 그 당시에는. 왜냐면 여기가 농토가 높고, 또 거름을 안 주는, 비

료를 안 쓰던 땅에 거름을 주니까. 이제 그 토양 자체가 여기는 농암갈색 화산회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저게 보면 화산회토 그런 데보다는 비료 효과도 더 많이 나고. 뭐 여러 가지로 거 연작 피해도 없고 해 가지고. 고구마. 해서 절간 고구마, 유채. 이게 엄청 잘 돼. 딴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좀 진짜 건 우리나라 거 뫼을 초가집도 없애고, 뫼 마을 길도 넓히고, 한 한 것이 천구백칠십 년 전훈데 그 당시부터 조금, 육체적으로 노동은 많이 했지만은 조금 소득이 향상돼 가지고. 그래도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지.

101003 @ 마을 사람들은 주로 뫼하고 사선마씨?

101003 #2 다 농사 지어.

101004 @ 으음. 그 신도리에, 주변에 오름이나 뫼 내천, 아니면 바위나 굴 같은 거 이신? 좀 유명한 거있어마씨?

101004 #1 아 그런 건 없고. 여기 뫼 오름은 여기 뫼 녹남봉 하나가 있고.

101004 @ 녹남봉마씨?

101004 #1 에 녹남봉 있고. 녹남봉이랑 자연 동굴은 없고. 어 그에 일본놈들 그 진지 동굴들, 한 다섯 개 그냥 저 있고.

101004 @ 그건 어디 있어마씨?

101004 #1 여 녹남봉 저기 우에 올라가야 있고.

101004 @ 아. 올라가야 뫼마씨. 그 녹남봉에 대해서 좀 그 얽힌 거 이시뫼 얘기 해 주실거 어서마씨.

101004 #1 거 이제 녹남봉에 한 것도 누가 뚜렷이 뫼 기록으로 남은 것도 없고. 거 여 거 옛날에는 거 녹나무가 엄청난 엄청나게 여기 많았고. 녹나무가. 그 녹나무. 녹남방이라고 해가지고 제주 저저 한 녹남봉에서 자란 녹남을 잘라가지고 만든 방아가, 한 뫼 달음 뫼 그 방아가, 해방 당시까지도 신도 뫼 사람네 집에 있었는데, 그 후에 뫼 골동품 수집가가 이제 그 가지고 갔단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건 뫼 고증할 수는 없고. 고증할 수는 없고, 어 녹나무 그렇게 해서 녹나무가 많이 자랐다고 해 가지고 이제 녹남봉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진성기 지명 유래. 진성기 그 저 학몰라? 진성기 씨?

101004 @ 예예. 잘.

101004 #1 진성기 제주도 지명 유래를 책자를 만든 분이라. 우리 여기만 아니고 제주도 이런 지역으로. 어 진성기 지명 유래에 보뫼은 녹남봉은 장목봉이라 해서. 장목봉. 녹나무, 녹나무 장자에 나무 목자를 써서 장목봉. 그래서 장목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녹나무영 한 것을 이름 저 뫼냐 한자 표기로 해서 장목봉이라 한 것은 난 그것은 맞지 않고. 어 녹나무는 녹남봉 녹나무. 현재 농사 농자에 남뫼 남자를 거의 쓰는데, 에 나 생각으로는, 순수한 우리 우리말. 녹나무 오름. 녹나무 오름을 줄이다 보니까 녹남봉 녹남봉 하 하는데. 그런 설도 있고. 가끔 그 풍수지리에서는, 에 까치가, 그 뫼, 알을 뫼하고 품어서 희룡한다고 해서, 룡, 희룡 룡자 룡, 계란 룡자 룡. 해서, 농남봉이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 그것은, 풍수지리로 해서 그 그

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순수하게 녹나무가 많이 있어서 이제 녹남, 녹나무 오름. 그래 그래 그래서 그 유래된 걸로 이제 보주.

101004 @ 주변에 오름이나 바위나 굴 유명한거 어서마씨?

101004 #2 그 저 오름에 굴있어.

101004 @ 녹남봉에? 무슨 굴 있어마씨? 굴 이름은 뭐짱?

101004 #2 굴 이름은 일본병정들 왕 판. 그 때 싸울 때. 녹남봉에 이디 오름에 가면 영 오름이주만은 가매창이라고 있어. 신도 오름은 녹남봉이고 속에 들어가면 가매창도 있고 굴도 있고.

101005 @ 그면 이제 신도 일 리에는 그 공공기관 있잖아예. 공공기관에는 뭐 있어마씨? 여기에는.

101005 #1 아무것도 어서. 신도초등학교 있다가 폐교돼 부니까.

101005 @ 아. 언제 폐교된마씨?

101005 #1 으, 폐교된 지가 한, 한 십오 년 한 한 십오 년 이상 됐지.

101005 @ 아. 경 된마씨. 그럼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기관 같은 거.

101005 #1 아, 보 보건 보건 진료소. 보건 진료소. 그 외엔 어서.

101005 @ 그면 여기서 뭐 기관 가재난 가까운 덴 어디로 가야되마씨?

101005 #1 뭐 행정 에 거 뭐 등초본 떼려면 읍사무소, 모슬포 가야 되고.

101005 @ 모슬포까지마씨?

101005 #1 또 뭐 예금, 뭐 예 예 예대출양 이런 거 하재나면 무릉, 대정 무릉지소로 가야 되고. 파출소도 여계 무릉에 있었다가 이제난 모슬포로 가야 되고. 우체국도 우체국 무릉에 있었다가 다 이제 모슬포.

101006 @ 그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흑시 계 있잖아예. 이케 몇 명 모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예. 그 제주도에서 뭐 접이라 했수짱 흑시? 계, 접?

101006 #1 계로 어 보는데, 계로.

101006 @ 계로 봐마씨. 그면 계들이, 잇언마씨? 어르신? 옛날에는?

101006 #1 옛날에야 뭐 더 많았겠지. 지금보다.

101006 @ 아. 지금도 잇어마씨.

101006 #1 근데 뭐, 현 현존하고 있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것은 없고. 뭐 오래 있어야 한. 한 칠십 년 정도 한 계들은 있겠다. 칠십 년.

101006 @ 어땡? 그건 뭐우짱?

101006 #1 그건 부인 친목회가 현재까지 존속해 있는데. 부인 친목회. 오십 오십삼 년도 조직해 가지고 하니까 칠십삼 년 되나?

101006 @ 예.

101006 #1 오십삼 년도 조직해 가지고. 그땐 상부상조였어!. 뭐 조금 예 장례에 장의사들이 장례식장에서 하던 것을 서로 대치도 해주고. 또 결혼식. 경사스러운 거 경사 결혼식이나 뭐 어떻가서 축하를 해주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는 애도해 주고. 하는 그런 켜데. 옛날에는 한꺼번에 만약 쌀 한 가마니도 귀한 때니까.

101006 @ 예.

101006 #1 쌀 한 가마니도 요즘 저 이북에서 무슨 뭐 월급 받아그냥 쌀 한 말 산다는 그런 식으로 옛날에도 우리도 어렵게 살 때는. 쌀 한 가마니도 귀한 때니까. 그런 거 계를 조직해서 친목 단체를 조직해서 어려울 때, 쌀도 부조하고 가서 거 좀 붓도 해줘서 마음에 위안도. 아주. 그렇게 한 게 현재 존속하고 있는 계로는 오십삼 년도에 조직한 게 제일 오래된 거.

101006 @ 제일 오래된 거마씨? 그거 말고 뭐 남자들이 했던 건 없수짱?

101006 #1 물론 있겠지. 있으나 그러나 뭐 그것이 현재 존속이 되질 안 해 부니까.

101006 @ 그까 그냥 뭐 존속되는 거 말고예. 옛날에 있었던 거만 그냥 아시는 거 하나 하나만.

101006 #1 아 예를 들어서 뭐 좀 물방계라고 물방 알아? 물방?

101006 @ 아 예. 물방은 알아마씨. 예.

101006 #1 계 물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친목을. 계니까 물방이 혼자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거 만들어서 가지고 물방계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좀 열심히 해서 발도상! 공동 작업도 하고 뭐 한데. 그 그 물방계는 현재 존속은 안 되지만 조직한 지는 한 한 구십 년으로 봐야지 팔구십 년. 응. 응. 물방계. 그런 계 좀 있었고.

101007 @ 예. 신도에만 있는 풍습 같은 거 혹시 잇어마씨? 어떻 풍습잇수짱?

101007 #1 어 글썄 난 신도만의 풍습은 신도만의 풍습은. 그 신도만의 풍습은 아닌데 이걸 뭐 좋은 풍습이건 나쁜. 요즘으로 보면은 요즘 식에 맞아서 좋은 풍습이지만은 그 모관하고 정회하고 대정. 대정이 뭐 거 계니까. 딱 신도만 아니여 대정은. 대정은 도판 도판포구 서쪽은 대정이고. 두모 이쪽은 판포 이쪽은 대정이지 왜. 계난 제주 이씨 경 판포 이쪽 저 이제 서귀포시 거 법환포구 서쪽 겐 대정인데 모관하고 정회하고 대정 풍습은 좀 달라. 다른 거 풍습이라는 게. 어 그건 그 당시는 그 효가 모관 모관혈메 어딘지 알아?

101007 @ 뭐 대충. 예. 저번에. 들어 봐신디.

101007 #1 거 어 어디라 모관?

101007 @ 시 쪽에 말하는 거 아니광?

101007 #1 목사가 관리하던 곳. 어 목관. 계 목관이고, 정회는 저 정회현에서 관리하던 데고 여긴 대정인데. 예 그 대정 쪽은 뭐 전부하거나 아니고 특히 이 이 현재 대정 쪽. 이쪽은 사람이 돌아가면은 그 당년도 삼일장을 많이 했어 삼일장. 오일장 이래서 거. 거 저쪽은 그렇게 허고. 이쪽은 돌아가거나 딱 하면은 그 풍수지리에 서 그 뭐에서 마니나 상조에 액운이 나쁜 액운만 아니면은 바로 성복하고. 성복이 뭔지 알지 성복? 성복하고 어 임시 가봉군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 다 모셨주게 여기는 겐디 모관이나 저 정회 쪽은 오 일이건 칠 년이건 방 안에 모셨어. 계는 그건 옛날에는 거 효의 상징일랜지 몰라도 지금은 대정이 맞아. 지금. 일단 돌아갔으면은

좀 불효인지 몰라도 그 성북일랑 끝난 다음에 가봉군 만들었다가 가는 게 위생적으로나 뭐나 좋은 거지. 게 그런 풍습 차이는 대정하고 정희 모관 차이는 게 분명이야.

101008 @ 그러면 그 신도 특산물은 있어마씨?

101008 #1 특산물은 없고, 옛날 제주도 전체적으로 토지 비옥로를 봐서 일광정리도안! 했수게. 강정이 최고, 그 다음 도원.

101008 @ 어디가 최고, 최고마씨?

101008 #1 강정.

101008 @ 아, 강정 마을.

101008 #1 어, 강정 마을에 토양이 비옥하고 쌀 맛도 좋고, 뭐 게 모든 게 좋고, 그 다음 이도원. 두 번째는 도원이고, 세 번째는 삼 번네라고 사계 쪽인데 아 저 사계 저쪽 그 저 화순 쪽. 어 게 삼 번네. 어 게서 일 강정, 이 도원, 삼 번네. 경행 일 강정 거는 워낙 토지가 비옥하고, 겐데 거기는 뭘 논밭이 좀 많죠. 게서 여기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농갈색 화산회토라고, 어 지금 보면 수원 쪽 토양하고 거의 비슷할는지 모를 거라. 게 수원 거 한림 쪽. 거 게니까 여기는 같은 보리쌀이라도 딱 저 저쪽 거 동쪽의 보리쌀하고 차원이 틀려. 쉽게 말해서 저기는 일반, 일반 벼고, 보리라도. 여기는 찰벼. 찰, 찰쌀이라. 찰쌀. 게고 거 조도 조팝도. 여기는 완전히 그 끈덕끈덕하주게. 저쪽은 해살, 밥을 하면 저쪽 쌀도 해살해살 해서 이쪽은 끈덕끈덕하고 해서. 토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신도 보리쌀, 신도 쌀이라고 하면은 중간 이 지금은 그렇지 아니주만은 제주시 민속 오일장에 가서도 값을 한 몇 밴 더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토양이 워낙 비옥해가지고. 어 제주도에서는 강정 다음에 토양이 토질이 좋다.

101008 @ 신도리 특산물은 뭐 있어마씨?

101008 #2 특산물 어서. 관광객도 없고.

101009 @ 그럼 그게 일종 자랑거리잖아예. 신도 토양이 좋다. 그럼 토양이 좋은 거 말고 또 또 자랑거리 혹은 없을까마씨? 어르신? 신도 자랑거리? 게니까 뭐 무릉도원 해 가지고 나오던데.

101009 #1 글썄 자랑거리는 대정군 당시도 문과급제 뭐 칠십 뭐 가짜로 뭐 해 그넝 교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뭐 뭐 했지만은 그 후에도 이 녹랑농에 정기를 받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고시 합격이 많은 동네라. 행정고시 뭐 사법고시 합격이 많주게.

101009 @ 마을 자랑거리 알아줍서.

101009 #2 제주도에서 땅 좋은 게 일강정 이돈이. 이디가 이 돈이라해서 옛날에 지금은 신도랜 해도.

101010 @ 그러면 이밖에도 마을에 대해서 어르신 뭐 하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얘기나 뭐 그런 거 없을까마씨? 마을에 대해서. 게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 어서 마씨?

101010 #1 글썸, 얘기하고 싶은 건 뭐 뚜렷한 건 없지만은. 뭐 어느 부락도 다 마찬가지로 단합이 좋고 먼! 우리 부락도 단합이 좋다. 게고! 거 우리 그 경로당만 하더라도 케니까! 경로당 회원이! 한 인구의 한 오십 프로되던가 초초초 고속 고령 화됐주!

101010 @ 오십 프로마씨. 그러면 어르신 가면 막내마씨?

101010 #1 초초초 여 저기 이제 고령환테. 에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도 뭐 부양 받겠다 뭐 생각보다는 마을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한 축을 담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이 순하고. 뭐 그런 게 자랑으로 보고. 인심 좋고.

101010 @ 이밖에 또 신도에 대해 알아줄 거 었어마씨?

101010 #2 제주도에서 여긴 제일 촌일거라.

2. 제보자 일생

102001 @ 어르신, 그러면 저 이제 제보자 일생에 대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르신 낳고 자란 과정 있잖아예. 처음 태어나고 자란 과정, 그냥 간단하게 어르신 일생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실 수 잇어마씨?

102001 #1 어 우리 태어나기 전, 한창 때 천구백사십일 년도. 천구백사십일 년도. 어 뭐. 셋방이나 사람 없는 좀 완전 이간 초 초가집에서 태어났는데. 어 그렇게 생활 쪽 하다가. 해방을 맞았고. 어 여덟 살 나는, 일 월달에 이 그 당시는 그 지금은 뭐 다 과학차원에서 사삼을 다 이제 묵었는데. 우리 경우는 바로 우리 마을에서 빨지산으로 올라간 사람한테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저 그 그렇게 또 완전 그렇게 성복은 못하고 도민 화합차원에서, 뭐 그 음 그것은 다 잇고. 다 누구 누구한테 죽었다는 것까지 다 아는데. 아버지. 게난 그 그 그것을 다 잇고 이제 에 미안하지만은 아버지가 그 사삼사건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엄청나게 어머니가 고생했주. 특히나 에 나보다 밑에 우리 그 당시 육남맨데 에 큰누나만 결혼했고, 그 외엔 결혼 안 헨 상탠디. 에 아버지가 돌아가부니까. 어머니 혼자 사 오남매 영 어렵게 키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육이오 사변을 또 맞이했고. 어 사실상 그 오십삼 년도에 중학교 입학했는데 중학교도 당추 중학교 갈 수 없다, 어떻하겠냐 중학교를 보내겠느냐 했는데, 어머니가 아 지금 잇었으면은, 한 일 억 가까이 되는 밧을, 그 당시 백만 원, 백만 환에 팔아서 중학교 입학금만 삼십팔만 천오백 원을 냈어. 밧 하나 백만 원에 팔아 가지고 삼십팔만 천오백 원을 냈는데, 그게 이 월달인가 환을 교환하니까 백 대 일로 교환하니까 삼십팔만 천오백 원인데 백 대 일로 교환하니까. 삼천팔백십오 원백에 안 됐는데, 밧이 지금 거 일 억 가까이 갈 밧이 그 당시 만 원에 폰 거야. 환율을 백 대 일로 교환을 하니까. 또 그 후에 십 대 일로 하니까 이제 천 원짜리가 되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학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웠지. 저 한 오십사 년도 오십오 년도. 그 오십사 년도 오십오 년도는

먹을 게 없었어. 이게 고구마, 그 정도 있으면 좋고, 지금 그 돼지도 안 먹는 전분
 찌꺼기, 고구마로 전분 뽑은, 뽑았던 그 찌꺼기로 한 일 년이상 연명하면서 생활을
 했지. 생활을 쭉. 하다가 사범,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큰누나가 사범학교에 진학하
 면은, 학비는 대줄게 해도, 어머니 생각난 진학을 아니하고, 어머니를 돕겠다 해
 가지고, 오십칠 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그리고 마을, 마을 사무장도 오십칠
 년서부터 열일곱 살부터 마을 사무장 하면서, 하다가, 오십칠 년도 그 시작을 하면
 서 또 사이찍으라고! 구조적!해서 그 농촌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 인연으로 해
 서 집사람하고 결혼도 했고. 그 결혼도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는 걸 뭐 해 가지고,
 열아홉 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쭉 생활을 하다가, 육십삼 년도에 군인 가서 또
 제대를 하고, 그 후에 또 돌아와, 아 게니까 육삼! 육십일 년도 시월달에 공무원 자
 격 시험이 있었는데, 공무원 자격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엔 어떡해서, 절차
 를 어떻게야 취업이 되고 그런 걸 몰라 가지고, 게 군대 갔다와 보니까 그건 무효
 돼 불고, 다시 그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 당시엔 그 구급이 아
 니고, 오급 공무원 시험 보려고. 시험 보려고 딱 하다가 이제 좀 쪼금 쪼금 채리! 들
 고 보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들어가야 동기생이라도 진급하는 데 엄청난 차
 이가 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걸 아니다. 난 오로지 농촌에서
 이제 생활을 하겠다 해서, 농사 개량 구락부도 조직하고. 뭐 그렇게 쭉 생활을 하면
 서 칠십일 년도, 전국적으로 처음에 새마을 사업 시작할 때, 새마을 지도자 하면서
 많이 깨우친다고. 그 전에도 한 육십구 년도부터 신도 초등학교 육성회장을 했지만
 은, 건 학교 육성회 책임이고, 마을 개발 사업을 위해서나,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
 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처음으로 새마을 사업이 시작한 해부
 터, 새마을 사업 지도자로 해 가지고, 열심히 첫째도 쪼금 그 당시 그들 그 당시에 생
 활 사업, 그 본래 취지는 첫째도 기상, 둘째도 기상, 셋째도 기상 오로지 그, 그대로
 실천을 했고, 어 그 우리 마을의 뭐 도로 확장이다, 뭐 기본적으로 사업이 끝나자마
 자 칠십삼 년도에 이장. 한 이 년 하다가, 또 일 년 또 쉬었다가, 다시 새마을 지도
 자 또 한 삼 년, 뭐 무릉 중학교 육성회장, 뭐 하여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거의 하면서 생활하다가, 팔십 년도에, 우리 큰 애가 팔십 학번인데, 팔십 한, 팔십
 년도에 아이들이 팔시, 아 칠십구 년도. 칠십 구년도. 칠십구 학번에 둘째가 팔십일
 학번에, 쭉 해서 그 사남매가 다 대학교 가게 되니까 도저히 이제, 공적인 일, 마을
 사업에만, 이런 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우선 자식들 학자금 조달 위해서는, 우선
 자기 삶, 삶도 돌아와야겠다. 그러면서 뭐 열심히 한, 십여 년간, 오로지 자식을 위해
 서 희생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해서 사남매 다 대학교 졸업을 시키고.
 큰 애는 지금 뭐, 엠비시 제작국장 하다가 이제 뭐 내일모레 정년돼, 하게 되니까,
 뭐 쪼금 색다른 또 법조인으로 그렇게 하고. 해서 쪼금 지금까지 하는데, 난 그 공무원
 시험을,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것 해서, 그 공무원이 안 된 건 후회를 안 해. 농
 촌 생활을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농촌에서 부락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보
 람도 느꼈고. 또 자식을 또, 그런 거, 정규대학교 다 졸업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했

고. 만약에 나가 공직에 있었으면은, 사고 없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상장시켜지었을까는 그런 생각은 들었기에 좀. 농촌생활에 후회는 없고. 지금도, 지금도 좀 기회가 있고, 뭐 하면은 좀 마을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102001 @ 냇고 자란 과정 간단히 얘기해줍서.

102001 #2 그게 계면 신도에서 자란 신도에서 난게 저 국민학교 졸업하고 다음은 또 우리 혈 때는 중학교에는 없어난. 중학교 못해영 와난 살당 결혼허연. 결혼허영 지금 사는 디 옆에 초가집 짓영 살단 호끔 잇어강 쓰레뜨 집 짓영 쓰레뜨 집에서 또 뜯영 고천. 상점 해주게. 상점 한 이십년 삼십년 봐져실거라 젊을 때.

102001 @ 그 때는 상점 잇어구나예?

102001 #2 응 가게허연.

102001 @ 처음 와신디 신도에 상점이나 슈퍼 아무 것도 어시난.

안되였지. 무릉에 농협 생기고 허난 차들 생기난 거기강 사서 냉장고 있고 허난 놓고. 그전엔 냉장고도 없고 버스로 가도 힘들고허난 막 상점 잘 되연. 이 학교도 있고 하난게. 학용품도 풀고. 막 장사 잘 되연.

102002 @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셧마씨?

102002 #2 농사 지엿주게. 이디 허는 농사 보리 감자. 하당 일본 가부런.

102003 @ 어르신, 어머님의 고향, 어머님의 고향은 어디마씨?

102003 #1 여기.

102003 @ 신도 일 리마씨?

102003 #1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에이치, 사에이치, 나 열일곱 살이니까, 오십칠 년도, 사에이치, 그 당시는 전국적으로 사에이치 클럽이 조직한 마을은 뒤떨어졌어. 사이 클로버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에이치 그룹, 지금도 사에이치 조직이 좀 있을거니?

102003 @ 사일칠 조직마씨?

102003 #1 사에취.

102003 @ 사에이치?

102003 #1 사에이치. 사에이치, 영어로는 다 모르지만 클로버가, 네잎클로버야. 네잎클로버야 사에이치. 그래서 그 농촌의 청소년들이 농촌 운동의 시발점은 사에이치. 지금 뭐 대학교 사에이치 클럽도 있을걸?

102003 @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크라마씨. 그럼, 어머님도 여기고, 아버님도 신도 일 리?

102003 #1 아, 계는. 우리 집사람은 사에이치 부회장이었고, 난 회장이었고. 만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연이 됐고. 또.

102003 @ 예. 어르신 어머님.

102003 #1 아아. 아니 그 한경면에서. 뭐 그 그건 뭐 아주 뭐 옛날 한경면에서 여기 신도로 시집 온 거주.

102003 @ 어머님 고향은 어디마씨?

102003 #2 요 무릉 이리.

102003 @ 아버님 고향은?

102003 #2 이 신도. 신도에서 컸주게.

102004 @ 어르신, 어릴 때는 뭐 거의 노실 일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쩔, 친구들이랑 놀이하잖아예. 어쩔 놀이들이 잇언마씨?

102004 #1 고매나영 하던가. 고매나 알아져?

102004 @ 고매나? 처음 들어마씨.

102004 #1 이렇게 줄 그려 가지고, 영 통과해영, 하고, 머하는 거. 이제도 룰은, 나도 잊어버렸는가 모르겠고, 고매나, 계전. 계전이라는 것은 왜놈들 그 얘기지만은, 대장, 수리장, 요꾸 해 가지고, 요꾸는 대장을 보는 사람, 수리장은 공격하는 사람, 뭐 하는 그런 거. 거 저 인터넷에 다 나왔을걸?

102004 @ 아, 예. 검색하면 나오주마씨.

102004 #1 뭐, 주로 그런 거. 공, 공치기. 요즘 야구.

102005 @ 그면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기억하신 건 잇어마씨?

102005 #1 거의 없는데. 폐전가기, 저, 일본이 거 폐전 당시, 그때 관동군 십만 명이 제주도로 다 이동시킨다는 얘기잇어주게. 관동군이었는데, 만주에 주둔하고, 제주도 와서, 제주도를 일본 방어에 최후 보루로 삼으려고 하다가, 히로시마 원전이 폭발하기에 제주도 사람들이 살아지게. 아님 제주도 사람 전멸했지 뭐.

102005 @ 그면, 일제강점기 때.

102005 #1 어, 그때, 그 조금 그 불필요한 사람들, 이제 병력에 뭐 도움이, 전쟁에 도움이 안 되거나, 뭐 조금 불필요한 사람은 배를 탕가당 수장시키젠 해놔주게. 여 신도 이 리 포구에 배도 한 정박해 놔고. 그 배에 타기 전에 망해부니깐. 그 배에 사람들 탔으면 그 사람들 가서 바다에 수장될 뻔 했지.

102005 @ 공출 같은 건 잘 모르셔마씨?

102005 #1 공출은, 어렸을 때 공출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우리 그, 우리 자이강! 때도 우리 건국 후에도 현물세로 세금 내주. 현물세로. 이주, 이제는 돈으로 내지만, 그 당시엔 쌀로 갖다, 현물세로, 보리로, 이렇게 이런 식을 내주. 뭐, 옛날 들은 얘기는 뭐 공출한테, 뭐 가미가제니 뭐니 해서, 일본놈들 그 군수물이 뭐 허니까, 쇠에난 쇠, 놋그릇이다 하는 것은 다 공출해신디, 놋그릇이다 뭐다 하는 것은. 다 공출 해붙였주게, 그건 우리가 어렸, 아주 어려, 태어나기 전 일이니까. 그 뭐, 들은 기억밖에 없는 거고.

102005 @ 그 일제 시대는 기억나마씨?

102005 #2 우린 안나. 우리보다 흔 다섯 살 우이 사람들은 일본말도 배워신디. 우리집 하르방은 나보다 네살 윈디 일본말도 배웠덴.

102006 @ 그면 사삼 사건은 좀 기억하시잖아예. 할 얘기 많으시겠지만, 사삼 사건 그때 생활 같은 거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잇어마씨?

102006 #1 비참했지 뭐, 생활이. 엄청 비참했지. 뭐, 옷이엔 옷은 거의 다 누더기 옷이고, 비옷을 입을 정도. 뭐 양말 그런 없던, 다 천으로 해그넵 조각으로, 버선식으로 만들던 신었고. 엄청, 엄청나게 생, 생활이, 엄청 피폐해졌지. 그건 뭐 있는 사람은 좀 덜했으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좀 실지 어떠해서 연명만 해주면 그걸 최선으로 알고 살았으니까.

102006 @ 사삼 사건 때 어떻 살아신지 얘기해줍서.

102006 #2 사삼 사건 때게 그 커갈 때 우리 커갈 때게 막 폭도들 뭐 해부난게 쪼그만 마을들은 우리 마을들에 들어와. 들어와 막 경했주게. 게 지켰주게. 밤이 지켜. 우리 마을 사람이 산에 올라갔당 또 밤이 내려와네 겨울에 막 이장네 집에 강 이장네 죽여불고 불 붙여불고 사람도 죽이고 막 곡석도 가져가고. 경헌 사람들 이제 돈 준댄 햄서.

102006 @ 무슨 돈마씨?

102006 #2 그 사삼 사건 때 죽은 사람들 그. 나라에 재판해영 이기난. 게난 그건 경 할 일이 아니다. 에휴 나로도 윈. 우리나라 반대해그네 한라산 올라강 우리 동네 습격 들어와 사람 죽이고 한 사람들을 또 돈 주고.

102006 @ 아 그 폭도들 한테도?

102006 #2 으. 이제 아이들 군인 강 죽은 사람들은 부모나 자식 어시든 그대로 내불고 거 완전 안된 일이라.

102007 @ 어르신, 그럼 결혼할 때, 중매 결혼하셈마씨 아니면 연애 결혼하셈마씨?

102007 #1 중매 반, 연애 반.

102007 @ 아, 중매 반, 연애 반. 그럼 그게 뭐짱? 중매 반 연애반이?

102007 #1 서로 알, 아는 사이니까. 중매를 해도 얼굴도 모르고 하면은, 뭐 하지만, 다 알고 뭐 하난. 같이, 회의도 같은 방에서 하고, 그 당시만 해도 남녀칠세부동석이라, 우리 사에이치 그룹 열일곱 살에 회의, 거 만들어서 회일 하젠하면 장소를 여러 차례 옮겨 회의해서. 남자 여자가, 처녀 총각이, 같은 자리에서, 한 방에서 앉아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거 정말 처, 처음 막 나이 한, 그 당시 나이는 한 우리보다 한 이십 세고, 한 우리는 이십 세 미만이지만, 그분들은 한 사십 세 전후한 사람들인데. 어디 나, 난 처녀 총각이 같은 방에서 뭐 하느냐고 해서 그냥 와서 막 두드리려고 뭐 하면 도망간, 탄 데, 외딴집에 가서 회의하고 했주게.

102007 @ 중매결혼헐마씨? 연애결혼헐마씨?

102007 #2 중매결혼계.

102008 @ 결혼 하실 때 사주 같은 것도 보셈마씨 혹시?

102008 #1 봤겠지. 난 모르주만은 어머니는 봤겠지.

102008 @ 그에 대해선 들어본 건 잇어마씨? 사주에 대해선?

102008 #1 아들딸 잘 낳고, 뭐 했을 테지 뭐, 거야.

102008 @ 결혼할 때 사주는 보셈마씨?

102008 #2 사주 보주게. 옛날에. 옛날엔 주로 그거 봐야주게.

102009 @ 그럼, 결혼하실 때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 준비하잖아예.

102009 #1 그 당시는,

102009 @ 예.

102009 #1 그, 예물 그런 건 빌어서도 하고, 그 형식적으로 뭐, 시계든, 뭐든 빌어서도 하고 하니까 그건 특별히 뭐, 얘기할 만한, 그건 그렇게 본인이 돈 주고 사서 예물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어 나도 그게 결혼은 그 당시 신식. 사모관대 안 썼으니까.

102009 @ 뭘?

102009 #1 사모관대를 안 썼으니까. 족두리하고 사모관대를 안 썼으니까. 그거 안 썼으니까 한데, 요즘은 자동차도 있고 뭐 하지만, 가까운 데니까. 신랑집에서 신부집까지 걸었 왔고, 신부집에서 신부들엔 또 걸었 가니까. 그 말 타서 할 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 좀 먼 데는 군용 추적을 빌거나. 뭐 이제 승용차다 뭐 한 건 없은 때고. 뭐. 게 그런 식으로.

102009 @ 결혼할 때 혼수품이나 예물 뭐했마씨?

102009 #2 갈 때 이불행 가고 괴행 가고. 그추룩만 했주게.

102010 @ 그러면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마씨?

102010 #1 마당.

102010 @ 어디 마당?

102010 #1 이제, 집 마당. 신랑 집 마당.

102010 @ 지금 집 말고 다른, 예전에 살던 집마씨?

102010 #1 예전, 예전. 아주 예전.

102010 @ 사진은 찍으셨마씨? 마당에서 하실 때?

102010 #1 무사. 찍었겠지.

102010 @ 아, 찍었마씨? 기꾸나예. 그 당시에도 결혼했, 누가 찍었마씨? 그 당시엔 사진.

102010 #1 사진관이 그 당시엔 있었지. 좀 어려웠지.

102010 @ 그럼 식은 어디서 하셨마씨?

102010 #2 영 집에서 마당에서 했. 옛날에.

102010 @ 사진은 찍었마씨?

102010 #2 게. 그 때도 제법 신식으로 해나서.

102011 @ 그럼 신혼살림은 어르신 어디서 시작하셨마씨?

102011 #1 그냥 집에서 뭐.

102011 @ 그냥 집에서마씨? 어디팡? 어디였수팡? 이 근처마씨? 아니면.

102011 #1 그, 일주도로.

102011 @ 일주도로 쪽에. 그럼 거기 신도 이 리 쪽 아니우팡?

102011 #1 아니, 아니. 바로, 바로 위. 회관 있는 데.

102011 @ 신혼살림은 여기 신도에서 하선마씨?
102011 #2 으.
102012 @ 그럼, 아까 어르신 좀 얘기해 주신 건데. 어르신 자녀분들, 자녀분들에 대해서.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102012 #1 삼남일녀.
102012 @ 그러면 손주 손녀들은?
102012 #1 손남이 다섯. 손녀가 둘. 일곱.
102012 @ 아, 일곱. 그러면 자녀분들은 다 어떻게. 어디 사시고?
102012 #1 서울 둘. 제주도 둘.
102012 @ 아, 둘 둘.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다, 추석 때 오시겠다예.
102012 #1 으, 응.
102012 @ 그믐 그 때 아이들은 몇 명 잇어마씨?
102012 #2 아들 넷 딸 하나.
102012 @ 손자 손녀는 몇명잇어마씨?
102012 # 열한명.
102013 @ 시집살이 하셨지예?
102013 #2 난 별로 시집살이 안허연.
102014 @ 그 자녀분들 결혼은 어떻게 하선마씨? 다.
102014 #1 결혼이야 뭐 요즘 진작 그건하고! 신식으로 했지 이제. 결혼이야. 결혼 사진 다 어디 가부렸어.
102014 @ 첫째 아들부터 결혼하셨지예? 그 삼남일녀면 그 따님이.
102014 #1 딸이 막낸데, 셋째 아들만 하고, 두 번째는 딸보다 먼저 했지.
102014 @ 자녀분들은 결혼 어떻게 헨마씨?
102014 #2 연애한 아이도 있고 중매한 아이도 있고.
102014 @ 그럼 결혼은 어디서 헨마씨?
102014 #2 시에서 결혼 예식도 허고 서귀포서도 허고 요 모슬포서도 허고 그 신부네 집 가까운 데서 허주게. 서귀포 사는 며누리는 서귀포 쪽에서 허고. 모슬포 쪽가에 사는 며누리는 모슬포서 허고.
102015 @ 그럼 며느리 셋에, 사위 하나잖아예. 아까 자녀분들은 뭐 하는지 대충 어르신 소개해 주셨으니까, 며느리랑 사위에 대해서.
102015 #1 순수한 전업 주부. 순수한 전업 주부인데, 딸만 다 아이들 키우니까, 현재 어린이집 교사. 며느리들도 뭐 자격증이나 갖,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식들 키우느라고.
102015 @ 그럼 사위는?
102015 #1 엠비시, 경리국장하당. 뭐 이제 후임자한테 물려가실거라,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퇴임이니까.
102015 @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 알아줍서.

102015 #2 우린 딸도 선생 메뉴리도 다 선생이라 계난 막 좋아. 어떻 안허여. 착실하고 또 아무래도 배운 아이들이난 예의도 지키고. 메뉴린 좋아.

102016 @ 이밖에 어르신 뭐 사시면서 했던, 힘들었던 일이나 뭐. 그런 얘기해 주실 거 있어마씨?

102016 #1 힘들었던 일. 나는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자식들 학교 다닐 때는 내 자식이 공부 잘나게 하기 위해서는 딴 사람의 자식. 딴 사람네 자식을 공부 잘하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내 자식도 잘나겠다는 그런 심리로. 외람된 말이지만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한테 자문 구하러 온 학부모들도 많아. 난 신조가 만약, 운동회 때. 운동회 때 하면은, 물건 찾기라도 해서 딴 사람 자식한테 줘지, 이 녀! 자식한테 물건 찾기해서 가져다 줘 본 일 없어. 딴 아이들한테 우선, 뭐 만약에 주전자 달라면, 본부석에 앉았다 주전자 줘지, 내 자식한테 먼저 가서 이렇게 해 본 적 있어.

3. 밭일

103001 @ 밭일에는 뭐뭐 있어마씨?

103001 #2 옛날에는 보리 유채. 뭐 겨울 감자 주로 그렸고 여름에는 뭐 콩, 고구마, 밭벼, 참깨 이런 식으로 옛날엔 했고 요즘에는 작물이 다양해가지고 양배추, 양파 주로 여름에 뭐 특수한 품목도 있지만은 주로 하는 거는 양배추, 양파, 가을 감자 일부 허고 많이 하는 게 여기는 대정읍이 전국에서 한 십삼프로 한 십프로가 그 우리 양념으로 하는 마늘이 주산지인데 신도도 엄청나게 마늘을 많이 심고 주로 마늘 농사를 많이 하주게.

103001 @ 마농?

103001 #1 어 저 옛날은 마농. 토종 마늘은 제주 제배를 토종 마늘이라하고 뭐 여러가지 있주게.

보리농사

103002 @ 보리농사 지으려면 뭐뭐 준비해야되마씨?

103002 #1 보리농사는 간단하지 뭐. 우선 종자 있으면 되고 비료 있으면 되고. 걸로 끝이주.

103002 @ 걸로 끝마씨?

103002 #1 게고 일년에 한 두 세번 한 세번 네번 농약치면 되고.

103003 @ 보리밭 거름은 어떻 만들어마씨?

103003 #1 옛날 아주 옛날은 내가 어렸을 적에 한 오십 년 전까지는 그 돼지를 채래식 돼지 해서 변 받아.

103003 @ 똥돼지마씨?

103003 #1 똥돼지 해서 그디강 변화서?

103003 @ 표선가서 봤주마씨.

103003 #1 그거 주어당 부어다그넝 변이 실수해서 뭐해서 돼지 머리 통에 싸면 탁탁 털면 돼지똥 이넝몸에 튀어봐서? 그런 경우가 많아났지. 왜 그 물 많으면 보리씩 가지고 그것이 바로 거름이 되는 거라. 게 거름을 내서 이 넓은 마당에 쇠시랑하고 굴채로 날라당 놔서 그 보리씨를 만약 이 거름이 천평에 갈 거다 하면 천평에 필요한 보리씨를 거기 거름에 섞어. 섞엉 소나 말로 그걸 막 다져. 씨하고 거름이 섞이게. 또 똥망텅이 알아져?

103003 @ 어 예 들어받마씨.

103003 #1 똥망텅이에 그거허영 구루마 있는 사람은 구루마가 이제 마차인데, 구루마에 싣어가고 경 안한 사람은 쇠 질매지어그넝 양쪽에 똥망텅이 하나씩 행 강 그거 많이 노는 밧은 한 열 말텅이 놓고, 적게 놓으면은 여덟개 놓아서 그걸 또 뿌리는 것도 기술들이 있어야주. 잘못 뿌리면은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거름이 이저 즈배기 추록 효율적으로 바둑판으로 일률적으로 뿌려져야 보리가 일정하게 나지 경 안하면 보리가 일정하게 안나주게. 그걸 영 뿌려놔 이제 소로 갈았는데. 기계화 되니가 광작하니까 그런 거름이 없으니깐 거의 다 화학 비료로.

103004 @ 보리 갈 때 누가 갈고 언제 어떻게 갈아마씨?

103004 #1 보리 가는 거는 소로 행 주로 갈았지 옛날에는 소로 행 쟁기로 갈았는데 예 여름 농사는 육월절 겨울 농사는 시월절이라 그러거든 음력으로.

103004 @ 유월 시월에마씨?

103004 #1 유월 소서, 소서가 유월절이고 입동이 시월절이냐. 게니깐 딱 그 옛날 총명하지 못한 자식들 남겨두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무조건 여름 농사는 유월절 지날 짓고 겨울 농사는 시월 지날 했다는 건데. 시기는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요즘은 거보난 빨리 파종하주.

103005 @ 그럼 보리씨는 어떻 뿌려마씨?

103005 #1 아 게난 옛날은 다 손으로 보리씨도 잘 뿌리는 사람은 정확하게 갈가는데 못하는 사람은 엉망이주게. 보리씨도 잘 뿌리고 어 밧이 그 단도리 뒤에 단도리도 잘 하고 하면은 곡식이 좋아지고.

103006 @ 보리 종류에는 뭐뭐 있어마씨?

103006 #1 옛날에는 대맥하고 쌀보리 했주.

103006 @ 대맥마씨?

103006 #1 대맥이라는 것은 어 그 저 겹죽있는 보리. 겹죽있는 보리 하고 쌀보리영 허는 것은 알맹이 겹죽 없는 건데. 그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맥주 보리는 맥아 원료로.

103006 @ 예.

103006 #1 맥주 보리는 경 했는데, 쌀보리나 대맥 그거는 밥 맛이 이쪽이 훨씬 좋주게. 차지고 쫄깃쫄깃하고. 맥주 보리는 재배한 지가 뭐 한 사십 년? 사십 오년?

사십 년? 그 외는 그 전에는 맥주 보리가 없었고.

103007 @ 보리밭 밟기는 언제해마씨?

103007 #1 그건 눈이 많이 오고 뭐 해서 밟이 푸삭하게 들어졌을 때. 서리가 밟이 얼음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얼면 흑 자체가 들어지주게 녹아가면은. 그렇게 해서 뿌리가 들어지니까 보리밭 밟기하주 그거하면 무조건 수확도 더 나고 보리는 단단하게 돼.

103008 @ 보리밭에 김매기는 몇 번 해마씨?

103008 #1 많이 하는 사람은 농약으로 재배한다. 옛날에야 김매기 뭐 김매기는 많이 할 수록 좋아. 계난 시간이 있으면 여러 번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한 번 하고.

103008 @ 보통 두 번 세 번 정해진거 없어마씨? 보리 세 번. 조는 두 번. 쌀 한 번.

103008 #1 조는 계난 옛날에 지금은 조로 로타리로 한 번 영 하면 그냥 끝나주만은 옛날에는 초별 검질, 두별 검질, 세별 검질 해주게. 초별에 조금 완전히 처음 뭐 조가 바래서 두 잎 세 잎 할 때 하면 자라지 못허여. 처음엔 어느 정도만 뽑았다가 두 번째 조금 손 봤다가 세 번째는 일정하게 하면은 수확이 많이 나주만은. 요즘은 그렇게 안허여.

103008 @ 보리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나마씨?

103008 #1 ㄱ시락풀, 진풀 이게 제일 많이 나는 거라 보면 되겠다.

103010 @ 보리 다 자라고 수확할 때 보리 벤 다음에 묶고 가리 하는 과정 있잖아예.

103010 #1 그 옛날 식으로 허면 요즘에야 무슨 기계로 해그네 딱하면 생산자는 가만히 있으면은 다 비고 수확해그네 가져다 왔으면 하면은 돈만 주면 되는 거고 옛날에는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비고 또 묶으고 모이고 탈곡하고 다 그런 절차를 가졌지.

103010 @ 다 하션마씨? 어른시도?

103010 #1 그 당연하지 우리 아이들 저 뭐한말로 우리 큰아들은 초등학교 일학년 셋아들은 이제 다섯살 땀디 그 밑에 세 살 두 살짜리는 구루마 그 당시에는 경운기도 없고 구루마에 영 방에 눕혀두고 해 질 때까지는 보리를 묶으는 거라. 다 해지기 시작하면은 그걸 다 모양 모여야 그 뒷날은 기계 빌영 하나까 모이는데 엄마 아빠만 하면 힘들거든 계난 아이들 다 작업시키다보면은 애들 못 찾으면 어디 보디 문 트명에 혼자 울고 그런 식으로 생활했주.

103011 @ 보리 타작 훑기랑 도리깨질도 하잖아예?

103011 #1 그건 우리 아주 어렸을 적에. 그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학교 다닐 때에 틀 있지?

103011 @ 예.

103011 #1 보리 훑으는 기계로 보리 영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 뭐 한 열 석 스무 석 지 마당에 다 그 구루마 마차로 해그네 기계를 해그네

흫해주. 이런 기계들이 있으면은 보리 이렇게 해서 해주게. 우리가 한 아이들 낳기 시작하고 크기 시작하면 것도 없어지고 탈곡기로 보리때 그냥 넣었 해주게.

103012 @ 흫아가지고 보리쌀 나오려면 연자매나 멧돌 있어야하잖아예.

103012 #1 음 그걸로 많이 했지. 연자방아 들방에 냈는데 그건 소로 하고 적은 거는 사람으로도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 물방아 식으로 정미소에 가서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우리 마을에도 뭐 정미소면은 참 그 정미소 주인이 아이돼서 도장 방법을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제라하게 껍데기만 까지는 기계가 나오기 시작하니깐 뭐 요즘 요즘 시중에서 푸는 보리쌀 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주게.

103014 @ 보릿겨, 보릿집, 보리 까끄라기 등은 뭘로 활용하십니까?

103014 #1 흥년에는 그걸 먹었지. 처음에 처음 초벌한 것만 버려두고 나 중학교 다녔을 적에 오십 사년도 오십 삼사년도에는 그것은 완전히 고급 음식.

103014 @ 보리가마씨?

103014 #1 보리 찌꺼기가 고급 음식이라.

103014 @ 찌꺼기가?

103014 #1 오. 그것이 고급 음식이고 이젠 돼지도 안 먹는 고구마 찌꺼기 고구마 전분 뽑당 그거 가져다가 돌담에 즈배기추룩 붙였다가 마르면은 그렇게 먹었주게. 우리 마을의 경우 그거 안 먹은 사람은 삼분의 이 정도되고 흥년에. 그거 먹다 보면 영양실조 걸리고 토 나오고 경혀주게.

103015 @ 보리농사에 대해 알아줍서.

103015 #1 계난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 열시까지 비올것 같은거나 뒷날 작업하젠 하면 아이들 학교 가기 시작하면은 단 하루도 결석 안 시켰는데 아무리 밤이라도 계도 밤에는 일 시켜야 해주게. 그런 식으로 자식을 그렇게 컸기 때문에 착하게 큰 거 닮아.

103015 @ 보리농사에 대해 알아줍서.

103015 #2 우리 살아날 땐게. 독걸름해영 보리씨 뿌렁 비료 없어부난. 것에 막 영 버무려그넹 밧에 시꺼강 뿌려. 뿌렁 게 보리나면게 검질도 매고 보리 빌 거주게. 오죽 힘들게 해서. 비어당 마당에 클로 훑아. 훑아냥 도깨로 두드리고.

조 농사

103016 @ 조 농사도 해보셨지예?

103016 #1 오.

103016 @ 조 농사 하려면 뭐 필요해마씨?

103016 #1 그 옛날은 가급적이면 장마 끝날 때 장마가 끝날 때 과중 하잖아. 뭐 준비할 건 없지. 그냥 옛날에는 그 저 밧이 마른 때 조는 갈아야 되니까 마를 때 건조할 때 건조할 때 갈아야 하니까 소하고 쟁기로 갈고 씨 뿌리고 준비하는 건 거고. 또 그 가물어서 하면 그 밧 흑이 막 뭉치니까 곰팡메로 옛날 제주도말로 곰베라 하고.

103016 @ 그냥 제주말로 곱아줍서.

103016 #1 곱베로 해서 그 부인들 막 흑을 잘게 뿌셔서 조 밭아하기 쉽게끔하고 또 소 말 아주 옛날에는 소하고 말을 많이 기를 때니까 소로 막 그 밭을 다지지 다져. 완전히 다져서 밭아돼야 잡초도 안나고 조만 잘 자란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는 그냥 좁씨 그냥 뿌리고 로타리로 경운기로 뭐 그냥 갈고 또 제초 같은 것도 로타리로 제초 작업하고 여기는 토질이 자갈들도 경 많지 않은 곳이니까 초벌 두벌 세벌 검질을 땀주 옛날에는. 초벌에는 한 오센치 간격으로 했다가 두 번째는 칠 팔 센티 하당 나중에는 십센치 이상 간격으로 좀 적당한 간격으로 완전히 손 봤는데 요 요즘은 조를 많이 안하난 요 중간에는 로타리 그 중간 중간 빼가지고 그 로타리로 치워볼면 뭐 제초도 안허고 그후로는 경 해서. 옛날에는 소하고 말로 밭을 다지고 했는데 요 중간에는 로타리로 해나서.

103017 @ 조밭 거름은 필로 준비해마씨?

103017 #1 거름은 아주 옛날에는 화학비료가 일체 없고 게니깐 보리 거름 생산이 많이 안된 때니까 거름은 보리 할 때 하고 그냥 그냥 거름 없이 거름 없이 하니까 집 인근 가까운 밭을 이내왓이라고 하는데 마을 안에 밭이라고 이내왓은 조가 그런 대로 잘 돼서 좀 키도 한 일메다 이상 자라고 하는데 저 목장 척박한 땅에는 조가 뭐 한 이삼센치 밖에 안 자라가지고 수확도 안나고 뭐 그런 비료도 없었고 옛날엔 화학비료 나온지가 헛 한 한 육십 년? 육십 년 됐지만은 비료가 한 호당 한 두포 주니까 비료를 포대기로 사는 게 아니고 마을에 몇 포 나오면은 마을에서 되로 몇 키로 주니깐 막 못 써서.

103018 @ 그럼 조는 언제 갈고 어떻게 갈아마씨?

103018 #1 조는 뭐 유월절 나야지. 옛날엔 장마가 끝나는 시점에 가는데 그건 머 소 쟁기로 갈았지 옛날엔. 다른 파종 방법은 없고. 주로 소 쟁기로 갈고 그 흑무덤을 뿌서나가지고 씨를 다지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103019 @ 좁씨 뿌리는 방법은 따로?

103019 #1 아니 그냥 손으로. 좁씨 잘 뿌리는 사람은 정확하게 만약 백 평당 몇 홉을 뿌리느냐 해서 정확히 뿌리고 새로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은 그거 잘 못하주게. 여튼 좁씨는 다 손으로 뿌려서.

103020 @ 조밭은 어떻 밟아마씨? 말떼나 남떼나 돌떼, 끄게 사용했마씨?

103020 #1 그것은 워난 순한 밭 이외에는 선비라고하지 선비. 왕나무로 만든 선비해서 좀 많이 무게를 무겁게 해가지고 소 말로 끌던지 가볍게 해서 사람 두 사람 끄서서 좁씨를 파종 후에 흑을 밟았는데 에 그렇게 될 밭은 별로 없고 주로 파종한 다음에 그냥 그 사람 발로라도 밟아야 돼. 계속 그렇게 해서 옛날엔. 요즘은 뭐 파종한 다음에 트랙터로 했주만은 옛날 파종 방법은 밭을 소 우마로 갈고 흑을 잘게 부셔가지고 씨를 파종하고 저 발로 밟는 거. 선비질도 하는 경우도 있고. 선비는 그 한라산에 가면 팡나무로 거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돌 같은 거 넣어서 끄서가면은 그게 좀 밭도 경허고 씨도 잘 섞어서 좋주게. 조 파종은 뭐 어려운 거

어서 비료도 거의 안 줬으니까.

103021 @ 조밭 김매기 아까 세 번한다고?

103021 #1 초벌, 두벌 세벌 검질 해신디. 검질도 검질 잡초도 잡초지만은 조를 거 간격을 간격을 어느 정도 한 십센치 십이센치 그 간격으로 해야 조가 여물고 거 이삭도 크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경 허고 처음에는 막 그 이상하게 심어진 거만 뽑았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뽑으면은 조 자체가 힘이 없으니까 바람에도 쓰러지니까 어느 정도 어 완전히 굵고 클 때까지는 거의 붙은 상태로 있다가 세 번째 검질 땀 때는 완전히 끝까지 결실 될 때까지 자랄 수 있도록.

103022 @ 조밭에는 검질들이 뭐뭐 나마씨?

103022 #1 검질 뭐 여러가지지.

103022 @ 그니깐 뭐 잇언마씨?

103022 #1 쇠비농, 아 뭐 검질은 여러 가지 겨울 검질, 여름 검질은 절란지, 주로 절란지가 많이 나고.

103022 @ 절란지마씨?

103022 #1 절란지, 쇠비농 옛날 제초제를 안 쓸 때는 속도 많이 나고, 주로 절란지가 많이 제초하는 데 힘들어.

103023 @ 그럼 조 수확은 어떻게 해마씨? 옛날은.

103023 #1 옛날은 해 오면은 호미 낫 낫으로 이삭을 하나씩 다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발로 뚫든지 물방에 가던지 도리깨로 치던지 조는 워낙 잘 저 건조하면은 탈곡이 잘 돼니까 탈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앗간 이용도 하고 도리깨질은 거의 안해도 사람이 뚫어서도 허고.

103024 @ 덩드렁마께 들어보션마씨?

103024 #1 아 계난 덩드렁마께로 해주만은 그게 힘들어가지고.

103024 @ 덩드렁마께가 뭐짱?

103024 #1 덩드렁마께는 나무토막으로 원형 거의 원형 나무토막인데 나무토막에 손잡이만 가운데로 이렇게 나무토막이 원형이 있으면은 이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거지. 쉽게 쉽게 표현할 방법이 있나. 이게 원형이라하면은 원형이 원형이 이정도 굵어. 이정도 굵고 길이도 이 정도 하는데 여기 손잡이가 붙이는 게 아니고 이 나무 자체를 깎아서 손잡이를 만들어서 만든게 덩드렁마께지.

103024 @ 아 기구나예.

103024 #1 옛날 짚신을 만들려면 짚을 순하게 손보게 만들기 위해서 덩드렁마께로 멧들로 짚을 부셔가지고 완전히 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짚신도 만들었주.

103025 @ 그럼 옛날에 좁쌀은 어떻게 만들언마씨?

103025 #1 좁쌀사 옛날엔 어떻게해신지 모르켜.

103026 @ 좁쌀로는 뭐 헤드션마씨?

103026 #1 오메기떡도 하고 보리밥만은 이 뭐냐 찰지지 않으니까 흐린 좁쌀 그 조도 흐린 좁쌀 모인 좁쌀 있주게. 흐린 좁쌀은 핑장히 차진 거고 모인 좁쌀은 그

저 밥 해도 차지지 않해서. 차조쌀 같은 거는 보리밥에 보리쌀에 밥을 허다가 한 반 정도 보리가 익으면 좁쌀을 넣으면 굉장히 차지고 이렇게 수저로 떠도 떨어지지 않고 차지주게. 맛도 있고. 계난 주로 밥을 보리쌀에 섞어 하고 좁쌀만으로는 거의 안해먹고 어떻게 죽도 썬 먹을 수도 있고 뭐 주로 오메기떡 만들었더 허고 뭐 여러 가지지. 뭐 여튼 보리쌀에 해서 주식으로 먹는 게 거의 뭐고 오메기떡 행 술 만들거나 그런 거는 여유있는 집에서나 하는 거고 가난한 집에서는 주로 뭐 주식으로 사용했다 봐야지.

103027 @ 조짚 남은 거는?

103027 #1 소 소.

103027 @ 여물마씨?

103027 #1 소 사료하고 것이 워낙 그 대가 강해놓으니까 잎파리 부분 연약한 부분은 소가 먹고 강한 것은 쇠 밑에 깔아주면 거름으로 사용하고.

103028 @ 조 농사 했던 거 돌아봅서.

103028 #1 기억 나는 거 뭐 옛날 특별한 것도 없고 옛날엔 여긴 조 농사 많이 하지도 않아서.

103028 @ 그지예?

103028 #1 보리는 정부수매로 판매도 해서 뭐 학자금도 마련하고 용돈도 쓰고 좁쌀은 겨우 이년 자금자족 한 정도주. 시장에 출하할 목적으로 제배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거의 뭐 자금자족해서 자기 주식으로 이용하고. 계난 보리하고 틀러가지고 그 조를 제배해서 어떻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안했고 그냥 주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103028 #2 옛날엔 보리 갈 때에 겨울엔 보리 갈고, 여름이면 조 갈아. 조는 장마 지난 영 막 날 좋아야 조가 잘 되여. 농사 다 행 이월 스무날에 막 쉬고 독 잡아 먹고 해주게.

콩 농사

103029 @ 콩 농사 해보셨마씨?

103029 #1 콩은 농촌에 콩농사 다 뭐 해주마는.

103029 @ 콩 농사 하려면 뭐 필요해마씨?

103029 #1 것도 뭐 종자만 하면 되는 거. 콩농사는 거의 처음에 비료도 안쓰주게. 옛날 하면 보리 끝나면 보리 후작으로 보리에 거름 넣은 걸로 콩이 비옥한 땅에 하면 결실이 안 좋아. 콩이 도장하지 말고 어느 정도만 자라야 결실도 좋고 수확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비료도 안 주고 콩씨만 뿌려서 그냥 갈면 되는 거.

103030 @ 콩은 언제 어떻 갈아마씨?

103030 #1 것도 유월절 전후 옛날엔 유월절 전후 했는데 요즘은 양력 유월 이십일 정도에 파종하는데 콩씨 그대로 만약에 그 토양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종자를 많이 뿌려야겠다하면 많이 하고 이 밭은 밭아가 잘 안된다고하면

적게 뿌리고 또 경운기로 파종을 하느냐 소로 파종 하느냐 트랙터로 파종하느냐 따라서 또 종자가 더 많이 소요되고 덜 소요되고 그러는데 왜냐면 트랙터로 하면 깊이 묻어지니까 발아율이 떨어지니까 많이 뿌리는 거고.

103030 @ 예.

103030 #1 단지. 콩씨만 뿌리면 돼. 비료는 워낙 척박하다고 생각하면 뭐 탄 농사에 비해서 십분의 일?

103031 @ 콩밭 거름은 어떻 마련해마씨?

103031 #1 계란 거름을 거의 안줘. 식용으로 하는 콩은.

103032 @ 콩씨는 어떻 뿌리는거마씨?

103032 #1 다 사람 손으로 뿌렸주게. 것도 한 줌 영 가져서 세 번 던지는 사람 다섯 번 던지는 사람 자기 재주식으로 해주게. 잘 뿌리는 사람은 일정하게 콩이 발효하고 잘 못 뿌린 사람은 못하고.

103033 @ 콩밭 김매기는 몇 번 해마씨?

103033 #1 콩밭 김매기 한번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콩이 어느 정도 콩잎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풀이 안나.

103033 @ 아 왜 경허주마씨?

103033 #1 검질 한 번 안매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번만 매면은 거의 콩 해먹어. 그 햇빛이 땅에 들어가면은 잡초가 생기지만은 콩 잎파리가 덮으면은 햇빛이 안들어가주.

103034 @ 콩밭에만 나는 검질들이 잇어마씨?

103034 #1 거의 여름 농사 마찬가지로 쇠비논 절란지.

103034 @ 지완제 제완제? 그거는 안나마씨?

103034 #1 그거 절란지 아니라? 그거 잔디 모양으로 한 건디.

103035 @ 콩 수확은 어떻해마씨? 다 자란 다음에는?

103035 #1 옛날에는 그 일일히 다 손으로 비어가지고 묶어서 많이 안할 때는 소로도 밟고 마차로도 하고 도리깨도 했지 옛날에는 했는데 기계화 되고 난 다음에는 저 경운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콩을 비어서 일정한 장소까지 운반해다가 덩치면은 콩타기 경운기에 콩타기를 메어가지고 했고 요즘은 콤바인으로 하고.

103036 @ 콩으로는 뭐뭐 드션마씨? 예전에는.

103036 #1 아 그거 콩도 많이 하면 판매도 하고 돈도 되는데 옛날에는 단백질 공급은 된장으로 했으니까 된장이 열 식구다 하면 열 마를 되장을 담았어. 그걸로 반찬도하고 영양 보충을 된장으로 해서. 계란 주로 된장을 담기 위해서 그 옛날엔 콩을 했고. 뭐 그 외에 콩가루 해서 떡도 해주만은 그건 여유 있는 집이 허고 경안한 집은 시작에 팔기도 하지만은 그건 일부고 주로 된장 담기 위해서 콩을 심은 거고.

103037 @ 콩짚은 그것도 소한테 줘마씨?

103037 #1 콩은 그건 연료로 썼주. 콩에 콩도 저 소도 먹는 거 소 사료도 이용

했주만은 그냥 연료로도 사용해서. 옛날에는 보리짚도 연료로 사용했으니까 재래식 부엌해그녕 연료로 사용해서. 콩 같은 거 유채나 같은 건 연료로 사용하고 가축 사료로 사용하고.

103038 @ 콩 농사 최근에는 언제 하신마씨? 콩 농사하신 얘기 좀 곁아줍서.

103038 #1 난 농사를 빨리 그만뒤부난. 콩 농사 칠십 전에는 조금 해서. 한 육 칠년 전까지는.

103038 @ 그럼 얼마 안되신게마씨.

103038 #1 오. 그 때까지는 했는데 콩 농사도 그 비옥하고 거름을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콩이 도장해가지고 그 열매가 달리긴 달려도 그것이 에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 그 정상적으로 콩이 자라질 않아. 썩어붙던가 아니면은 어 그 저 뭐냐 잘 익지 않아가지고 콩이 다 다 저 시기적으로는 시월말되면은 완전히 끝내야 되는데 시월말될까지도 퍼렁하면 상품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고 식용으로 안되고 그렇게 폐작 될 우려도 많주게. 그 저 뭐냐 감자 후작에 그런 경우가 많은 데 거름이 많은 밭. 콩을 거름을 안쥬 곁아야 거름을 안 주주마는 거름은 이제 전작에 전작에 거름이 그대로 후작까지 이월 돼가지고 콩이 도장하면은 결실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식용 가치도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지 많아 주로 감자 농사 후작으로 하면게.

103038 @ 콩 농사는 하신마씨?

103038 #2 콩 농사는 장마 전에 곁아. 이제 비여. 옛날은 비여그녕 도개로 두드려신디 지금은 기계로 햄주게.

밭벼 농사

103039 @ 밭벼 농사 해보신마씨?

103039 #1 밭벼 농사는 난 안해봐신디.

103039 @ 아는 것만 곁아줍서. 밭벼 농사 할 때 뭐가 필요하카마씨?

103039 #1 아무것도 필요 없어. 씨만 뿌려붙면.

103039 @ 옛날에는 밭벼 씨는 어디서 받아신가마씨?

103039 #1 우리 결혼 전에 그 때는 어 육지에서 뭐 쌀이 들어올 때도 아니고 저 제사를 해 먹기 위해서 밭벼는 꼭 곁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농약도 없지 이 뭐 관정도 없지 하니까 우선 하늘에 맡기는 거라. 파종만 한 다음에는.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잘 되는 거고 비가 안오면 안되는 거고.

103040 @ 그럼 밭벼는 언제 어떻 곁아마씨?

103040 #1 뼈꼭새 울기 시작하면 간다고해 양력으로 한 오월 십일. 오월 십일 경에 보리 가는 식으로 쟁기 곁고 흑 곁라주고.

103041 @ 밭벼밭 거름은 뭐 따로 어신가마씨?

103041 #1 옛날엔 거름이 없었지. 게 요즘도 연작도 안하고 요즘 토양보다는 그 당시는 토양 자체적으로 힘이 있었주게.

103042 @ 밭벼씨는 어떻 뿌려마씨?

103042 #1 뭐 이제도 거의 다 손으로 뿌려.

103042 @ 밭벼씨도마씨?

103042 #1 보리도 보리씨도 마찬가지로.

103043 @ 밭벼밭은 검질 몇 번 해마씨?

103043 #1 그건 뭐. 밭벼씨가 씨가 저 파종할 때 물이 어느 정도 맞고 파종해서 한 십오일 간 저 뭐냐 한 일주일 이상 날시가 좋아불면 검질이 덜 나고 파종해그넝 금방 비와불면 많이 나니까 검질 다섯 번도 매시난 그런 기준은 없언.

103044 @ 밭벼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란마씨?

103044 #1 거기도 절란지하고 그런 것들 잇언.

103045 @ 밭벼 수확은 어떻해마씨?

103045 #1 밭벼 수확은 옛날엔.

103045 @ 베는 것부터 곱아줍서.

103045 #1 호미로 옛날엔 그거 비고, 묶어그넝 옛날 보리 장만 하는 식으로 틀이 있어. 밭벼 훑으는 틀이 있어. 뭐 그건 많이 하는 사람하고 적게 하는 사람이 틀린디 적게 하는 사람은 발로 비벼서 그 에 ㄹ시락이라하나. 보리 ㄹ시락이 맞는데 손으로 발로 비벼서 적게 하는 사람은 그걸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탈곡하는 것은 그 연자방아도 연자방아지만 집집마다 요만석 한 요런.

103045 @ 멧돌마씨?

103045 #1 멧돌아니고 그것도 방아지 방아 이렇게 절구통 놔가지고 쌀 찍어서 쌀 만들어가지고 먹었주.

103046 @ 밭벼쌀로는 밥이나 떡 만들엉 먹언마씨?

103046 #1 뭐가 옛날에는 그 제사 때 우리 뭐 한 어렸을 때 우리 한 삼십대 까지도 제사하고 명절아니면 쌀 밥을 못 먹어서. 게난 그거 저장해 두었다가 제사 때 떡도 허고 제삿밥 하고 그러지.

103047 @ 밭벼짚은 뭘로 사용해마씨?

103047 #1 그건 사료 백프로 사료.

103048 @ 밭벼 농사 했던 거 곱아줍서.

103048 #2 해놔주게. 밭에 씨 뿌령 물 줘. 물 이시난. 여기는 논이 있어. 밭들이 다 높은데라부난. 논이 어신나 말짖들은 밭에 나록해그넝 물만 줘놔주게. 게난 물주면 게 나록이 되는 거주게. 물 줘.

고구마 농사

103049 @ 혹시 고구마 농사도 해보셨마씨?

103049 #1 고구마야 여기 저 제주도서 여기가 제일 많이 하는 데니까.

103049 @ 그럼 고구마 농사하젠하면 뭐 준비해야 되마씨?

103049 #1 우선 종자해서 이월말 삼월초에 묘종을 묘상을 만들어야지. 고구마로

어 옛날에는 비니루 없을 때는 그대로 했지만은 비니루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 이십센치 간격으로 고구마 종자를 묻어서 그게 발아 되면 발아 순이 고구마 하나에 삼십개도 나고 이십개도 나고 경허주. 그게 어느 정도 크면은 삼십센치 정도 크면은 밭에 심는 거주게.

103051 @ 고구마밭 거름은 뭐 잇언마씨?

103051 #1 아니 무사 게 화학 비료.

103051 @ 화학비료 말고는 없언마씨?

103051 #1 여긴 광작 해놓니까 고구마밭까지 갈 거름을 준비를 못해.

103052 @ 그럼 고구마는 어떻 심어마씨?

103052 #1 심는 건 소로 갈 때도 있고 여기는 파종 하는 간격이 고랑 사이가 육십센치 간격이라. 이랑을 영 만들엉 거기 그 고구마 묘상에서 순을 잘라온 걸 순을 잘라서 약 삼십센치 간격으로 순이 한 일메다도 되고 긴 것은 더 긴디 삼십센치로 잘랑 이랑에 일렬로 심엉 방법은 에 등치하고 끝이 일률적으로 해야되주게. 순하고 끝하고 끝이 붙어붙은 수확이 안되주게. 그렇게 심어가지고 어 이 한 활착이 돼가지고 한 얼마 이십일 되면은 중간에 복토하지 복토. 굴 갈양. 굴 갈아가지고 복토해주게. 고구마 농사는 복토 하면은 나중에 수확하면 되는거라.

103053 @ 고구마밭은 김매기는 몇 번 해마씨?

103053 #1 복토하면은 거의 안 할 수도 있고 게고 제초제가 고구마가 여기 한창 절간 고구마 할 때까지는 제초제가 없어신디 팔십년도부터 나와신디 그거 없을 때는 복토하고 거 한 번 정도만 제초하면은.

103053 @ 예.

103053 #1 콩과 마찬가지로 감자 넝쿨이 엷어지면 풀이 발아가 안 돼.

103054 @ 고구마밭에 있는 검질도 앞에 다른 것들이랑 같아마씨?

103054 #1 아이 여름 농사 고구마밭에는 별로 절란지 한 번 즈음 복토하면 없주게.

103055 @ 고구마 수확은 어떻 해마씨?

103055 #1 수확은 넝쿨을 먼저 제거하고. 넝쿨은 말렸다가 소 사료로 쓰고 넝쿨하고 그 다음에는 소 쟁기건 에 뭐냐 경운기 쟁기 건 다 갈아서 갈고 다 한 쪽으로 모여가지고 또 고구마 갈고 그 뭐 행 캐면은 줄기가 다 붙으지 그 줄기를 분리 해가지고 절간 할 때는 절간 그 고구마 썬는 기계로 썰엉 말리고 경 안하면 판매하고.

103056 @ 고구마는 옛날에 어떻 보관헨마씨? 수확 한 다음에. 감젓놀이라고 들어보션마씨?

103056 #1 고구마하면은 옛날엔 직경 한 일메다오십센치 정도 행 구덩이 파지. 구덩이 파가지고 고구마 저장고들 없을 때. 한 오육십년 전까지만해도 구덩이 파서 습기가 있는 땅 파면 안 좋고 건조한 땅 깊게 팡 거기에 가로 역새 같은 거 영 역새 같은 거 옆에 세워가지고 고구마 넣어서 우에 봉분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노랑지 텃밭.

103056 @ 그게 감젓눌마씨?

103056 #1 오 그게 감젓눌.

103057 @ 고구마로는 절간고구마는 있고 씨고구마는 안해마씨?

103056 #1 왜 씨고구마 당연히 해야지.

103056 @ 절간고구마랑 씨고구마랑 어떤 차이마씨?

103056 #1 고구마 같은 건데. 같은 건데 거기서 우선 종자용 고구마를 깨끗한 절로 추려두고 종자는 많이 안 드니까. 만약 삼천평을 심는다 해도 어 고구마 한 열 다섯가마면 충분히 심으니까. 종자 깨끗하고 너무 크지도 적지도 균일하게 뽑아서 종자하고 나머지는 절간 하던지 생고구마로 파는 건데.

103056 @ 예.

103056 #1 예 칠십년 칠십년대 후반 칠십년대 후반까지는 절간 고구마가 한창 중농정책으로 오개년 계획이나 해서 절간고구마를 육성하고 주종을 경해신디 팔십년대 들어성 절간고구마는 안하고 이제 다 전분 공장에 팔았주게.

103058 @ 고구마 줄기는 뭐해씨마씨?

103058 #1 고구마 줄은 소 사료 가축 사료로 써.

103059 @ 고구마 농사는 아직도 많이 해마씨? 신도리에서?

103059 #1 거의 안해.

103059 @ 예전엔?

103059 #1 예전에는 많이 했주. 예전에는 육칠천평 심는 사람도 있고.

103059 @ 안하게 된 게 돈이 안된마씨?

103059 #1 그렇지. 소득이. 이 마늘 심기 시작하난 뒤 고구마 농사도 죽어지고 콩 농사도 죽어지고.

103059 @ 마늘은 많이 심어마씨?

103059 #1 지금은 마늘이 제일 많주게.

103059 @ 그럼 마늘 농사는 어떻게마씨?

103059 #1 마늘 농사는 일년 내내 마늘 뭐.

103059 @ 대충 함 골아줍서.

103059 #1 마늘은 이제 수확이 오월말에서 유월초인데. 그 때가 완전히 건조시키거나 건조장에서 건조 한 다음에 하나하나 다 까야되주게. 다 까야되는데.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잘 까는 사람이 한 육십평 심을 거 까고. 다 까서 한 다음에 뭐 소독한 사람은 소독하고 요즘 한창 심엄주게. 구월 오일까지 딱 한 십오센치 십일센치 간격으로 그 이상 한 사람도 있고 하주만은 보통 길이 십오센치 밭에다 심엄 하주게.

103059 @ 고구마 농사 하셨지예?

103059 #2 고구마 농사 했주게. 고구마는 심었당 갈아그넵 절간허여. 영 돌려서 썰어. 그 때 그 술 원료 해서. 그 때 막 일허는 사람들 돈 벌어서. 돈 벌영 밭도 사

고. 고구마 할 때는 여기서 많이 해나서. 애월에서 많이 해나서.

기타 농사

103060 @ 혹시 수박 농사도 하신마씨?

103060 #1 그런 건 여기 거의 안허여. 원외작물은 안허여.

103062 @ 고추 농사 하시는 사람 잇어마씨?

103062 #1 고추도 자가로 먹을 거 조금 한 삼십평 그정도 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사람이고 삼십평 이상 하는 사람도 없주게.

103064 @ 배추나 늬삐 농사도 안해마씨?

103064 #1 월동무 많이 하지. 월동무 이 쪽에 많이 해주게.

103064 @ 월동무 농사는 어떻해마씨?

103064 #1 그건 일반 작물 재배랑 마찬가지로. 것도 사람에 따라서 육십센치 간격으로 이랑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 사십오센치 간격으로 이랑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파종기 이신디 예전에 파종기 없을 때에는 약 한 사십센치 간격으로 사람 손으로 저 씨앗을 영 집어넣주게. 후 덮으면 경해서 제초제 주고 물 한번 받고 경하면 발아되주게. 발아되면은 별로 뭐 할 거 어서.

103065 @ 지실은 농사 안햐나마씨?

103065 #1 지실은 지금도 조금 하는데 옛날은 많이 해주게.

103065 @ 옛날은 많이 하신마씨? 어르신도 하신마씨?

103065 #1 우리도 감자 많이 해주게.

103065 @ 지실은 어떻하는거마씨?

103065 #1 지실은.

103065 @ 다른 거 이수광? 혹시.

103065 #1 종자는 가을 감자 하던지 만약 구입하면은 그걸 다 눈만 눈만 하나씩 있게 잘라내가지고 한 육십센치 정도 폭 이랑 만들어그넝 한 이십센치 간격으로 넣어서 그거 해서 겨울에 겨울 감자는 심어서 제초제만 줘서 비닐루 덮었다가 발아 되면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가을 감자는 발아된 다음에 비닐 덮어서 힘들지만은 순난 것을 전부 비닐 밖으로 내쳐야돼.

103065 @ 그믐 옛날에 지실농사 한 거, 좀 곱아줍서. 지실농사 한 거. 어떻게 하신마씨?

103065 #2 어떻게 해게. 쇠로 갈아.

103065 @ 뭘 갈아 마씨?

103065 #2 밭을 갈지.

103065 #2 쇠로 밭 갈아부네. 영 지슬을 찢러. 찢러그넝 비닐을 덮어.

103065 @ 아. 비닐을 덮어마씨?

103065 #2 응. 경허영 나가른 영 터주아. 나가면 터주면 크면게.

103065 #2 그 십이월 달에 낱 오월되면 캐여. 파. 경허영게 육지로도 올리고 막

서울로도 올렸지게.

103065 @ 그럼 뭐 그 김질은 몇 번 맨마씨? 지실할 때?

103065 #2 그 지실할 땐 별로 김질 안 매서. 저 영 약 뿌령허영. 그건 나중에. 처음에는 보리갈고, 감지 싱겼주게 고구마. 감자 싱거그넝 김질매고 이 쇠로 굴 갈고 굴갈아 올려. 경허영 감자 절간도 허고 감자 썰어그넝 물려와.

103065 @ 절간은 뭐 마씨?

103065 #2 감자영 캐여 영, 우에 기계 여 기계로 들이청 손으로 영 막 썰어. 기계로 썰어 물려왕. 물려왕 그걸로 술했젠 곶아 옛날에.

103065 @ 아 술마씨?

103065 #2 응. 술했젠.

103065 @ 그게 절간 고구마?

103065 #2 응. 절간 고구마.

103068 @ 흑사 메밀이나 담배 농사는 신도리에서 안했지예?

103068 #1 담배 농사 옛날 뭐.

103068 @ 담배 농사 하선마씨?

103068 #1 담배 농사 하는 데는 육십년? 오십오년?

103068 @ 담배 농사 기억나는 거 있어마씨?

103068 #1 기억나는 거 뭐야 그거 그대로 씨앗 해서 묘종 났다가 하나하나 잎파리 따서 엮어가지고 어 옛날은 초가집 이런 집 아니고 초가집인데 풍채가 있어. 그 쪽에서 저 반대편으로 줄 메어서 담배 엮은 걸 양쪽 선을 메서 거기 했다가 비와가면은 쪽 해서 풍채 안으로 했는데.

103068 @ 예.

103068 #1 몇 개 읍면 합쳐서 한 군데서 해놔주게. 게서 것도 좀 부지런한 사람은 뭐야 주황색 식으로 담배 잎파리를 말리고 조금 게으른 사람은 시커멓게 해서 품질도 여러 가지고. 그건 한 육십년 대 육십년 오십 육십년 전후. 자유당 때부터 시작해서 했었주게. 담배농사는 많은 인력이 참여 안했주만은 우리 마을은 육 칠년 해놔주게.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소는 처음에 어떻게 길러마씨?

104001 # 어떻게 기르는 게 아니라 소는. 농사를 짓젠하든 필수적인 거라. 밭을 우마차로 해서 농산물 운반 하는 데도 소가 필요했고 또 밭을 경운해서 농사를 짓을 때도 소가 필요해서.

104001 @ 예.

104001 #1 농촌에 소 한마리 없으려는 농사를 짓을 수거 없는 거니깐.

104001 @ 예.

104001 #1 또 소 지으는 것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힘 세고 크고 한 소를 질렀지만은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해마다 겨우겨우 어 새로 가르쳐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를 교환해서 웃돈을 받아가지고 학자금으로 쓰고 경허니깐 하나의 하나의 재산 형성도 되지만은 에 농산물 운반이나 밭을 갈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소는 사육해야되주게.

104002 @ 소 종류 아시는거 잇어마씨?

104002 # 옛날엔 뭐 토종 뭐 제주 한우로 토종이주만은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주게. 젓소 종료도 있지만은 브라마다 뭐 그 그 뭐냐 색깔도 얼룩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하튼 주로 브라마 그 종류를 많이 사육했죠.

104002 @ 그믐 빨 모양에 따라서 소 나누는 종류 없언마씨?

104002 #1 빨이 일직선으로 섰는지 뒤로 영 한 거는 제주 토종 한우에 가깝고 앞으로 영 나온 거는 수입한 소로 봐야지 브라마.

104003 @ 소는 밭 가는데 이용하잖아예?

104003 # 소는 밭 같고 구루마. 마차로 이용해주게. 농산물 운반할 때

104003 @ 보통 그 두가지마씨?

104003 #1 으 그 두가지.

104004 @ 소는 어떻 길들연마씨?

104004 # 거는 뭐 사람 재주에 따라 여러 가지주마은 주로 멧돌 같은 거 구멍 뚫어서 소 명예 명예 쟁기를 땡기젠하면 건 필요한거주 소 명예 뒤에 멧돌을 달아 매서 소에 따라서 소가 워낙 약하면 적은거로 어느 정도 크면 큰돌로 행 길을 막 돌아 땡기는거라 돌아땡기면서 소가 어느 정도 적응한 거 같으면 밭에 쟁기 매어 가서 하는 거고 또 마차도 매어가서 그거는 소 길들이젠 하면 아무도 못하고 힘도 있어야 하고 그거 뭐 한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은 매해 소 길들여해주게.

104004 @ 매해마씨?

104004 # 웃돈을 받아서 소를 거의 매해 매해가 아니고 교화하는 거주게. 만약에 길들이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돈 값어치가 좀 있는거는 있으면은 작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소가 백만원짜리다하면은 한 오십만원 육십만원 짜리라도 길을 들이고 또 어 밭 가는거나 우마차 운반하는 데 지장 없으면 돈을 삼사십만원 받아서 웃돈을 받는 거라. 없는 사람은 매해 소를 길들이는거주게.

104005 @ 그럼 소 나이는 어떻 알아마씨?

104005 # 이빨로. 주로 이빨로.

104005 @ 이빨마씨?

104005 #1 이빨 벌려서 다간이면 두살이고 사릅이면 세 살이고 나릅 다섯 다간은 이빨이 두 개면. 치아로.

104005 @ 이게 다간이라고해마씨? 두 개 있는게.

104005 #1 다간은 두살을 다간이라하여.

104005 @ 소 두살을 다간이라해마씨? 그럼 세살은?

104005 #1 사륙.

104006 @ 쟁기도 부분마다 이름이 다르지마씨?

104006 # 성에가 뭐 하는 거고. 성에는 키로 표현을 해야하나. 저 소하고 연결 시키는 거고 성에 제일 긴 거고. 무클은 보섭하고 벳. 보섭은 이제 영 삽 모양으로 생긴 그것이 보서하는 것이 무클. 설치는 무클하고 성에하고 연결 시키는 중심을 잡아주는 거.

104006 @ 예.

104006 #1 양젓머리는 사람 손 잡아서 하는. 게 그것이 주로 네 가지로 분류가 되주.

104007 @ 그럼 길마는 어떻 곱아마씨?

104007 # 길마라니?

104008 @ 멩에좁 곱아줍서

104008 # 멩에는 이렇게 구부린거. 소 목에 거는 거고.

104008 @ 멩에는 부분마다 이름 뭐 잇어마씨?

104008 #1 멩에는 멩에 하나라. 즈께는 멩에를 고정시키는 목걸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잇인 거고.

104009 @ 소는 보통 키울 때 어디서 키워마씨?

104009 #1 오양간 잇어. 집에는 반드시 오양간 잇어.

104010 @ 소는 언제까지 기르셴마씨?

104010 #1 소 기른거? 이십오년?

104010 @ 이십오년마씨? 소 키운 추억잇어마씨?

104010 #1 아니 한 마리씩 오래 길렀주게.

104010 @ 제일 오래 기른 소는?

104010 #1 거의 매해 바꿨는데. 소는 옛날에는 둔소영해. 번쇠랜 하는디 번쇠는 농번기고 매일 혼자가 매일 소 하나를 목장 같은 데나 풀을 뜯거나 하기 힘드니까 한 십명내지 십오명 가까운 인근에 사람들이 번을 만들어가지고 그 소를 쇠내칩서 쇠들입서 행 번쇠해서 인근방에 십오세대가 있으면 열 다섯 개가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거라. 아침에 처음엔 뭐하다가 길들여서 한 사람이 목장에 강 관리하면 말 잘 듣고 어디강 가두었다가 집에 가자하면 자기 집으로 잘 들어가났주게. 번쇠로 영 하는데. 소는 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관리에 따라 소 종류에 따라 다르주만은 사람이 정성을 다하면 소가 잘 클주게.

104010 @ 예.

104010 #1 추억들은 자식들 키울 때 한 여덟살만 되면 물 맥여와라 하면 물 맥여오고 어디가그넹 여덟살만 되면 소 맥졌으니까 자식들한테.

104010 @ 소 키운 추억잇어마씨?

104010 #2 이 옷드레는 암쇠들 질렁 새끼 내오고 여기는 암쇠를 못 질러.

말 기르기

104011 @ 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잇어마씨?

104011 #1 말은 몰라.

떡이

104016 @ 소 떡이는 어떤 것들이 잇어마씨? 소 떡이.

104016 #1 어 떤데 저 소 사료로 하는 쇠출이 잇어. 쇠출로 자라는 풀들이 잇어.

104016 @ 예.

104016 #1 그거 해서 주로 그거 한 시월말 즈음에 소 양에 따라랑 소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104016 @ 예

104016 #1 쇠출 소나무 밭이나 목장 같은 데 가그녕 소출 마흔 다발이 한 발인데 삼십발 사십발 내지 집에왕 주면은 그것이 쇠 주식이라. 간식으로는 고구마 녀쿨 뭐 벗짚 이런 걸로 하는데. 비육을 하는 소는 그걸 작두.

104016 @ 작두로마씨?

104016 #1 작두로 출 한 오센치 길이로 짧게 설어가지고.

104016 @ 예.

104016 #1 사료 사료를 섞영 주어서 비육을 주었고.

104016 @ 출 베는 게 작두로 베는거마씨?

104016 #1 자르는 거게.

104016 @ 출 종류는 뭐 잇어마씨?

104016 #1 출 종류는 자골 뭐 풀 이름을 잇어부난게.

104017 @ 출은 옛날에는 개인별로 헨마씨 단체로 벤마씨?

104017 #1 여기는 자기 소유 출밭이 없어. 자기 소을 좇밭이 어시난 목장에 어디 한경면 저지리면 저지오름 산을 사서 몇 사람이 공동으로 해오는 거주.

104019 @ 그거 만약 거기장 저지에서 하면 어떻 가져와마씨?

104019 #1 소로 구루마로 하고 그 후에 경운기로 뭐 하고 하는데. 그 출 비어가그녕 계속 날 좋으면 삼일만에 수확되거든 삼일만에 비오면은 못가져오주게. 썩어부난.

104019 @ 그럼 출 저장은 어떻게하는거마씨?

104019 #1 놀로 하주게. 제주도 원래 처음부터 작은 면적에 많은 걸 저장하젠 하면 원으로 해가지고 보기도 좋주게. 건물에 비유하면 제주도 그런데 보이는데 여튼 원으로 해서 높이가 가로 한 이메다 오십 정도되면은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영 그 위에 노람지 덮어서 최종적으로는 주쟁이 뒤어그녕 저 그 줄로 감아서 바람에

풀리지 않게 그걸로 저장이 끝나는거주게. 하여튼 제주도는 보리 같은 거 집에 왕가저장하는 것도 놀로 하는 거고. 가축 사료 출도 놀로 해주게. 제주도는.

104020 @ 출이 여물로 바뀌는거마씨?

104020 #1 출이 여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거 파란 풀인데 띠 모양으로 생긴 풀인데 삼일 간 건조하면 그 풀을 그대로 말렸다가 주는거지.

멜감

104022 @ 혹시 멜감도 알아마씨? 예전에는 멜감씨신디.

104022 #1 멜감이야게 부엌에서 불 때는데 멜감아냐.

104022 @ 그럼 멜감 종류에는 뭐 잇언마씨?

104022 #1 아주 옛날에는 보리짚도 되고. 보리짚 또 그 유채낭. 콩 콩 탈곡 한 다음에 콩 나무 그 종류 제일 멜감으로 고급은 솔섬이주게. 소나무 낙엽.

104022 @ 아.

104022 #1 소나무 낙엽 그걸 겨울 때 되면 늘 식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멜감으로 주로 사용했고 장작에 소나무 같은 거해서 장작 행 만들었다가 하는 거는 장작했다가 쓰는 거는 결혼식 때나 조상이 돌아갔을 때 큰일 했을 때 요즘은 예식장 같은 데 하주마는 예전에는 다 집에서 손님도 하고 해시난 그 때 쓰기 위해서 소나무 잘라가지고 육십센치 길이로 해서 장작 하는 거는 그렇게 주로 하고. 제일 고급 멜감은 소나무 낙엽. 소나무 낙엽이 제일 좋은 멜감이고 그 어려운 데는 보리짚도 사용했주.

104023 @ 소똥이나 말똥으로 안하셧마씨?

104023 #1 그런 걸로 연료는 안해서. 소똥 말똥 많지 않으니까.

104024 @ 솔가리 걷기 들어봐수광?

104024 #1 솔가리.

104024 @ 걷기. 솔가리 걷기는 안들어보셧마씨?

104024 #1 솔가리 걷기?

104025 @ 나무는 해보셧지예?

104025 #1 소나무 벌채. 그 옛날에는 무조건 산림녹화여 무조건 자르지 못해. 소나무 벌채 신청해서.

104025 @ 예.

104025 #1 신청하면 가지는 가지대로 해다강 놀해서 저장행 쓰고, 가지말고 나무는 도끼로 장작 만들영 보관했주게.

104026 @ 솟도 구원마씨?

104026 #1여긴 옹기 하는데 외에는 솟을 굽지 않았주게.

사냥

104028 @ 사냥은 안해보셧지예.

104028 # 안해서.

5. 바다일

105013 @ 배에 대해서 고깃배 종류는 뭐 잇어마씨?

105013 #1 그것도 여기 사람 잘 몰라.

105013 @ 신도 일리는 모르카마씨?

105013 #1 신도 이리 가야 알아.

6. 의생활

옷감

106001 @ 그 옛날에 옷감 있잖아예 어르신. 옷감. 옷 만드는 거 옷감. 옷감에는 뭐뭐 있었주마씨?

106001 #2 그냥 감탄에 옷을 드렸주게.

106001 @ 감탄?

106001 #2 옷을 허는 거?

106001 @ 예. 옷감 옷감. 막 천있잖아예?

106001 #2 그거. 토종 감에 타그네게. 뽕상 물해영. 옷에 들어그넝 물리민 게문 옷감되주게.

106001 @ 그럼 종류는 뭐 몇 가지 잇언마씨?

106001 #2 몇 가지 잇어. 그냥 토종감만 타그넝 뭐, 뽕상만들주게. 이것들 다 경 현겨주게. 일 흘 때 입젠들.

106001 @ 아, 그럼 이거 천은 종류가 뭐마씨? 이 천은?

106001 #2 광목, 광목.

106001 @ 그 종류가 광목이랑 또 다른 거 잇우광?

106001 #2 베에도 들이고게.

106001 @ 베?

106001 #2 이거 베에 들인 거 아니래. 이거 예쁘게.

106001 @ 아. 이진 베에다가?

106001 #2 응응. 이진, 이진 베에 들어그넝. 일 혈때 건드럽게 소락하게 입젠. 이진 베에다 들인 거 이진 광목에 들인 거.

106001 @ 그러면 언젯적에 언제 광목 입고 언제 베에 입어마씨?

106001 #2 그에, 여름엔 게 베 입어야지 건드럽게.

106001 #2 또, 이거는 항상 입어. 겨울에도 입고 여름에도 입고.

106001 @ 광목은? 겨울에 추우면 뭐 더 입는거 없었마씨? 옛날에는?
106001 @ 지금이야 막 두꺼운 잠바 입잖아예. 근데 옛날에 뭐 입었마씨?
106001 #2 옛날에는 별로 엇어. 속에 무신 거. 속의 바지 저고리나 입었주게.

명주

106002 @ 그면 옛날에 멥주실 있었잖아예. 멥주실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서마씨?
106002 #2 게, 누에질로게.

106002 @ 그, 길게 천천히 한번 얘기해줍서.
106002 #2 그, 저, 뽕낭잇어. 뽕낭.

106002 @ 아, 뽕낭?
106002 #2 응. 뽕낭 뉘에라고 버랭이.

106002 #2 그 뽕낭 타당 그걸 막 맥어. 맥이면 그거시 똥 싸신가? 어떻게그넝 멥주 실을 헝거라. 멥주 실은 싸, 싸신데던가 질러난선은 있나만은.

106002 #2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걸 질렀어. 왜인지 허쟁허면. 뉘에라고 허영 질루양 뽕낭 타당 막 맥이멍 질루양 똥 싸민 그걸로 멥주 만들어.

106002 @ 아, 그걸로? 그러니까 어뎡 만들어마씨? 똥 싸면 그걸로 뭐 기계에다 집어넣고 경해마씨?

106002 #2 아니영. 질질질허멍 감아그넝. 경행 미녕 차듯, 미녕 차듯 그걸 차야 되여 손으로.

106002 @ 손으로 해야되마씨?

106002 #2 응.

106003 @ 그럼 그렇게 멥주 만들면 종류 있잖아여, 멥주실. 멥주실 종류가 있수 광? 똥똥 있선마씨?

106003 #2 종류 혼 가지 뿐이지. 뉘에질루양 그걸루.

106003 @ 똥, 생멥주 수화주 들어보시지 았안마씨?

106003 #2 어. 생멥주는. 생멥주는 빨지 았은 거 곱양 생멥주하 허주게.

106003 @ 아, 빨지 았은 거?

106003 #2 으. 광목도. 그. 회양하게 허는 건 막 빨양. 회양하게 만들고. 빨지 았으면 게 막 누르릉허니 저 쓸 같으민. 흰쓸들 깨끗이 허민 회양허고 금방 현미처럼 허민게 그것어 이 멥주, 생멥주지 게, 생으로 되그넝. 깨끗 안 한거.

106003 #2 깨끗허게 허젠 허믈게 막 빨양 물리고 막 살아지믈 허영허고 경 아니믈 생멥지 되고.

106003 @ 그러면 생멥주가 약간 안 깨끗한거?

106003 #2 응, 광목도 경 하잖아.

106003 @ 그러면 깨끗한 거는 똥라고 해마씨?

106003 #2 멥주지 게 똥.

106003 @ 그냥 명주?

106003 #2 응.

106004 @ 그러면 이제 명주실을 뽑잖아예, 누에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로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예. 어떤 옷을 만들주마씨?

106004 #2 죽을 때 입는 거.

106004 #2 죽을 때 명주 옷을 입어야. 그. 저. 이 광옷 같은 거 나일론 입으면 안되지. 썩잖여. 계난 죽을 때 입주게 명주는.

106004 #2 지금은 지금도 명지 하지만은 지금은 막 나쁜 것들 저, 창우지 섞어 그넝 햄젠해여. 옛날에는 제라한 멩지라 제라한 멩지로 어. 장가갈 때도 허고, 또 그거 낫당 죽으면 입고, 이제도 돈 한 사람들은 제라한 멩지 사그넝 이넝으로 옷 해 입주게.

106005 @ 그러면 명주 말하면 무명실 있잖아예, 무명실. 무명실은 모르카마씨?

106005 #2 무명실은? 몰라.

106006 @ 그럼 누에치기도 해보션마씨?

106006 #2 난 안해판.

106006 @ 그래도 그 누에치기 하는 거 보기는 했잖아예? 보시지 않아미씨?

106006 #2 응. 들었주.

106006 @ 그럼 누에치기 들은 거 기억나는 거 잇으면 좀 글아줍서.

106006 #2 아, 들은 게 영. 게. 봐져신가 영? 누에 버랭이 닳은 거 굽벙이 닳은 거 질러와 희한한 거.

106006 @ 처음에는 그걸 어디서 구해와마씨?

106006 #2 몰라. 게. 어디사신디게. 어떤서 와신지 거. 저 머영. 저. 뽕낭 잎사귀 툇아냥 그걸로 막 백이민 똥 싸민 그걸로 멩주실 해그넝.

무명

106007 @ 광목 있잖아예, 광목은 무슨 실로 만들어마씨?

106007 #2 멘네로 만들엇지.

106007 @ 아, 멘네,멘네 그 멘네 만드는 거 좀 글아줍서.

106007 #2 그, 맨넹게 밭이 멘네 씨를 갈아. 꽃 피워가민. 타주게.

106007 @ 뭐가 타마씨?

106007 #2 그 꽃 핀 걸. 속에 꽃 피워 속에.

106007 @ 아, 속에?

106007 #2 으. 그 멘네 씨 해그넝, 그 우리가 해났주게. 자식 딸 풀젠하민 딸 풀젠하민 멘네 씨 영 갈아그넝 크민 꽃 피워, 꽃을 열매 열엇당 꽃 피민 소개. 소개라 소개. 소개추룩 꽃 피민 그거 타다그네. 타그네 그. 이 불르는데 가그넝 불랑 태와 그면 북삭하게 소개되어. 그면 딸 팔 때 그걸로 해그네 이불 만들어그넝.

106007 @ 아, 이불만들어마씨? 그게 그 멘네 실 굽아 만드는 과정이지예? 그럼

멘네도 종류 있잖아마씨? 뭐? 광목 생목 토목 닷새 멘네 미녕.

106007 #2 다, 그걸로. 그 종류, 그 종류. 저, 게, 그 미녕은 게 우리가 멘네 태워당 영 줄아 실 만들어 우리냥으로. 우리 그런거 들어 해주게. 멘네 타다그녕 영, 저기가 기계가부네 태워당 하민 영 실로 만들어. 실 만들어그녕 또 영 탁탁 차.

106007 @ 뭘로 차마씨? 그 기계 이름은 기억 안나마씨?

106007 #2 그 꺼라 머시라 한다마는? 미녕 차는거.

106007 @ 아, 미녕 차는거 발, 발로 해가지고.

106007 #2 응. 탁하고 차는 거.

106007 @ 그 미녕은 종류가 뭐뭐 있을까마씨?

106007 #2 종류가 하나라. 미녕. 그냥 미녕. 그 광목 같은 거 무신 거 다 그 멘네로 만들어. 기계로 만들어 멘네로 해가지고.

106008 @ 그럼 미녕농사했던 거 기억나는거 없시마씨?

106008 #2 아니, 이 농사 맨날 여기 씨 뿌려그녕, 크민게 꽃 피워그네 게 씨 뿌려그네 열매열아. 열매 열아그녕 꽃피어가면 멘네가 되어.

106008 @ 그럼 몇월에 시작했마씨?

106008 #2 봄에 같아그녕, 이때 다.

106008 @ 아 이때 다?

106008 #2 응. 이때에.

106009 @ 토목 생목 뭐 이런거 아니마씨? 닷새미녕? 멘네?

106009 #2 아니, 멘네로 만든 거 무시거라.

106009 @ 생명주 마씨?

106009 #2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저 그걸 만들영 게 그걸로 다 사용했주게. 그거. 그 말제에는 기계로 광목 나가나네. 그 .아, 미녕이로구나. 미녕 미녕을 미녕을 손으로 다 그. 멘네 같아부네 꽃 피민 그 타나그네 태워당 영 손으로 짜그네 실 만들어.

106009 #2 실만들어그네 또 영 나 무시거 영 허여그네 마당에서 허영, 글와 클나그네 영 찻주게. 그걸로 다 흙만들었주게. 옛날엔. 그걸로 만들다네. 우리 어머니 시절엔 그걸로 만들당 다음은 우리 커가난 광목해가난 광목나와부난 이제 앓했주게 그거 힘들고 복잡하난. 경허영 그 감자도 심고 그 절가 해영 풀고.

106011 @ 그러면 홍세미녕은 들어보셨마씨?

106011 #2 홍세미녕은 영 저 색노민 홍세미녕이 되어 색놔. 으 곱게. 곱게 이디서 같으믄 이추룩 허듯 영 짧게 이게 미녕아니. 아까 미녕 말을 굳지 못했구나. 미녕. 영허영 차 영, 사람 손으로 발 영 허멍. 꼬리헤그녕. 꼬리도 감아. 손으로 감아. 영 차는데 이런 색을 놓아 예쁘게. 그것 곱아 예쁘게.

106011 @ 음, 예쁘게 한 게 홍세미녕?

106011 #2 응, 홍세미녕.

106011 @ 그건 언제 만들어마씨? 홍세미녕?

106011 #2 아니영 찰 때에 그 꼬리를 호끔 물 들여그네, 이거 흰걸로 요만이 짜. 짜다그네 또 색 한걸로 영 짜민 이만큼 또 색이 돼가주게 색. 색났지 색.

106011 @ 색 놓은 게 흥세미녕이구나예? 그럼 미녕 농사도 여기서 해보션마씨?

106011 #2 응. 딸 팔 때 미녕으로 이녁냥으로 다 해놔주게.

106012 @ 그럼 멘네는 무슨 옷 만들어마씨? 광목도.

106008 #2 멘네로 옛날엔. 멘네한 걸로 그거 무시거? 저 광목말고.

106008 @ 멘네로 무슨 옷 만들어마씨, 옷?

106008 #2 옷은 게 다 그걸로만 해 입엇지게, 옛날에. 몸빠도 입고 저고리도 입고, 적삼도 하고 뭐 옛날엔 그걸로 다 해주게.

106008 @ 그럼 광목은 이걸로 다 만들어진 걸 광목이라 해마씨?

106008 #2 광목은 그러고 이제 났지게. 광목 나가난 맨넬 이디서 미녕 차질않았주게. 미녕을 이녁냥으로 차그네. 광. 아까무시거 광목 말고.

106008 @ 미녕? 멘네?

106008 #2 미녕. 그. 그. 그것 아까 뭐영 뭐였지만은? 광목말고.

모시

106013 @ 지금은 모시실도 만드션마씨?

106013 #2 아니, 모시실은 육지서. 육지서 저 배허고 모시는 육지에서 해여. 그 어느, 어느 곳에서 이 지금도 햄실거라.

106013 @ 그면 여기서는 안해마씨?

106013 #2 그거 하는 곳도 이실거라.

106014 @ 그럼 모시로는 어떤 옷 만들어마씨?

106014 #2 모시는 옛날에 게. 예쁘게 여름에 해양하게. 하르방들 하양하게 입지.

106015 @ 그럼 모시는 여기 신도에서 제배 안했마씨?

106015 # 안해여.

삼

106017 @ 그럼 베 있잖아예, 베 실은 어떤 만드는지 알아마씨?

106017 #2 그게 베 실이나 모시나 저 같은 종류라. 겐디 모시는. 저. 그 막 빨앙 히얏게. 막 두드리멍 빨고 빨고 해서 하양케 해그네 짠 것이 모시고 베는 그렇게 빨지 않은 것이 베주게. 한 종류.

106017 @ 한 종류인데 막 짠 것은 모시고.

106017 #2 응. 모시는 히얏한 거 곱앙 모시고. 깨끗하게 한거. 베는 누리로 한걸로 저 헛 것이 베이고.

106017 @ 그럼 베로는 뭐 어떤 옷 만들언마씨?

106017 #2 여름에게 시원허게 여름에 시원허게.

106017 @ 그럼 베도 그 여기서는 제배 안했겠다예?

106017 #2 아니아니야, 육지 어디 지금도 하는 곳이 있어.

106018 @ 삼 제배 하선마씨?

도구

106019 @ 어르신 그럼 옷 만들 때 쓰는 기계나 씨아라고 들어보셨마씨? 씨아?

106019 #2 씨아가 뭐시라?

106020 @ 그럼 물레는 들어보셨지예? 물레. 물레 이렇게 동그략게 해가지고.

106020 #2 왜? 먹는 왜?

106020 @ 아뇨, 물레 물레.

106020 #2 아, 세 치는 물레? 옛날엔 잇어났주게. 지금도 있고.

106020 @ 아, 지금도 있어마씨? 그러면 실 뽑을 때 베틀 잇지에 베틀. 베틀 안 쓰셨지마씨? 실 아까 차는 기계이름 기억 안난다했지예. 실뽑는 기계.

106020 #2 실 뽑는 건 게. 여기서 씨하고 저 멘네하고 영, 따로 해놔 우리가 하다가그넝 씨 따로 멘네 따로 영 해놔 경해여그넝 실 다시 해주게.

바느질

106022 @ 그 어르신 바느질 할 때 쓰는 도구는 뭐뭐 잇언마씨? 지금이랑 옛날이랑 많이 안다를 거 닐은디.

106022 #2 이디영 손톱 영 하는 거. 손톱에 자꾸 바농질 하난 아파.

106022 @ 그게 이름이 뭐주마씨? 골메?

106022 #2 우린 그런 거 낄지 않아서.

106023 @ 바느질 방법은 어떻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애마씨?

106023 #2 게. 게.

옷 종류

106024 @ 옛날에 지금이랑 옛날이랑 남자들 입는 옷 있잖아예. 달라진거 얘기해줍서.

106024 #2 옛날엔 게. 바지저고리 입엇주게. 이제는 스포 입주만은.

106024 @ 그 다음 또 달라진 거 어신가마씨? 남자옷.

106024 #2 뭐 중의 적삼 같은 거.

106024 @ 중의 적삼. 중의 적삼은 뭐짱?

106024 #2 영 게 갈중의 같이 하고게 우에 적삼. 크게 이만이 허고 중의라고 영 덤석하게 허고 허리띠 매고. 중의 적삼

106025 @ 그럼 여자 옷은 어떤마씨?

106025 #2 여자옷은 이제 한복허고 개량옷입주. 그게 그거라. 옛날에 영 길게 해그넝 허리로 영 했주만은 이제라는 이래 영 작게 입주게. 지금 같은 식이라 치마는.

106026 @ 옛날에는 애들 옷 뭐 입헌마씨?

106026 #2 옛날엔 막 바지저고리 입혔주게. 일본강 우리나라랑 싸와난 후에는 일본식으로 스봉 뭐 그런 거 입었주. 몸빠도 일본식. 이런 것도 일본식이라. 이 스봉도 일본식이고. 저 한국식은 바지 순 바지저구리. 저 그 중의 적삼 같은 거 그거 여름에 입는 거 글양 중의 적삼이라하주게.

106026 @ 그럼 겨울에 입는 것 글양 뭐라해마씨?

106026 #2 바지 저고리. 여름엔 중의 적삼.

106027 @ 어르신 옷은 안만들어봤지예?

106027 #2 이제 옷은 만들어신디 예전 옷은 안만들어봐서.

106027 @ 그럼 이제 옷이라도 옷 만드는 과정 알아줍서.

106027 #2 어떻 처음에는 영 재단해놔그녕 가옴행 재단해놔 다음은 만들주게.

106027 @ 자를 땀 가위로 잘란마씨?

106027 #2 자를 땀 가위로 했주게.

106029 @ 옛날에는 단추 종류 엇언마씨?

106029 #2 옛날엔 단추 곱아 그거 무시거라 손으로 짠 거 이제도 멋지게 하젠 하든 그런 거 짜. 들매기 들매기.

106029 @ 들매기 거 뭐팡?

106029 #2 영 가옴으로 해서 영 만들어 이제도 멋진 옷은 그런 거 해여. 들매기 만들영.

재단과 염색

106030 @ 그든 어르신 옷감 손질은 해보신 적 잇어마씨?

106030 #2 으 다래미도 다려보고 했주게.

106030 @ 다리미로. 옛날엔 다리미 없지 않안마씨? 뭘로 옷 다련마씨?

106030 #2 윤디영 혼 거. 쪽작한 거. 윤디로 행 다렸주게.

106030 @ 윤디로 다릴 때 그 좀 자세하게 설명해줍서.

106030 #2 윤디로 영 화로불에 찢러. 화리에 찢렁 뜨뜻하게 해놔 영 옷 다렸주게.

106030 @ 윤디는 뭘로 만들언마씨? 팔안마씨?

106030 #2 저 쇠로 만들었주게. 쇠로.

106031 @ 그든 옛날에는 옷 어떻 염색헨마씨?

106031 #2 감게. 저 감낭에. 옛날은 이제는 곡식이나 과일이라도 다 개주해그녕 좋게 만들지 않아서. 옛날은 토종감 막 작은거라 옛날에. 작은 거에다가 열면 열면 따다가 막 빵아그녕 물을 해서 옷 낡 막 부벼그녕 널어그녕 자꾸 널어야 색 뉘. 노랗게 이추룩 예쁘게. 막 일허멍 입고 하든 나중에 이렇게 돼주게. 처음에는 예쁘디 일하다 보든 색 변하주게.

106031 @ 다른 색깔은 엇언마씨? 감만 쓰션마씨 예전에?

106031 #2 감박에 안졌주게. 그냥 물레 해그넝. 막 옛날엔 물레 사다그넝 곱게
행 한복들 입었주만은. 이걸 제주도에서만 감 해여. 제주도에서만.

신발

106032 @ 옛날에 신발 종류는 뭐뭐 잇언마씨?

106032 #2 옛날엔 초신 신었지만은 우리 시대엔 고무신 신었지. 우리 어머니 시
대엔 초신 신었고 우리 시대엔 고무신 신었고 내중에는 운동화 신었주게.

106033 @ 가죽신은 안 신어보셨마씨?

106033 #2 옛날에 그 시집 갈 때 어떤 사람들은 가죽 고무신 같은 거 신었주게.

106033 @ 그뎨 가죽신 만드는 과정은 잘 모르겨마씨?

106033 #2 그거는 신 만드는 데서 만들어 냈주게.

106034 @ 나막신은 혹시 만드는 거 알아마씨?

106034 #2 그거는 저 나무로 해서. 나무로 해서 이 눈 올 때 비 올 때 젖지 말
라고 초신 신을 때. 영 높게 했주게. 저 이제 같으면 구두추룩. 아니 장화추룩 만들
었지 영 길게는 안하고 요만큼만 나무영 파서 나무 판 게 받들어가게끔 파그넝 신
었주게. 비 올 때. 발 젖지 말라고. 녹남봉에 녹낭으로 만들어서. 녹낭을 키웠어. 녹
낭에 나무해다가 만들어서.

106035 @ 초신 만드는 건 어떻 만들언마씨?

106035 #2 초신은 제각기 만들었주게. 그거 어렵지 않아. 만드는 거 어떻 게. 그
저 초신 알아지지? 봤지? 그거 게 짚으로. 영 코글리게 행 만들었주게. 이제도 만드
는 사람 잇어.

106036 @ 초신은 종류가 엇언마씨?

106036 #2 짚으로 했주마는. 질긴 거랑 뭐 잇어게.

모자 등

106037 @ 옛날에는 모자 종류가 뭐 잇언마씨?

106037 #2 거명헌 거 갓이영 아주 높은 사람이나 갓 썼지. 돈 하영 잇는 사람이
나. 옛날 하르방들 쓴 거 봐났주.

106037 @ 젊은 사람들은 다른 거 모자 쓰는 거 엇어마씨? 패랭이 같은 거.

106037 #2 패랭이도 손으로 짚지. 보리방 해그네 꼭대기 파그네 손으로 영 이제
도 패랭이 파는 거 손으로 기계로 했주만은 우리 어린 때 손으로 영 영 짜그넝 동
그렇게 만들어서.

106037 @ 그럼 패랭이 말앙 기억 나는 거 엇어마씨?

106038 @ 여름에 주로 쓰는 모자는 뭐 엇언마씨?

106038 #2 남자들 나까오리 일 할 때 말고 놀 때 그거 써나신가.

106039 @ 그럼 겨울에 쓰는 모자는 따로 엇어신가마씨?

106039 #2 털모자 같은 거.

106040 @ 양태 걷기는 들어보셨마씨?

106040 # 그건 몰라.

106044 @ 도롱이 알아마씨?

106044 #2 도롱이가 뭐시라?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밥 옛날에 무슨밥 무슨밥 잇언마씨?

107001 #2 무신 밥잇어서. 보리밥에 좁쌀 낱 먹었주.

107001 @ 그니깐 곤밥 보리밥 팔밥 같은 거마씨.

107001 #2 여기 흉년 들 때는 물혹 먹어서. 밧이 나는 거 있어. 밧이 영 파민 영 마늘 같이 요만큼 한 것들. 요만큼 한 것들 파당 숲아그녕 먹언. 흉년 들 때.

107008 @ 피밥은 알아져마씨?

107008 #2 몰라 이디는 피밥 없어.

107009 @ 감저밥은 어떻하는거마씨?

107009 #2 감저밥은 옛날엔 막 우린 경 안해신디 어신 사람들은 고구마를 막 썰어놔 경행 좁쌀 놔그녕 밥 해먹었주게. 범벅도 먹고.

범벅과 수제비

107034 @ 범벅은 종류가 뭐 잇언마씨?

107034 #2 범벅은 게 저 지실낱 숲다그녕 모멸가루 놔그녕 막 영 젓어그녕 먹었주게. 기냥 범벅.

107035 @ 수제비는 어떤 만들언마씨?

107035 #2 수제비는게 보리쌀 곶아그녕 즈배기로행 먹주게. 즈배기 수제비 곶아 즈배기.

107036 @ 칼국수도 해 먹언마씨?

107036 #2 칼국수는 모멸가루로행 칼국수해여. 영 밀어그녕 칼로 썰어그녕 그것이 칼국수.

젓갈

107048 @ 자리젓, 멜젓, 젓갈 종류는 뭐 이수광?

107048 #2 이디 자리젓만 행 먹언.

107049 @ 자리젓은 어떻 만들언마씨?

107049 #2 자리 사당게 소금 영 놔그녕 호끔 대가리 뻥사야허여. 경 안하믄 냄 새나. 호끔 두드려그녕 단지에 담아 놔두면게 젓이 되는거주게. 경행 여름에도 먹고

봄에도 먹고.

107050 @ 뽕젓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50 # 건 뽕지 얇안 버무리기만행 단지에 뽕당 먹주게.

107051 @ 아감젓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51 # 이딘 안허여 그런 거.

107052 @ 게젓은 만들언마씨?

107052 # 이디는 갱이젓도 안 먹언. 갱이 약 행 먹으면. 다리 아픈 사람들 숲아 그넝 죽도 쭈영 먹고.

장아찌와 회

107055 @ 장아찌 종류는 뭐뭐 잇어마씨?

107055 #2 마늘도 장아찌하고 장아찌 종류가 게.

107055@ 기억나는 거 다 곱아줍서. 마늘이랑 또.

107056 @ 마늘장아찌 만드는 법 곱아줍서.

107056 #2 그거 이제도 해여. 마농 짤라그넝 장아찌 해주게. 저 장물 만들영 해주게. 장물 그냥 담으면 시어부러 장물은 피양 식형 담으면 돼주게.

107057 @ 회 종류는 뭐뭐 잇언마씨?

107057 #2 자리회, 방어회. 그것 곱양 뭐라고 했지. 여기서는 자리회. 모슬포에서 자리 많이 나주게.회는 다 해 먹어서. 싱싱만허민. 방어 뭐 저 것 곱양 무신거라 해신디 잇어부렀다. 광어 같은 것도 먹어났주게. 광어 같은 거는 첫째 좋은 거.

107058 @ 옛날에는 지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해먹는 반찬이 따로 있지않아예?

107058 #2 옛날은 자리젓 잘해났주게. 반찬어신 때.

107058 @ 그럼 봄에 주로 해 먹는 건 뭐 잇언마씨?

107058 #2 게나저나 옛날은 자리가 최고. 무수 썰영 말령 장아찌 만들영 먹었주게.

107058 @ 그믐 뭐 물회는 보통 여름에 먹잖아예?

107058 #2 물회는 자리회가 제일. 무신 이 저 오징어말고 낚지 낚지말고 저 문어보다 비싸고 더 맛있는 거. 여름에 한 때 나는 거 한치. 한치 물회 먹었주게.

107058 @ 고사리무침은 언제 해 드션마씨?

107058 #2 봄에. 봄에 고사리 나주게. 이 고사리 처음 날거라 겨울들었당 봄날 딱사가믄.

107058 @ 가을에는 뭐 이렇게 먹는 거 잇어마씨?

107058 @#2 이즈음에 방어 알지? 방어 모슬포에서 방어 많이 나. 방어 축제도 할 거라 십일월 초에. 방어 많이 나믄 모슬포에서 어 자리 많이 나지. 우리나라에서 모슬포에서 제일 많이 잡힐 거라. 마라도 가파도에 그 근처에 자리.

107058 @ 그럼 겨울에는 옛날엔 뭐 주로 해 드션마씨?

107058 #2 자리젓 해 낫당 먹고 뭐 잇어게. 자리젓으로 살았주게.

장 담그기

107059 @ 장은 보통 언제 담그션마씨 예전에.

107059 #2 이 겨울 들어가야 이 그 변하게 못하게 해야하난 십일월달 넘어가든 메주를 삶아. 이제 조금 이시든 이 콩 할 때가 되서 지금. 콩 할 때가 되난 그걸 장 만해영 십일월 그물어가든 그걸 메줄 삶아 경해영 이걸 키와그넝 이제 겨울 지나그넝 이제 음력으로 일월 나기 전에 십이월달에 담가. 소금행 담갔당 늦은 봄 나든 장물을 따로 만들영 하주게.

107060 @ 그럼 장 종류는 뭐 잇언마씨?

107060 #2 콩으로 뿐.

107060 @ 콩으로 무슨 장 만들언마씨?

107060 #2 고추장 된장 만들었주게.

107061 @ 그든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드는데 다르잖아예?

107061 #2 게 고추장 만들젠 하면 게 고추가루 넣고 고추장 만들고. 된장 넣고 섞영. 경만 허지 된장은 이 메주 콩 삶양 메주 만들영 물러왕. 물러왕 소금물에 영 담장 건진 것이 된장. 물은 간장이주게.

107062 @ 메주는 만드는데 방법은 엇어마씨?

107062 #2 아니게 콩 해다그넝 솔에다 삶양 익형 막 뻘사 뻘사그넝 뜨뜻하게 행 곰생이 피게 해영 경해사 발효되는거주게. 발효되게 발효되어낱 이제 옆에서 소금물 해영 소금물 해냥 그거 메주로 들이쳐부러. 들이쳐 늦은 봄나가민 영 메주를 건져. 건지든 된장 그 물은 간장. 경해영게 따로 행 먹는 거주게. 콩 발효시켜사 발효.

107063 @ 장 담글 때 뭐 욱하지 말앙 그런 거 잇어마씨?

107063 #2 그런 건 아난디 영장밭에 가면 안되주게. 게고 바닷물이 들 때 쓸 때 허지말앙 들 때 하라고 하주게. 게고 날 봐 베염날 그런 날에 하면 안된다고 개날 염소날 토끼날 그런 좋은 짐승날 담그주게. 그런 거 봐. 지금도. 이녁냥으로 달력 뵙 하주게.

떡류

107064 @ 떡 종류가 뭐뭐 잇언마씨?

107064 #2 게 침떡 새미떡 옛날에 뭐 솔변 절변 이렇게 있었주게.

107065 @ 침떡은 뭘로 만들고 어뎡 만들어마씨?

107065 #2 쓸가루로 해그넝 시리에 영 동그란 한 시리에 떡 치는 거 시리에 그 것 들에 그루를 영영 놔그넝 삶아그넝 이제 비와냥 썰면 침떡이 되주게. 팻을 영 섞어야 붙으주 았주게. 영 처음에 쓸가루부터 두껍게 영 낱 팻 놓양 하주게.

107066 @ 그럼 송편은 어뎡 만들어마씨?

107066 #2 송편은 ㄱ루 해그넝 막 손으로 쩡. 그 속에 뭐 담앙 만들면 되주게.
 107066 @ 속에 담는 거 뭐 잇어마씨?
 107066 #2 그 때는 팻 담았주만은 요샌 뭐 설탕 담아야 맛 좋아. 꽤.
 107067 @ 어르신 빙떡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67 #2 빙떡은 게 그 모멸 쓸 곶앙 혼 거 빙떡이주게. 메밀 메밀 갈아그넝 같은 거 영 저성게 저서그넝 영 그 ㄱ루 저신걸로 영 동그랴게 만들어. 무 데우쳐 그넝 과 같은 거 영 낡 물아. 물아그넝 만들면 그게 빙떡이주게.
 107067 @ 그건 언제먹어마씨?
 107067 #2 제사 때 같은 때. 우리 마을은 잔치 할 때 막 잘해놔서. 맛 좋아. 제사 할 때 잔치 할 때 막 해나신디 지금은 복잡해부난 떡집에서 사당해여. 우리 잔치 할 때는 했지. 식당에서 하난. 옛날엔 집에서 잔치 할 때는 집에서 해서.
 107068 @ 상웨떡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68 #2 상웨떡은 게 요새 송편 곶앙 상웨떡이라고 하주게.
 107069 @ 제삿상에 올리는 떡은 뭐 잇어마씨?
 107069 #2 침떡이랑 송편 절변 그런 거. 그런 거 올려. 그건 제라한 떡이라.
 107072 @ 인절미는 어떻 만들어마씨?
 107072 #2 그건 지금사 만드는거주게. 옛날에 하여튼 절변 술변해서.
 107073 @ 절변은 뭘로 만들어마씨?
 107073 #2 쓸 ㄱ루로. 본만 이렇게 뺏주게. 옛날엔 권당집에 그런 거 다 잇어서. 영 해그넝 동그랴게 만드는 거 반달 같이 만드는 거 기구가 잇어서.
 107073 @ 술변이랑 절변이랑 뭐가 달라마씨?
 107073 #2 본이 틀리주게. 본만 틀려.
 107075 @ 웃기떡은 알아마씨?
 107075 #2 동그랴게 지정 만드는게 웃기떡 닮은디.
 107075 @ 그럼 기름떡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75 #2지름떡도 이제야 해여. 그건 찹쌀 ㄱ루로 만드는거주게.
 107076 @ 고사 지낼 때나 당에 가지고 갈 때 어떤 떡 가져간마씨?
 107076 #2 고시할 때는 동그락한 떡 해여. 그냥 쓸 ㄱ루로해도 본 하지 말앙 손으로 동그락하게 만들어.
 107078 @ 떡은 언제 해 드션마씨?
 107078 #2 제사 때 게. 멩질 할 때니.
 107078 @ 제가 말한 거 말앙 다른 떡 잇어마씨?
 107078 #2 지금이야 여러가지 주만은. 지금이야 찹살로 행 시리떡도 만들고 맛 좋게 하주만은 옛날엔 그저 쓸 ㄱ루만 행 만들어서.

소와 곶물

107079 @ 떡 안에 넣는 거 곶아줍서.

107079 #2 꽤 넣은 게 제일 맛 좋아. 옛날 사람들은 팻 보통 놔서.

107081 @ 떡 만들 때는 날 안봐마씨?

107081 #2 아니보주게. 거사 제삿날 하는 건디.

107081 @ 떡에 얽힌 속담이나 기억나는 거 잇어마씨?

107081 #2 그런 거 엇어.

별식

107082 @ 순대 옛날에 만들었던 방법 곱아줍서

107082 #2 이제랑 같주게. 비닐에 그 옛날엔 밀가루였주만은 요새는 모밀가루로 하여 밀가루해도 좋고. 피영 섞어그넝 순대에도 쫄 호끔 넣고 양념 해 낱 담으면 게 순대가 돼주게. 이제도 친목해그넝 돛 잡아. 이제도 잡아 양력 설 때 되가문 우리 신도에서도 돛 잡아 먹고 순대도 우리냥으로 만들주게.

107083 @ 두부는 어떻 만들어마씨?

107083 #2 두부도 이제 공장에서 만들었주만은 옛날엔 콩 삶양 게 영 곱아. 곱 아그넝 그 물 곱은 물 해그넝 또 삶양 가운데로 담양 놔두면 두부 되주게.

107084 @ 모밀묵은 어떤 만들어마씨?

107084 #2 모밀로게. 모밀가루 해그넝 영 저시믄 익형 익형 놔두면 튼튼해여.

107085 @ 그럼 청묵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85 #2 청묵은 쫄가루 섞어그넝 막 짜그네 삶아 삶양 놔두믄 그거는 되여.

107085 @ 모밀묵이랑 청묵이랑 뭐가 달라마씨?

107085 #2 청묵은 허영하고 호끔 물렁물렁해여.

107085 @ 청묵도 모밀로 만들지 않아마씨?

107085 #2 으 그건 모밀쫄로 생채 만드는거주게.

107086 @ 미숫가루는 어떻 만들어마씨?

107086 #2 미숫가루는 게 보리해여그넝 볶양 곤 것이 미숫가루지

107086 @ 요즘은 콩으로 안해마씨?

107086 #2 콩이영 섞어 지금은 지금은 콩 찹쌀 보리 세 가지 섞영 만들주게. 옛 날은 보리로만 해나서. 지금 것이 맛있주게.

107087 @ 지짐이는 종류가 뭐 잇어마씨?

107087 #2 지짐이 무슨 지짐이게. 여러가지주게. 고구마로 지지미도 허고 동태 로도 허고 호박으로도 허고.

107088 @ 오매기술도 담그션마씨?

107088 #2 오매기술은 쫄쫄로 행 만들주게. 쫄쫄로 행 가루 곱아뿍 썬그넝 동그 락하게 만들어그넝 작 익지 않아. 구멍을 뚫어 가운데 고망 뚫영 만들주게. 쫄쫄로 침떡 만들젠허면 힘들어. 왜냐면 그것이 잘 익지 않아. 오매기 만들영 불에 낱 익형 그것 들에 누룩 넣으면 그게 오매기 술이주게 누룩 넣어.

107089 @ 쉼다리는 뭐짱?

107089 #2 쉼다리는 옛날에 냉장고 어시난 밥 먹당 쉬면 그 위에 누룩 넣면 쉼다리 되고 지금은 쉬는 밥 없주게. 밥 하면 우리도 일할 때 시원하게 먹젠 밥 해그 냉 저 누룩 낱 누룩 건져부러 그것이 쉼다리라. 누룩 넣면 막걸리 호뎀 닻아.

107090 @ 누룩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90 #2 누룩은 보리 곶앙 영 동그랗게 심방떡 같이 만들영 메주 하듯 만들주게.

107091 @ 옛은 어떻 만들어마씨?

107091 #2 옛은게 좁쌀로 밥 허영 곶 있잖아. 곶이라는 건 보리 물경 나두면 보리가 나 보리 영 싹도 나가면 물려와. 물령 곶아났당 좁쌀로 밥 해영 곶 넣으면 싹이 진 빠져. 빠지른 채로 걸어서 물을 딸리면 옛이 돼.

기타

107092 @ 신도만 먹는 음식 옛어마씨?

107092 #2 주로 이디서는 빙떡 많이 허여.

8. 주생활

구조

108001 @ 집은 어떻 하당 세 번 지언마씨?

108001 #2 첨에 곧 살 때 집이 하도 구져부난 다시 짓엇주게. 막 구져부난. 방 또똥하게 만들영 새로 짓엇주게. 나가 짓엇주게.

108001 @ 옛날 할아버지랑 같이 들잇어 짓인거마씨?

108001 #2 응, 요디 처음에. 옛날 집은 영 들어강 영 불 붙이젠 하든 구전게. 게 난 조금 낮게 행 살젠. 여기 집 짓영 이제 불이라고 해서 밥 해 가민 방이 또똥하게. 경해영 지선 조금 살다 이제 또 쓰레뜨 집을 짓엇주게. 쓰레뜨로 쓰레뜨로 짓어가난 쓰레뜨로 저거 짓엇다넝 저거 짓영 점뽕하고 허다그넝 이젠 이 집 짓엇주게 조립식. 거난 세 번 아니. 이거 조립식 이거 신식으로 짓엇주게. 호뎀 시원하게 살젠.

108001 @ 두번째 집은 언제 점뽕 하션마씨? 두 번째 집은 언제 지으션마씨?

108001 #2 몇 년도 알아지크냐. 우리 결혼 허여그넝 초가집 짓영 살다그넝 헌 십년 더 살아신가. 경허난 또 쓰레뜨 집으로 바뀐.

108002 @ 그러면 집 종류는 뭐뭐 이시까마씨? 옛날에 집 종류.

108002 #2 초가집하고 뭐 쓰레집 밖에 더 있었어.

108002 @ 기와집은?

108002 #2 기와집은 이따가 하나씩.

108002 @ 아 이따가 하나씩? 좀 잘 사는 집인가마씨?

108002 #2 응. 저 경허당 상점 허다, 상점 이십년 허당 늙어가고 시골에 장사가 안돼서 이제 경해가난 이제 이 집 지서 난에 이제 저데 민박햐주게.

108002 @ 아, 기팡? 아, 어디 민박햐맨마씨?

108002 #2 집 밖으레.

108002 @ 아, 나중에 여기 올 일 이시면 어르신한테 부탁햐야것다이, 민박 어르신한테 부탁햐야하크라마씨.

108002 #2 아아이, 저 일년씩 한달씩 살아.

108002 @ 한달씩 마씨? 뭐하는 사람인데 한달씩 살아마씨?

108002 #2 일년 썩 자주 바꾸니까. 방 청소도 하기 실프고.

108002 @ 아, 그게 편햐겠다예.

108002 #2 아니, 오면 이디 민박은 썩. 하루 사는 건. 만원만주면 하루 살아.

108002 @ 만원밖에 안햐마씨? 돈 더 받아야지.

108002 #2 촌에 나가 소개 햐줄게.

108003 @ 옛날에 좀 크게 지으면 집채가 있잖아예, 집채 종류가 있잖아예 뭐 안거리 바커리 그건 종류가 뭐뵤 이시마씨?

108003 #2 게매 게 옛날에는 안거리 박거리, 옛날에는 햐지.

108003 @ 또 어싱마씨? 안거리 박거리.

108003 #2 창고 뵤.

108003 @ 모커리는 안들어보션마씨?

108003 #2 그건 아주 옛날에 모커리라고, 모커리. 들어오는데 이문간 햐는 데가 모커리지.

108003 @ 그러니까 그거 설명햐주세요. 나는 솔직히 안거리 모커리 박거리는 뵤지 아는데 안거리가 뵤지 박거리가 뵤지 모르거든마씨?

108003 #2 안거리는 큰집이고, 안거리는 이렇게 큰 집 빠지면 박거리는 호뵤 작게 허구, 모커리한거는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이문간추록 햐는 디가 모커리라구.

108004 @ 삼간 집도 알아마씨? 어르신?

108004 #2 게.

108004 @ 산간 집은 뵤팡?

108004 #2 작은 것 곶양 삼간집이라 햐지.

108004 @ 작은거? 그럼 삼간집은 어떤 만들어마씨? 그 과정. 좀 약간 자세햐게.

108004 #2 아니, 구들허고 마리햐고 부엌뵤 삼각집.

108004 @ 다시 뵤랑 뵤?

108004 #2 구들햐고 마리햐고 부엌뵤. 삼간집. 서간집은 이제 구들 두 개 뵤. 마래. 경햐주게 서간집. 큰 건 서간집. 삼간집은 세 개.

108004 @ 세 개 밖에 어시난 삼간집? 그럼 삼간집은 어떻 만들어마씨?

108004 #2 게, 구들 하나 햐고 마리햐고 부엌 뵤.

108004 @ 그니까 그거만 만들면 되는거?

108004 #2 응. 경허면 그게 삼간집.
 108004 @ 방은 엇우광? 아, 구들하나.
 108004 #2 응응. 서간집은 구들 두 개 마루, 부엌, 안방. 안방은 집마다 다르지.
 108005 @ 집 마다 주춧돌이나 막 그런거 있잖아예. 기와나 집 대는 거 대. 그런 거 서까래같은 거 있잖아예. 서까래나 뭐 그런거. 서까래는 안들어보셨마씨?
 108005 #2 서까래는 이미 영 뒷 골양 서까래라히 서리. 서리.
 108007 @ 다음에 방 있잖아예. 그 집에 있으면 큰방 작은 방 뒷 시렁 벽장. 그런 거 있잖아예. 방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예? 집이 이시든.
 108007 #2 무슨. 서까리. 아까 곶아봐.
 108007 @ 방방. 와나 신자 임방은 안들어 보셨지예? 임방.
 108007 #2 그 옛날 집은 크게 짓고 잘 사는 집은 이 마루에 문만 하지 았양. 죽은 문 해서 그디 영 았은는다. 죽은 문.
 108008 @ 그 마루 있잖아예? 그 마루는 아까 마리라고 헨마씨?
 108008 #2 마루, 마루? 마리.
 108008 @ 그럼 마리는 집마다 다 이신가마씨?
 108008 #2 으. 마루는 집마다 잇주게.
 108008 @ 그럼 마루에는 보통 뒷하지마씨? 마루에서는?
 108008 #2 영 았양 우리추록 얘기하주게. 저 가운데 이신 것이 마루주게.
 108009 @ 그럼 고방있잖아예?
 108009 #2 안방. 안방.
 108009 @ 아, 안방이 고방이광?
 108009 #2 안방은 이제 곡식 놓고 게, 곡식 놓고 하는 디 안방.
 108009 @ 안방이 사람 사는 데 아니광?
 108009 #2 아니.
 108009 @ 안방은 창고 그러면?
 108009 #2 아니 옛날엔 안방에 하주게 쓸 놓고 곡식 놓는 디가.
 108010 @ 아, 그게 안방. 쓸놓고 곡식 놓고? 그럼 부엌있잖아예? 부엌에는 뒷뒷 옛날에 있던마씨?
 108010 #2 무시거 잇어게. 그릇. 놓고 게 밥 그디서 밥 허고 게 물항도 넣고.
 108010 @ 아, 물항, 물항은 뒷짱?
 108010 #2 영 항에다가 옛날엔 수도 잇이난 영 영 항에다가 어디에 물통에다 물 질허다 그래 비와부면 물을 항상 거기 셔사 밥하고 허주게. 물을 질어다 뉼. 물 항 잇어야주게.
 108010 @ 찻방은 안들어보셨마씨 찻방?
 108010 #2 찻방은? 이런디서 그런 말 안했는디 찻방.
 108011 @ 그럼, 어르신 문설주는 알아마씨? 문설주.
 108011 #2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이디서 안씨.

108012 @ 그럼 방마다 창문이 있잖아여? 문이. 문이 이신디 어.그 창문 뭐 특이. 방에 보통 몇 개 창문 만들고 하션마씨?

108012 #2 아니, 옛날엔 이런디 영 창문 하나 뿐이주게. 창문. 방마다 창문영 허영 저래. 마루도.

108013 @ 호령창은 알아마씨? 어르신

108013 #2 모르컨게.

108013 @ 호령창은 안들어보션마씨?

108014 @ 그럼 굴묵?

108014 #2 굴묵은 저 옛날에게, 방 또시게 하는디 영 영. 이런디 영. 헤그넝 들어가그넝 영. 이 불 밑으로 영 무시겨 문도 지금 불살랐주게 방 또시게.

108014 @ 뭘로 불살란마씨?

108014 #2 고시락으로 고시락으로.

108014 @ 고시락으로. 그러니까 나뭇가지 이런 거 모아.

108014 #2 나뭇가지 이디 없었어. 나뭇가지는 불 때야지.

108014 @ 아, 그럼 뭘로헨마씨?

108014 #2 고시락이라고 부리 장만 해난 .그. 고시락. 부리장만 해난.

108014 @ 아, 그 남은 찌꺼기마씨, 껍데기?

108014 #2 그 나무가 어디서. 나무는 밥해야지.

108014 @ 나무로는 밥하고?

108014 #2 응. 그런 걸로 또 경 아니면 쇠똥으로. 쇠똥 물려와그넝. 그렇게 허지. 그것이 더 오래가고 또사.

108014 @ 그래도 막 추우면 나무로는 안해마씨? 나무는 그냥 밥 지을 때만?

108014 #2 밥 지을 것도 잊어. 나무는.

108014 @ 아, 여기는 나무는 그렇게 안 많아 마씨?

108014 #2 안 많아. 나무는 그 술서 끓어왔지. 나무로 떨어진 거. 그 나라에서도 나무 붙이지 못하게 해서. 나무 키우젠 허면 그 술 썬이 떨어지지 바람 불어나면. 그러면 그거 막 끓어다가 밥허고 굴묵 떼는 건 쇠똥 물리고 보리 뽕시락으로 해그넝.)

108016 @ 어르신, 물팡 있잖아예. 물팡. 물팡에 대해 좀 글읍써.

108016 #2 물팡은 이제 수도 어시난 게, 이 마을은 물이 막 먼디 가야돼여. 어떤 마을은 물 나는 동네도 있어. 이 논 깎고 바닷가에는 물 나고 여기 서리랜 흔데는 막 큰물 나.

108016 @ 아, 여기 위에 마씨?

108016 #2 응. 요, 요 동네. 모슬포 가기 전에 서린이라는 디 완전 물이 칼칼칼 칼 솟아. 경허민 저 썰렁 허영 앓지 못해 여 막 실려와. 광광광광. 이젠 물 안놔 그디 수도 뽑아부난.

108016 @ 물팡이 뭐 그런.

108016 #2 경허난 우리 마을은 저래 막 올라가야 이 사람 손으로 물을 파서 영
옴틀락하게 팡 그 물 골라야 우리가 강 질어와 북으로 지어당 허벅에 게면 허벅 놓
는 디가 물팡이라.

108016 @ 그러면 이 동네 신도에서 옛날에 뭐 물팡은 요 위에 하나 잇언마씨?

108016 #2 집집마다 션. 이거 허벅 놓는 디 물팡. 집집마다 물팡 있고 허벅도
있어야지 물질허젠하믄.

108016 @ 그럼 물 뭘로 물 떠 마션마씨?

108016 #2 허벅이. 허벅 몰라?

108016 @ 허벅 알주마씨. 이만한 거.

108016 #2 응. 그걸로. 글로 영 물통 이제 등가그넝 들러당 허주게.

108017 @ 골목도 알아마씨?

108017 #2 골목은 이제 영영 들어가는 디 곶양 골목이라 허주게.

108018 @ 문간채는 들어보션마씨?

108018 #2 문간채는 이뭇가지를 이무간.

108018 @ 이무간?

108018 #2 옛날에는 크게 낭으로 해그넝. 저 문 더끄고 열고 것 곶양.

108018 @ 아. 것 곶양. 그럼 가리터도 들어보션마씨? 가리터?

108019 @ 가리 터 들어보션마씨?

108019 # 가리터는 안들어봐신게.

108020 @ 그 옛날에 돼지 키우셨을 때 돼지 우리 있었잖아예. 돼지 우리는 어
뎡 만들고 뭐뎡 어떻 만들어마씨?

108020 #2 통지주게 것 곶양. 통제영 해여.

108020 @ 통제?

108020 #2 응. 통지.

108020 @ 통지는 어떻 만들어마씨?

108020 #2 통지는 집집마다 영 율타리 옆이. 여기 구석에 여기 호뎡 파그넝 돼
지 집을 영 만들양. 그 돼지를 거기 질르고 사람 똥 싸고. 거기. 똥 허여그넝. 또 내
여그네. 밭에 가 뿌렸지 걸게. 비료 어실 때나 비료 어실때나. 경허영 보리 같고. 이
제주도에서 이 마을이 이등이라. 제주도에서 일 강정. 강정이 제일 땅 좋아. 다음은
이 이 토양이.

108020 @ 아, 그 토양이?

108020 #2 응. 땅이. 제주도에서 일 강정, 이 돈이라고. 땅이 그렇게 좋은디.

108020 @ 옛날부터 그런 말 이시마씨?

108020 #2 응. 옛날에.

108020 @ 일 강정.

108020 #2 이 돈이. 이 지금은 뭐 저 동쪽들엿 막 박해여그넝 조 코고리도 이만
씩 하고 이 마을은 이만씩 커. 땅이 좋아부난.

108021 @ 옛날에 변소는 어떻 만들었마씨? 변소. 어르신. 초집할 때. 통제? 통시?

108021 #2 통지.

108021 @ 통지?

108021 #2 내중엔 또 나라에서 화장실 만들랭 헨. 바깥에 만들엇주게. 바깥에 만들다가 지금은 다 안에다.

108021 @ 옛날엔 나라에서 밖에 만들라고했마씨?

108021 #2 게. 막 막 만들랭. 우리 처음 만들어서.

108021 @ 아 기짱? 초집 지어실 땐?

108021 #2 아니, 아니야.

108021 @ 아, 그땐 초집 지으실 때는 통시, 통지만 있었마씨?

108021 #2 통시만 있었주게.

108021 @ 그럼 그때 어르신 돼지 키웠겠다예?

108021 #2 게. 새끼 내고. 그땐 돼지 새끼 나와야 돈 버는거.

108021 @ 아, 그걸 팔아?

108021 #2 새끼 팔아. 경행 아이들 학비하고.

108021 @ 그걸 어디다 팔아마씨?

108021 #2 장에가.

108021 @ 여기는 가까운 장은 어디 잇었마씨?

108021 #2 고산. 경허고 도새기 장사들이 잇어. 도새기 새끼내왕 커그넝 많은 장싯꾼들이 왕 사가.

108021 @ 한마리는 얼마에 팔안마씨?

108021 #2 몰라. 얼마디. 그때 하여튼 그 땐 도새기 새끼 나와야 돈 벌어.

108022 @ 그러면 헛간도 만들어셨마씨? 헛간.

108022 #2 돼지 헛간? 아니 소에, 소 지르는 헛간 있었주게.

108023 @ 외양간?

108023 #2 으.

108023 @ 외양간은 어떻 만들었마씨?

108023 #2 그냥 게 여 초가. 짚으로 헤, 창고처럼 호뭍하게 쇠 질러와 그때서.

108023 @ 쇠도 키워보셨마씨?

108023 #2 게.

108023 @ 아, 몇 마리나?

108023 #2 우린, 옷드르는 암소들을 질러 새끼 내려 팔면 막 돈 돼, 그 때. 여기, 여기들은 소 하나 질러와. 숫쇠 막 크게 질러와.

108023 @ 발 갈젠, 보통.

108023 #2 발 갈고. 쇠 한 마리 팔면 옛날엔 밧 하나 샀어.

108023 @ 아 그지, 기짱?

108023 #2 큰 집 하나.
 108023 @ 그럼 옷드리는 많이 경 키워마씨?
 108023 #2 옷드리들은 이 암쇠들만 질러와 새끼 낳고.
 108023 @ 여기는 별로 암쇠는 안.
 108023 #2 여기 암쇠 질르면 못 질러와. 막 숫쇠들이 많아 부나. 못 질러와.
 108023 @ 무사 못 질러마씨?
 108023 #2 숫쇠들이 암쇠 보민 막 왕왕왕왕 하면 안돼야.
 108024 @ 그러면 장독대 있잖아예. 장독, 장독대에도 여기도 많이 옛날에 있었지예? 그럼 뉘뉘 담아놔마씨? 장독대에.
 108024 #2 장 담고게 고추장 담고. 그기에, 김치도 담고게 다 그런 거.
 108024 @ 뉘 옛날에도 그걸 파는 사람이 있던마씨? 장독대를?
 108024 #2 게. 요 마을에서 구웠지, 향아리.
 108024 @ 아, 구원마씨. 향아리 구운데 있던마씨? 요 위에?
 108024 #2 이제. 이제도 햄실거라 어디.
 108024 @ 이제도 하맨마씨?
 108024 #2 그 뎨 플라스틱 그 마을에 흑 해그넝 그 마을 흑이 좋아. 땅 파 그넝 막 찌그넝 영 향아리 만들어 불에놔 불 때민 벌정게 막 향아리가 만들엉 경 팔아놔주게.
 108025 @ 어르신, 춤항은 들어보션마씨? 춤항? 춤이나 춤항?
 108025 #2 그런 거는 안 들어봐신디.
 108025 @ 아 춤항은 안들어보션마씨?

초가 지붕이기

108026 @ 그러면 이 초가집, 초집 좀 물어보재신디예. 초집 지붕 이기 하잖아예. 그거 지붕이가 뉘뉘?
 108026 #2 지. 두 해에 한번.
 108026 @ 언제 한 번 마씨?
 108026 #2 두 해에.
 108026 @ 아 두해에 한 번.
 108026 #2 예, 이 년에 한 번 이 새 비어다가 영 깔아 지붕에다. 깔고 또 작은 새, 작은 새를 비어당 이 영영영영 손으로 줄만들앙 누 만들야. 누 만들야그네. 영 새 뉘어그네 묶어야지. 딱 묶어. 이 년에 한 번. 그렇게 해야 풀리지 않주게.
 108026 @ 아, 안풀리려고?
 108026 #2 으 바람에 풀려볼지. 계난에 경 못하게 이 년에 한 번 하는 거라.
 108027 @ 그 새하고 각단도 필요하잖아예.
 108027 #2 각단은 줄 하는거.
 108027 @ 그러면 새하고 각단은 어떤 준비해마씨?

108027 #2 새는 길, 길어야 지붕에 덮어주게 덮어. 덮으고, 각단은 짚른거 각단은 줄은 만들어 영영영영허멍. 줄을 만들어. 경허여그녕 새 깔아놔그녕 딱 묶어야지.

108027 @ 그럼 각단은 줄이고 새는 그러면 뭘로 만들어마씨?

108027 #2 비어. 밧에강 비어왓주게. 새를. 지냥으로 커.

108028 @ 아, 그냥 지냥으로 커마씨? 그러면 각단이 집줄, 집줄 만드는데.

108028 #2 응. 만드는데.

108029 @ 그럼 집줄 만들 때 쓰는 연장은 뭐워 잇언마씨? 호랭이 뒗치기 들어보션마씨?

108029 #2 사람 손으로 이 디션 영 각단놓고 사람 손으로 영영허민, 그.여거 허여가. 이쪽으로 영영. 영영영영 해가민 노 꼬는 것처럼 허여.

108030 @ 그럼 평고대도 알아마씨?

108030 #2 그런 건 안 들어봐사. 몰라.

108031 @ 그럼 집줄 매기도 몇 번 해야마씨? 짚줄 매기는?

108031 #2 이 년에 한번.

108031 @ 그거는 지붕이기고.

108031 #2 아니 집줄도 이 년에 한번.

108031 @ 집줄은 뭐봐?

108031 #2 지붕에 영 매여사 새들꺼.

108031 @ 그게 지붕이기 아니마씨?

108031 #2 응.

108031 @ 그럼 집줄 매는 건 또 다른 거 아니봐?

108031 #2 아니, 그게 그거.

108032 @ 그럼 새나 그런거 다 덮은 거 쓰다가 남잖아예. 남을거 아니마씨? 그다 한 다음에? 그럼 남는 것들은 어떤 해마씨? 그냥 버려마씨? 아니면?

108032 #2 노람질 해야지 노람지.

108032 @ 노람지가 뭐봐?

108032 #2 이. 이제는 갑빠 났지만은 곡식을 그 새에다가 영 짜그네. 곡식을 덮어야 되여. 비 안 들게. 이제는 갑빠 있어도 이제는 새로만 했지. 노람지 손으로 짜그네. 덮어줘야.

108032 @ 그걸 노람지라고 해 마씨? 갑빠는 알아지크라마씨 이렇게 덮는거.

108032 #2 이제는 갑빠 놔두난 그 뎨 그런 거 엇언.

108032 @ 아, 그때는 갑빠 어시난.

108032 #2 노람지로.

연장

108033 @ 어르신, 그럼 집 지어봤으니깐 집 지을 때 쓰는 연장들 있잖아예. 그

건 뭐뭐 있었을까마씨?

108033 #2 옛날엔 그냥 돌로 그냥. 흙허영 그네 보리낭 막 그냥 끼와. 끼와그넝 착착 발랐주게 담 휘지자, 휘어지지 안허게. 경 허영 게. 낭 호끔 낭 해났주게.

108034 @ 톱도 쓰션마씨?

108034 #2 게. 톱으로 게, 낭도 싸고.

108034 @ 톱은 종류가 엇어신가마씨? 뽕족한 거 하나?

108034 #2 여러가지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108034 @ 보통 뭐할 때 큰 거 쓰고 뭐할 때 작은 거 써?

108034 #2 큰 나무 할 땐 큰 거 쓰고, 작은 나무 할 땐 작은 거 쓰고.

108035 @ 그럼 못도 이렇게 하다 못 뿔잖아예. 망치로 못 뿔었다가. 못 뿔는 건 뿔로 뿔아마씨? 못 뒤에 부분은 뭐라고 해마씨?

108035 #2 마, 두드리는 거짜 망친가.

108035 @ 예, 그게 망친데, 망치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예, 이렇게 갈라진 거.

108035 #2 그게 못 뿔는 거라.

108035 @ 장도리라 하지마씨.

108035 #2 몰라. 그건,

108036 @ 그럼 대패도 쓰션 마씨? 그 집지을 때.

108036 #2 예. 거서 영 깎으는 거.

108036 @ 뭘 깎아마씨? 나무?

108036 #2 나무 깎아야지. 대피로 영영 깎아야. 민딱하게.

108038 @ 떡통이랑 떡줄도 쓰션마씨?

108038 #2 떡통? 아, 그건 영 저 이런 줄 맞추젠허든 떡통썼주게.

108038 @ 아, 어떤 무슨 줄?

108038 #2 이 집을 게 구짝하게 하지든게 그 영 떡통으로 짝 해서게. 이젠 잣대로 하지. 그 땐 그걸로 했지.

108039 @ 아, 떡통으로 마씨? 그럼 떡통에다가 떡줄을 이렇게 해서, 아, 경행 쓰는 거구나예. 그럼 아까 얘기한 건데 흙손이나 흙받이도 잇어야 하잖아예. 흙 이렇게 발르젠 하면?

108039 #2 손으로 발랐주게.

108039 @ 아 손으로.

108039 #2 그러고 여기에다가는 손 휘어지지 못하게 착착 이제 같으면 서케허듯, 서케허듯.

108039 @ 아, 서께로

108039 #2 서케허듯.

9. 신앙

109001 @ 어르신, 가신은 잊어마씨? 가신. 집에 있는 신. 집신. 가신에 대해서. 집집마다 신들이 있다고 하잖아예.

109001 #2 아, 신. 귀신.

109002 @ 가신은 모르겠다. 성주에 대해서 아는거 잊어마씨? 성주?

109002 #2 성주는 집 지시믄 성주햄주게. 집 지시믄.

109002 @ 집 지신게 성주한다마씨? 그게 뭐짱?

109002 #2 옛날사람 잘 알주만은 집 지으면 성주도 다 허여 우리도 했어. 그런디. 그. 이. 낭. 생낭으로 해당 집짓고 커민 나쁜 거 붙든덴 다 그거를 없애고 깨끗하게 허젠 했주게. 깨끗하게 하라고.

109003 @ 그럼 문전은?

109003 #2 문전은 옛날에. 하. 옛날에 저. 그. 남자가 막 남선이라고. 남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시를 얻었어. 각시를 얻으니까 아니 첫 각시에 아들을 일곱 형제 난 사람이 각시를 얻으래 남 선비가 각시를 얻언, 허나넝 막 요망지는 사람을 얻어 그넝 이제 큰 각시이신디 등뎡이에 물 놔주켄 허영 죽여부련. 이제 남선비는 워난 순해노난 죽은 각시 말만 들으멍 이제. 저 이녁이 막 아프덴. 아프덴 이제 허난 어디강 점 허나넝 이제 사람 간을 먹야야되켄. 먹어야 좋켄햄젠. 경해그넝. 아들 간산디 남선비가 허여당 이제, 죽은 아들이 그걸 발견허연. 게난 이제 죽은 어멍을 죽여버렸어. 경허난 남 선비는 문전에 문전이 되고, 또 큰 어멍은 조왕이 되고 죽은 어멍은 두들팡에 변소에 그 디 귀신이 됐어. 경했어 게난 저 제사나 뭐 할 때 문전에 기도허고 하잖아. 그 조왕에도 불싸고 보면 뭐, 또 무슨 동티나면 이제 그 칙간에 가서 동티하는 걸 넣어. 신방에.

109005 @ 그럼 그래 문전이랑 조왕이다. 조왕도 물어보렸는데 같이 말해주셨다예. 그럼 칠성은 흑시?

109005 #2 칠성은 그 하르방네 칠형제가 났주게. 경하난 칠형제 낳아놓으니 그걸 칠성이라 해여. 별들이 칠 개 있어. 칠 .그 일곱 개. 칠성이 그거.

10. 세시풍속

정월

110001 @ 세시풍속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월달 정월 명절 있잖아예. 정월 명절에 대해서 그냥 아시는 거 다 한번 얘기해주시면 될까마씨? 명절날 뭐하고 .

110001 #2 멩질날은 게 세배하고게, 멩질하고, 그 친척네 집이 멩절 먹으러 다니고, 종손네 집은 제일 말제에 허여.

110001 @ 제일 말제? 음.

110001 #2 마지막에.

110001 @ 정월 명절이 언제주마씨?

110001 #2 음력계, 일월 일일날 아니? 옛날에는 양력으로 해냈는데, 지금은 음력으로 하지.

110002 @ 그러면 정월 대보름 있잖아예. 정월대보름은 언제고 그때는 뭐하지마씨? 정월 대보름에?

110002 #2 그 제주도선 잘 안해도 육지서는, 제주도선 저 .육지서는 막 떡해먹고 막.보름. 정월 보름도 막 크게 하는데 제주도는 저. 그. 일년을 대해서 이 방법허영. 방법.

110002 @ 방법? 그게 뭐짱?

110002 #2 일년에, 일년 살면서 잘 되라고 방법허여. 나쁘면 저 질에 가서 대보름날 밤에 막 밤짚은 때에 가그네 막 무시. 거. 허여그네 저 영 태우려. 넘어가단, 첫 번에 넘어가는 사람 올르라고.

110002 @ 올르라고?

110002 #2 그거를, 저 .나쁜 거를 영 그 사람한테 가라고.

110003 @ 그러니까 그게 방사랑 액막이 하는거지예?

110003 #2 응응. 액막이 맞아. 맞아. 맞아.

110003 @ 아, 그거구나. 그러면 정월 대보름에 그런거 해마씨?

110003 #2 응응.

110003 @ 그럼 잠깐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잇어마씨? 액막이 같은 거는? 어떤 게 이신지 기억나신거 잇어마씨?

110003 #2 액막이게 집에서 게, 막 굿해그네. 굿댄허민, 그 사람이 굿댄허민 대보름날 막 집에서 허여그네. 이 탄 사람. 액을 가져가라고, 나쁜 걸 가져가라고 막 액막이 허주게, 경허영. 질에다 놔부러, 질내에. 이. 저, 사거리에. 사거리에 놔부러.

110003 @ 질에 그냥 놔 붙어마씨? 그럼 누가 막 뺏아가면 어떡해?

110003 #2 그럼 때 그 사람이 나쁘지게. 경허랜 경허랜.

110004 @ 그럼 어르신 포제는 들어보션마씨? 포제? 마을제 뭐 그런거. 마을에서 하는 제는 잇언마씨?

110004 #2 어어. 그건 옛날에 해냈주게 저 오름에가, 오름에가그네 사람들 한 며칠 저, 내려오지도 안하고 거기서 살다가, 제를 해여. 비 잘 오고 올히 농사 잘 되라고. 저, 이 오름에 가서.

110004 @ 어디 오름?

110004 #2 여기 오름 있잖아.

110004 @ 여긴 무슨 오름마씨? 여기는?

110004 #2 녹남봉.

110004 @ 아, 농나, 녹남오름?

110004 #2 녹냐이 많이 그디 있어. 계난 이름이 녹남오름.

110005 @ 그럼 안택은 들어보션마씨?

110005 #2 응?

110005 @ 안택? 안택은 안 들어보션마씨?

110005 #2 안택이는 건 저, 이 뒤씨. 집 지을 때에 이, 저. 이런디, 이런거 허는 거. 옛날엔 영 대를 엮어그녕 안택했지게. 영 별랑 흙으로 별랑.

110005 @ 그게 뭐하는 거 마씨?

110005 #2 안택허는거주게, 그 저. 저. 이젠 세멘으로 해그네 영 허영, 쓸엄주만 은옛날엔 흙쟁 손으로 영 매끈하게 함주게 했주게.

110005 @ 그거말양, 막, 음. 그. 집에서 한해농사 잘 되라고 뭐, 제 지내거나 그런거 없언마씨? 그런것도 있었지예?

110005 #2 코시 그건.

110005 @ 아, 그냥 코시?

110005 #2 응. 심방허는거, 코시.

110005 @ 그럼 코시에 대해서 좀 알아줍서.

110005 #2 코신게 일년에 혼번 정월달 나민 신방 빌어다그녕 농사 잘 되고 몸 건강해달라고 빌었주게. 신방 빌어다.

110005 @ 뭐뭐 준비해마씨? 그러면? 그때.

110005 #2 그뎨 떡하고 게, 과일하고 게, 뭐 백지 같은 거 해그네 썰고.

110005 @ 이 마을에도 신방이 잇언마씨?

110005 #2 이젠 엇어. 옛날엔 잇어나신디.

110005 @ 아, 옛날에 잇어난. 요즘에 그러면 코시 잘 안하지예?

110005 #2 안해. 안해. 옛날엔 정월달만 나민 막 소리나, 굿하는 소리.

110005 @ 아, 정월 달만 되면?

110005 #2 응.

110006 @ 그럼 어르신, 보리밭 밟기는 들어보션마씨?

110006 #2 뭐?

110006 @ 보리밭 밟기. 보리밭 밟기.

110006 #2 보리 갈면 막 불랐주게, 잘 되래.

110006 @ 아, 잘되래 언제 헨마씨, 그건?

110006 #2 그건 보리 이제 십일월 달에 갈아부네, 이. 저. 이른 봄에, 이 겨울에 눈 놔나민 땅이 막 북삭허지게 기면 막 벌라주민 튼튼허영. 잘 되래

110006 @ 일년에 한번?

110006 #2 응.

110007 @ 그믐 걸공은 들어보션마씨?

110007 #2 걸공했주게.

110007 @ 아, 걸공은 뭐마씨? 난 걸공은 처음 들어봐부난예.

110007 #2 걸공은 게, 이제 같으면 각설이 하는 거주게. 각설이추록. 그 각설이나 마찬가지로, 그 걸공은.

110007 @ 그 굿하는 거 아니짱? 코시.

110007 #2 아니, 아니야. 걸공은 놀이개주게.

110007 @ 놀이개?

110007 #2 이 방, 이 각설이하고 꼭 같은 거. 놀이개.

110007 @ 그럼 누가 하는거마씨? 걸공은?

110007 #2 그건. 영 호끔. 우스개 잘하고게 하는 사람들 하는거주게.

110007 @ 막 귀신 몰아내고 그런 게 걸공은 아니마씨?

110007 #2 그건 걸공 아니여, 귀신 몰아내는 건. 저, 구양풀이. 아니. 구양풀이. 구양 풀이주게 구양풀이. 막 귀신 몰아내는 건 구양풀이.

110008 @ 그럼 입춘 있잖아예. 봄 올 때 입춘에는 뭐하션마씨? 입춘 때 보통 제주도에선, 이 마을에선?

110008 #2 입춘 땐 새해나그네 허염젠 보리밭 매여바, 보리밭 매영. 보리밭이 마르민 비가 잘 오고, 보리밭이 화나민 비가 잘 안 온덴해서. 그고 새쫄 들은 날은 이. 어떤 집에 가지 말아야돼영.

110008 @ 무슨 들인 날 마씨?

110008 #2 새쫄 들인 날은 놈의 집에 가지 말아야.

110008 @ 새철 들인 날?

110008 #2 새철 트는 날.

110008 @ 새철 드는 날?

110008 #2 입춘날. 입춘날.

110008 @ 입춘날이 새철드는 날?

110008 #2 응. 새철 드는 날. 새철 드는 날.

110008 @ 남의 집에 가지 말라는거마씨?

110008 #2 응. 가면, 여자 가면 검질 많이 진덴.

110008 @ 아. 그런 것도 있었다잉.

110008 #2 경험주게.

110008 @ 저기 고산에서 할아버지는 잘 모르시던데, 그런 거.

110008 #2 무사?

110008 @ 그러면 우수 있잖아예. 그러면 우수. 우수는 알아져마씨?

110008 #2 우. 우수가 무신건고?

110008 @ 입춘 다음에 우수가 오는데. 잠시.

110008 #2 그것도 아무나신디 들영 안 돼여. 그것도 호끔 똑똑한 사람헌티 이 노인네장 해놓은 사람이나 이장 해놓은 사람, 옛날 이장이나 지금 노인회장이나 하는 사람한테 물어야 알주. 아무사람한테 물으면 안되여, 몰라.

110008 @ 그래도 입춘 지금 잘 아시잖아마씨.

110008 #2 입춘은 알지 그야. 입춘은 같은 건 누구라면 알지그네.

2월

110009 @ 그럼 이월 달에는 그.

110009 #2 영등들어 이월에.

110009 @ 예. 그거 좀 글아줍서.

110009 #2 영등 드는 건, 바당에 이제, 이제도 가파도엔 굿 허여.

110009 @ 아, 가파도에는.

110009 #2 응, 지금도. 그 마을에서 건너와그네 부두에서 우리도 한번, 가파도 강보난 이월. 초심에 막 굿햐서라 일주일일. 그건 바당에 이제 그 빠지지 말고 물건, 물건 잘 잡혀달라고 비는 거지게. 바다에, 바다에.

110009 @ 그믐 영등에는 뭐 어디 가지마라 그런 건 엇언마씨?

110009 #2 엇어. 영등 들 때에 희한한 옷 빨래 널면 막 버랭이 일어. 지금도 그 래여. 걸래 같은 거 추잡한 거 내던지 하면 버랭이 일어.

110010 @ 그럼 경칩이나 춘분은 들어보션마씨? 경칩. 이월달에.

110010 #2 경칩날. 경치가 무신건고?

3월

110011 @ 그럼 삼월달에 뭐 있주마씨? 삼월달에? 한식명절은 들어보션마씨?

110011 #2 한식 명절은 그거 저. 산에 산에 명절하는거지게.

110011 @ 산에 명절하지마씨? 그 언제 뭐하는거마씨? 왜 하는거마씨?

110011 #2 그거는 저 그날 이제, 이제도 허여 한식. 그. 사월 오일날인가? 한식은 그 귀신, 그날은 산 손받았다강해여. 귀신 손받았다는. 또 친구간도 있잖아 친구간. 친구간은 그 귀신이.

110011 @ 친구간은 십이월인디?

110011 #2 으.

110011 @ 친구간은 좀 이따 물어볼게마씨. 이따 차례차례.

4월

110013 @ 그러면 그.사월에 초파일 있잖아예. 사월 초파일날. 사, 사월 초파일날은 사람들이 뭐하고 뭐하지마씨?

110013 #2 그 법당에 가는 날이지. 부처님 내려오는 날.

110013 @ 뭐 특별한 거 여기서 하는 거는 엇언마씨?

110013 #2 엇어. 저. 법. 절에 가그넝 그날은. 저 부처님 내려오는 날이난.

110013 @ 그. 사월달에 입하가 있는데, 여름이 이제 온다고 그럴 때는 또 특별히 하는 거는 엇언마씨?

110013 #2 그건 모르켄게?

5월

110015 @ 그럼 오월에 단오명절 있잖아예. 단오 명절날은 뭐하지마씨?

110015 #2 제주도는 단오명절 아니여. 단오날에 저. 숯 같은 거 약 해놔두민 약 재되여. 단오, 단오날에.

110015 @ 단오날에 약재.

6월

110017 @ 그럼 유월달에 닭 잡아먹는 날 있잖아예. 유월 이십날?

110017 #2 응, 유월 스무날.

110017 @ 그게 무슨. 뭐마씨.

110017 #2 옛날에 조농사가 대목이주게 보리허고. 조나. 보리는 갈면돼도 조나. 조농사는 일기 봐야되여, 조 같아서 현 일주일 보름만 비 안 오면 조가 잘 돼여. 비 와불면 잘 안되고 계란 농사 다 해볼민 그때는 시간이 나니깐 옛날엔 득 잡아 먹 언. 그거

110017 @ 그거 유월 스무날?

110017 #2 응. 유월 스무날.

110017 @ 그럼 이거말양 요즘엔 삼복 있잖아예. 초복 중복 말복 해가지고 닭 먹는날.

110017 #2 으.

110017 @ 그때도 옛날엔 삼복이 잇언마씨?

110017 #2 그런 거 잘 안했주마는 이제. 그거는 저 뭐시주게. 이 일, 날씨, 일기 이제 입춘 무시거 하듯이 그걸 농사에 대허영. 아까 초복 무시거, 초복.

110017 @ 중복, 말복.

110017 #2 응. 그런 거 말복에는 농사가 늦었어. 초복엔 처음 농사한다고. 중복엔 중간에 농사한다고 말복엔 농사하면 늦었어. 그런거주게.

110017 @ 막 더울 때가 막 소서 대서 들어보션마씨?

110017 #2 게.

110017 @ 막 더울 때는 뭐 딱히 하는 거 어신가마씨? 마을에서? 막 더울 때 사람들 더위 이기젠. 옛날에는 어떤 게 잇어마씨? 지금은 막 에어컨 틀고 하잖아예.

110017 #2 응. 그럴 적에 막 더워. 백죽날이 막 더워. 백죽날.

110017 @ 백죽날? 예, 그럼 백죽날. 예. 백죽날, 백죽날 백중제 하는거마씨? 그건 다른건가?

110017 #2 그. 것도 아니고 그냥 백죽이랑 허여그네 저. 바다에 모욕허래들 가주게.

110017 @ 아. 그게 백죽날?

110017 #2 응 백죽날. 모욕허래 가.

110017 @ 여기서는 어디간마씨?

110017 #2 바다에들 가.

110017 @ 그니까 바로 옆에 그냥?

110017 #2 응.

110017 @ 제일 가까운 바다가?

110017 #2 이 신두바다 가주게. 가서 모욕도허고 놀고. 백죽날.

7월

110020 @ 그럼 칠월에는 칠월 칠석 있잖아예. 칠석날은 뭐. 칠석에 대해서 아는 거 이시면 좀 알아줍서.

110020 #2 칠석날도 불공허지, 법당에 가지. 칠석날도. 칠석은게. 그. 별도 칠성 있고. 그. 그거. 그 옛날 아들 일곱 성제연 지금도 허주게, 계난 그날도 법당에 가는 날이라.

110020 @ 법당에 가는 날?

110020 #2 응.

110021 @ 그럼 칠월달에 백중제 있지 않ாம아씨? 백중제?

110021 #2 백중제, 그, 저 농사 잘되랜 그 때, 그 때 해실거라.

110021 @ 뭐하는거마씨?

110021 #2 이, 저 오름에 강, 제허여 제. 제게, 그 올히 농사 잘 되줍서 해그넝 하는거주게.

110021 @ 그걸 칠월달에 해마씨?

110021 #2 응.

110021 @ 무사 그 뿌리는 건 그 예, 더 전에 뿌리지 않ாம아씨? 무사 칠월에.

110021 #2 유월. 유월달엔 장마 있잖아. 장마 넘어 조 허는거라.

110021 @ 아, 장마하면 조 하니까.

110021 #2 조 허영 비 안와서 막 잘 돼여.

110022 @ 그럼 칠월에 모래찜도 해마씨? 모래찜? 모래찜 들어보션마씨?

110022 #2 예. 이딴 안 해여.

110022 @ 그럼 모래찜 들어보기는 헐마씨?

110022 #2 모래찜게 그 이디 몸들 관절염으로 아프잖아. 그. 모래로 해서 영 뜨 뜻하게 하는 거게.

110022 @ 근데 이디는 하는 데 엇어마씨?

110022 #2 이디는 안 해여. 저 한림강 해사주.

110023 @ 그럼 물맞이는 들어보션마씨? 물맞이?

110023 #2 그 백중날 물맞이 허주게.

110023 @ 물맞이는 뭐짱?

110023 #2 물 영 맞아. 착착하게 맞고 모욕하는 거주게.

110023 @ 아, 그냥 백중날 더 하구나.
110024 @ 그럼 입추나 입춘에는 따로 하는 거 어신가마씨?
110024 #2 입추?
110024 @ 예, 입추. 가을 시작하는 날.
110024 #2 허는거 없지.

8월

110025 @ 그럼 우리 그 산소에 가면 팔월달에 벌초 하잖아예.
110025 #2 응.
110025 @ 벌초에 대해서 좀 알아줍서. 벌초.
110025 #2 팔월 초하룻날 벌초허주게. 옛날엔. 이젠 공일날 해도 옛날엔 팔월
초날에 정식으로 하여.
110025 @ 그러니까 요즘엔 막 기계도 하고 사람도 막 사잖아예. 근데 예전에는
그런거 없었잖아예.
110025 #2 게. 친척이나 허영 호미로 가 다 비었지주게. 산 좋은 자리 허면 자
손 잘 된 텐허영. 영 막 먼디 강 묻으민 그디 벌초를 다녀. 이젠 다 파그넝 가족 공
동묘지하여. 벌초 하기가 힘드니까.
110026 @ 팔월 명절 있잖아예. 팔월 명절날은 뭐하주마씨?
110026 #2 무시거게. 파. 팔월 보름날 떡하고 행 멩질 먹으러 다녔지게 뭐. 친척
네 집에. 돌아다니명.
110026 @ 그럼 정월 명절이랑 팔월 명절이랑 비슷하잖아예. 다른 게 뭐가 잇지
마씨?
110026 #2 정월엔 저래 서배도 허고 게, 허주게.
110026 @ 근데 팔월 명절에는 그건 안하지예?
110026 #2 그거 안 하여.

9월

110028 @ 그럼 구월 달에 뭐 따로 하는 거 어신가마씨? 백로나 상강 뭐 그런
거.
110028 #2 상강 했주게 상강.
110028 @ 아, 상강은 뭐 하지마씨?
110028 #2 상강은 .그 때부터 상강 후로는 추워. 고구마 같은 것도 상강 전에
파야 썩지 않아여.
110028 @ 아, 상강 전에 해야?
110028 #2 응. 상강 넘으민 고구마도 썩어.
110028 @ 상강날은 뭐 하는 거 엇어마씨?
110028 #2 엇어.

110028 @ 그냥 그거 기준으로.

110028 #2 응.

10월

110029 @ 그럼 시월에 입동 있잖아예. 입동. 이제 겨울이 시작한다. 입동 때는 뭐 딱히 하는거 엇언마씨?

11월

110030 @ 그러면 십일월 달에 동지 팔죽 먹는다고 하는데, 그, 뭐 무슨 말이마씨? 동지팔죽이 어떻게 만드는 거고.

110030 #2 그 만들기사게 풋 삶양 죽혀여그네. 그 먹기도 허고 막 케우려 귀신을 오지 못하라고 방법하는 거여. 거, 방법하는 거라.

110030 @ 아, 귀신 오지 말랜. 그냥 먹으면 되는거마씨?

110030 #2 먹고 케우려.

110030 @ 케우려? 케우리는 게 뭐 하지마씨?

110030 #2 죽헌게 이제 저래 막 케우려. 뿌려.

110030 @ 아, 흠뿌리는 거구나.

110031 @ 그럼 십일월에 납평날은 들어보션마씨? 납평날?

110031 #2 납평날. 옛허는 날, 그거. 옛 하는 날.

110031 @ 왜 옛하는 거마씨?

110031 #2 일 다 허고 허난 겨울에 옛행 먹엄주게.

110031 @ 그럼 뭐 언제마씨? 그럼 납평날은?

110031 #2 언제산진 몰라. 납평날. 옛날에는 어느날 지정해놔신디.

110031 @ 그 마을 사람들 다 모영 한거마씨?

110031 #2 아니, 이녁 각 집서만, 닭 잡아먹듯이. 이 농사 다 허고 허난.

12월

110033 @ 그 아까 말씀하시려는 거 십이월에 신구간 있잖아예? 신구간에 대해서 좀 골아줍서. 제주도만 있는 거잖아예.

110033 #2 응. 신구간은 그. 저. 이. 정월. 그 해가 구물엿주게. 율히 이거 이천 십오년 아니? 십오년이 다 구므난, 구물민 귀신들이 하늘에 올라간뎡 올라가불면 귀신 어실 때에 이사를 허여. 경 하는거주게 그거.

110034 @ 그믐 보통 그 옛날에는 이사 갈 집을 요즘에는 막 부동산 하잖아예. 옛날에는 이사갈 집 어떻게 구하셔, 구했주마씨?

110034 #2 기냥 이녁냥으로 구했주게. 이녁냥으로 빌어그넝 구하고. 허는디 귀신 하늘로 올라가부렁 해여그넝 그 동티가 어떻허영 신구간에 하는거라. 신구간에 집도 고치고 뭐 변소도 고치고 조왕도 고치고 귀신이 하늘에 올라가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허는 거지.

110035 @ 그럼 이사 갈 때 뭐부터 처음에 가져가마썸? 뭐 처음에 챙기는 게 뭐 잇언마썸?

110035 #2 그 성냥 같은 거 시. 초 같은 거 불, 불나는 거 좋은 거.

110035 @ 그거부터, 왜 그거부터 가져가마썸?

110035 #2 그거 하면 좋은데. 불 일어나게 재산도 많이 일어나고.

110035 @ 아 그래서.

110035 #2 그 잔치할 때 왜 저. 그. 무시거허잖아. 잔치할 땐 이, 그 세탁하는 거 뭐시라. 그. 그릇 씻는 거 같은 거게. 그 세타크 스파크 왜 그런거 하느냐면 저 빨래 같은 거 깨끗이 씻혀지 듯이 살림 살 때에 잘 깨끗하라고 그런 거 하는 거라.

110035 @ 아 경해부난 그런 거 주는 거마썸? 세제 같은 거 주는 게?

110035 #2 응. 그러니 그릇 씻는 거. 그. 스파크 같은 거 그런 거 하잖아. 그런 거 잔치 때 해여.

110035 @ 난 잔치 때 무사 이거 줘신가 해신디. 아 그것 때문에 이유가 있었구나잉?

110035 #2 응. 영장할 땐 아무거나 줘도 돼여.

110035 @ 아 영장할 땐 아무거나 주고? 잔치 때는 그런 거 주고?

110035 #2 응, 잔치 때는 그런 거 해.

110035 @ 그럼 이사 갈 때는 초랑 그런 거 먼저 가져가고.

110036 @ 집알이 있잖아예. 집알이. 그니까 새로 집 이사가면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음식 주고 하는거. 집들이 같은 거.

110036 #2 그거 집들이주게.

110036 @ 그런 거 예전에도 잇언마썸?

110036 #2 옛날에는 없었어. 옛날엔 집 짓으면 저. 것 곁아 무시. 성주풀이 해주게 성주풀이.

110036 @ 성주풀이?

110036 #2 응. 성주풀이는 이 집 짓으면 그 나무 같은거 옛날에는 비어당 지셨주게 지금은 경 안해두. 경허민 그런 디 귀신 붙은 거 저 막 방비 허는 거. 도치같은 걸로 나무에 찍어 굿하면서 그. 경해그넝 굿하는 거.

110037 @ 그러면 집들이 하면 집들이 할 때 이렇게 가면 보통 선물 사가잖아예. 근데 요즘이야 뭐 이것저것 살 게 많은데 옛날에는 가져갈 거 없쥬?

110037 #2 그. 그 성냥같은 거. 그 초 같은 거 사가, 잘 되라고.

110038 @ 그럼 소한이나 대만에 대해서는 뭐 기억나는 거.

110038 #2 거. 추위. 소한은 덜 춥고, 대만에 나가는 사람은 믿지 말헬해서. 거 막 추울 때라 거. 막. 제일 일 년 중에 추우, 추운날.

110038 @ 믿지 말라고 헬마썸?

110038 #2 응. 대만에 나간 사람 믿지 말랑, 추웁. 죽나고.

110038 @ 아,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 말은 여기에도 있었구나예. 고산에서도 뭐 소한인가 대한에 나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뭐 그런 말 있었다고 해서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예전부터 그런 말은 있었구나.

11. 놀이

111001 @ 예전에는 지금은 막 어린아이들 게임하고 막 노는데 예전에는 뭐하시면서 놀안마씨?

111001 #2 남자는게 팽이치고게 여자들은 베찢락하고게.

111001 @ 뭐 마씨?

111001 #2 베찢락.

111001 @ 베찢락이뭐짱?

111001 #2 영 게 베로게 영영영 흐는거 노로. 베찢락.

111001 @ 줄넘기 같은 거?

111001 #2 으 줄넘기주게.

111001 @ 아, 그게 베찢락이짱?

111001 #2 게고 영 뭇도 허고 영 주맹기로 영영 하는 거.

111001 @ 주맹기?

111001 #2 주맹기로 만들영게. 영영영 손으로 하는 거.

연(鸞)

111002 @ 연놀이도 하셨지예?

111002 #2 연놀이도 해주게 남자들은.

111002 @ 연은 종류가 뭐뭐 있주마씨?

111002 #2 종류 무시거게 그 연 동글락하게도 만들고 니기막하게도 만들고 연 올렸주게.

111003 @ 방패연, 가오리연 막 그런거 만들었지예? 그럼 연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마씨?

111003 #2 대로헨게.

111003 @ 그니깐 만드는 거 곱아줍서. 처음부터.

111003 #2 대 깎아그네게. 영 대해그넵 대 찌영 찌영 깎아그넵 영 오그라그넵 창오지 발랐주게 종이발란. 경행 실 해영 바람에 날려.

111003 @ 옛날에는 창오지 귀하지 않안마씨?

111003 #2 창오지 흔했지. 옛날엔 창오지로 문도 바르고 연도 만들고 뭐 글도 쓰고 막 경했지 창오지가 흔해서.

111003 @ 그른 연대나 아까 대 깎았다고 했잖아예 대는 어디서 난마씨?

111003 #2 그 옛날엔 이 집 짓어난디 문딱 대 심어 왜냐면 대로 바구니도 짓고 바구니 만들었주게. 경해사 바구니를 사용했지. 대로 계난 집 짓어난디 지금도 대 있어. 자리는 옛날 저 집 뜰어분디 옛날 사삼사건 때 전에는 집들이 막 지금처럼 짓어주게 이디저디 겐디 사삼사건 때에 무서워서 폭도들 때문에 이 큰 마을에 다 속까지 왔주게. 계난 집 짓어난 자리에 안 짓은디 이제 대가 있어 다. 우영에들 다 심어 집 짓은디 집은 다 대 심어 대로해영 바구니도 짜고 뿔도 만들고 대가 필요해서.

111004 @ 연 하면 실도 필요하고 돌리는 것도 필요하잖아예 그거는 어떻 만드 는거마씨?

111004 #2 그 실은게 미녕으로 미녕하는거처럼해그녕 실을 만들고.

111004 @ 미녕으로?

111004 #2 으 소게로. 멘네 멘네로해영 이녁냥으로 만들엉 대 깎아그네게 연 만 들엉 올렸주게.

111005 @ 연싸움은 하는거 혹시 아서마씨?

111005 #2 게 알주게.

111005 @ 연싸운 하는 거 곱아줍서.

111005 #2 게 어떻게 연싸움은게 연 두개를 올령 영 막 부닥혀 게문 잘 만들 어사 잘 올라 잘못 만들면 잘 올르지 않았지. 게면 이 잘 만든거는 막 올라그녕 허 고 잘못 만든거는 지주게 이거한테 이거는 활활하게 막 올르고 잡아댕기면 내리고 쪽 가면 싹 올르고 이거는 잘 안되여. 잘 안 만들면 게문 지지.

111006 @ 어르신도 연 날리기 헨마씨?

111006 #2 여자들은 잘 안허여 남자들만허지.

제기차기

111007 @ 어르신 이걸 많이 안해보셔도 알 것 같은데 제기차기 아시잖아예? 그 럼 제기는 옛날에는 어떻 만들었주마씨?

111007 #2 그거게 저 종이 창오지로도 허고 창오지로 영 처음엔 이 이제 같으 면 백원짜리 영 뉘. 이거 창오지면게 백원짜리를 이디 뉘그녕 알로 실로 감아 이거 를 막 ㄴ샐지 막 ㄴ사민 실 감아 싹 벌개져. 경행 영 발로 찼주게.

111008 @ 그럼 제기도 제기차는 것도 종류가 있지 않안마씨? 한발로 차는 것도 있고 양발로, 뉘뉘 잇언마씨?

111008 #2 으. 경허난게 잘하는 사람은 혼발로 차고 잘하는 사람은 두발로 영 차주게. 두발로. 건디 익숙하면 양쪽으로 차주 양발로.

111009 @ 제기차기는 어떻게야 이기는거주마씨?

111009 #2 오래차면 이기주게.

111010 @ 어르신 제기차기 안하셨지예?

111010 #2 여자들은 안허여.

자치기

- 111011 @ 자치기는 아시지예? 자치기.
111011 #2 그건 저 무신건가.
111011 @ 나무 막대기 딱 치는거마씨.
111011 #2 그건 저 무시걸로 저 영 발로 차나실거라.
111011 @ 작은 거 있고 긴 거 있고 막대기로 하는 건디.
111011 #2 그건 안해나신디.

말타기

- 111015 @ 말타기는 혹시 해보셨마씨?
111015 #2 이디선 안해서 말타기.
111015 @ 이디선 말타기 안하고.
111015 #2 어른 어떤 어른들은 이제 같으믄 택시 모양이라 몰 허영 탕 다녀.
111015 @ 아 그 말타기말양 노는 거마씨. 사람들이 이렇게 숙영 하는 거.
111015 #2 아 그거 아이들더러 허주게.
111015 @ 몰 타는 거말양 진짜 말 타는 거말양. 그 말타기.
111015 #2 그건 더러 허주게 아이들 학교에서.
111015 @ 말타기 종류는 들어보신거잇어마씨?
111015 #2 아니 들어본적 잇어.

구슬치기

- 111020 @ 그럼 구슬치기 있잖아예. 구슬치기 다마
111020 #2 다마치기 다마.
111020 @ 다마는 옛날에 어떻게 준비했주마씨?
111020 #2 몰라 사와신지사 동그락한거 사왔주게 그거게 다마.
111021 @ 다마치기는 종류가 뭐뭐 있주마씨? 고양이 집어 넣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맞추는 것도 있고.
111021 #2 맞추지 맞춰.
111021 @ 보통 맞추지예.
111027 @ 그럼 어르신 다마치기 해보신적은 잇어마씨?
111027 #2 안해봤주게. 그런 거.

딱지치기

- 111028 @ 그러면 혹시 딱지치기는 해보셨마씨?
111028 #2 것도 남자가 허주게. 딱지치기 행게. 남자들.

숨바꼭질

111032 @ 그럼 숨바꼭질은?

111032 #2 숨바꼭질 여자 허주게. 그거 숨바꼭질은 여자들 허는 거라.

111032 @ 숨바꼭질은 옛날에도 숨바꼭질이라했마씨? 제주도말 잊어신가마씨?

111032 #2 숨바꼭질 해서. 곱을락하기.

111032 @ 거는 어떻 하는거마씨? 숨바꼭질 옛날엔.

111032 #2 어디게 영계 확 곱아그녕 곱을락허여. 어디강 곱을락하면 찾지 못했주게. 경 했주게.

111033 @ 막 여러명 하면 찾는 사람 정해야하잖아예 게문 찾는 사람보고 뭐라고 했주마씨?

111033 #2 몰라. 그건.

111033 @ 술래라고 안해수광. 찾는 사람 한 명 정하는 건 어떻 정해마씨?

111033 #2 장개보로게.

111034 @ 그럼 주로 어디 숨으션마씨?

111034 #2 어디 돌트명에 같은디 곱았주게.

111035 @ 숨바꼭질 할 때 기억나는 거 잊어마씨?

111035 #2 별로 없주게. 우리 어릴 때. 어릴 때 별로 안 놀아서. 우리 국민학교 일회주게. 일회라부난 옛날엔 저 막 크지 않았지게 학교가. 우린 별로 운동도 못하고 경해서. 경해영 뭐 그자 베떨락하고 그자 오주미로구나 영 오주미 오주미허는 거. 험벽행 속에 모살담양 영 행 하나씩 하나씩 하는거.

실뜨기

111036 @ 실뜨기 하셨지예? 실뜨기.

111036 #2 실뜨기 뭐신거?

111036 @ 실뜨기 영 손으로 하는 거. 그 실은 그냥 멘네로 하션마씨?

111037 @ 실뜨기할 때 어떤 속가락이 필요하주마씨?

111037 #2 그냥계 영 헤그녕 영 하면 되주게. 상손가락이 필요했주 가운데손가락. 거 실로 했주게 실로.

111038 @ 그럼 엄지손가락이랑 집게손락은 뭐해마씨? 실뜨기할 때.

111038 #2 뭐 다 썼주게. 새끼손라감나 안써. 별로 안 써.

111039 @ 새끼손가락은 뭐 하는 거 잊어마씨?

111039 #2 으.

공기놀이

111041 @ 공기는 어떻 준비헨마씨?

111041 #2 돌로 돌로. 조그만한 돌로 하주게.

111041 @ 어디서 봉가와마씨?

111041 #2 어디 땅에서나 봉강 해주게.
111042 @ 공기할 때는 순서는 어떻게 해주마씨?
111042 #2 게 영허영게 영 해그넝 게 땀주. 따.

고누

111044 @ 고누는 알아마씨?
111044 #2 고누가 뒤편거.

땅뺨기

111049 @ 땅뺨기는 알아마씨? 땅에다가 선 그영 땅뺨기 하는 건데.
111049 #2 그거 모르컨게.

웃놀이

111053 @ 웃가락은 어떻 만들언마씨?
111053 #2 나무로 만들었주게. 요새추록 나무로 만들영 했주게. 놀때 나무로 만들영 옛날 종지해그넝.
111054 @ 그럼 무슨 나무로 만들언마씨?
111054 #2 아무 나무라도. 아무 나무라도 해그넝 동글락하게 해서 솟이여 뭘 걸 났져. 영 던정 다 갈라지면 솟 엮어진 건 모.
111054 @ 하나는?
111054 # 걸. 두 개 엮어진 건 개.
111055 @ 종지랑 웃판은 뭘로 만들어마씨?
111055 #2 웃판은 이디서 게 종이 하나 가옴냥 해주게. 경행 옛날 종지로 영영 행 했주게.
111055 @ 그럼 종지는 뭘로 만들어마씨?
111055 #2 종진게 옛날 술잔 닳은 거. 그릇 그릇.

팽이치기

111059 @ 팽이는 옛날에 남자들은 어떻게 만들었주마씨?
111059 #2 깎아그넝 만들었주게. 저 나무로.
111061 @ 주로 무슨 나무로 만들언마씨? 주로.
111061 #2 그 땀 소나무밖에 더 잇어서. 소나무 깎아그넝 막 깎아그넝 팽이 만들영 쳤주게.
111062 @ 팽이 잘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되마씨?
111062 #2 그 끈을 막 잘 감아그넝 착하게 푸리면 막 오래돌주게.
111063 @ 팽이치기 할 대 팽이채는 어떻 준비해마씨?
111063 #2 가옴으로 가옴으로. 미녕으로 만들주게. 미녕으로.

굴렁쇠

111066 @ 굴렁쇠도 혹시 해보셨마씨?

111066 #2 굴렁쇠는 뭐라. 그거 아이들 했주. 그건 막 후에 한 거라. 그건 오래 사 안했주. 난 저것이 켈 재미있주. 이 텔레비 위. 낚시 하는 거 재미났주.

(깡)통차기

111069 @ 깡통차기도 해보셨마씨?

111069 #2 깡통차기 잘 안해신디.

‘빨기치기’

111072 @ 뽕이치기는 알아마씨? 어르신.

111072 #2 게. 뽕이 뽕당 내기했주게. 내기허연.

111073 @ 그건 어떻게해야 이기는거마씨?

111073 #2 이거 영 열어 몇 개냐 숫자 알면 뽕이를 내놔야지 숫자 맞으면. 맞지 않으면 안 내놓고.

111073 @ 뽕이는 어디서 구하셨마씨?

111073 #2 산에 새로 된 거 새로 처음에. 그 새에나 뽕이가 새에.

고무줄놀이

111075 @ 그럼 고무줄놀이는 해봤지예? 고무줄은 어디서 난마씨 옛날에는.

111075 #2 어떻게 게. 고무줄 할 때에 여자들 고무줄 했주게. 어디서사 나신지 고무줄 해그넵 그 지금은 무슨 짤랑 파는 거 닳은디.

111076 @ 고무줄 동작은 기억나는거 잇어마씨?

111076 #2 이 노래 부르멍 해서 고무줄 노래부르멍.

111076 @ 무슨 노래 불렀주마씨?

111076 # 몰라게 산토끼 같은 거 불렀주게.

줄넘기

111078 @ 줄넘기 해보셨마씨?

111078 #2 으. 그건 보통허지. 영 둘이 허영 영 넘어가고 했주게.

111076 @ 줄넘기는 어디서 난마씨?

111076 #2 그게 손으로 꼬아그넵 짹 해그넵 꼬아그네 게 영 둘이가 저디서 치고 이디서 영 치면 글로 획획 넘어가. 경했주게. 그 때 우리는 그거하고 고무줄 했주게.

그네뛰기

111080 @ 그네뛰기는 안했마씨?

111080 #2 안해연. 그네뛰기 잇어사하주.

‘한다리인다리’

111082 @ 한다리인다리가 뭐마씨?

111082 #2 한다리인다리 무신거 잊어부러신디. 다리들 영 패와. 경해났주게.

111084 @ 어떻게 승부를 가려마씨?

111084 #2 그 때 한다리인다리 무신거영 무신거영 행 딱 찍어.

12. 통과의례

출생

112001 @ 옛날에 태교는 어떻게 했주마씨?

112001 #2 물질허당 놔둬. 애들날 때 되면. 옛날에는 보리낭 위에서 나. 보리낭을 준비해여.

112001 @ 보리낭마씨?

112001 #2 으. 저 그 땐 가움이 어시니깐 아기 내치면 막 피 쏟아지주게. 계문 보리낭을 준비해 두었다고 아기 낳을 때 보리낭을 준비해방 그 위에서 아기 낳아서. 일하다강 어떤 사람들은 질에서도 낳아 애기. 우리 마을 사람 우리만한 사람 질에서 애기 낳아서.

112002 @ 어디서 보통 출산했마씨?

112002 #2 방안에서 했주게. 병원이 어디서게. 도와주는 사람 동네에 영 애기 낳을 대 오는 사람도 있고 경안하면 이녁냥으로 낳아야주게.

112002 @ 어르신은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엇언마씨?

112002 #2 별로 없었주 시어멍 이신 사람은 시어멍이 도와주고.

112003 @ 태와 탯줄은 어떻 처리해마씨?

112003 #2 물어 물어. 어디 가그녕 그 물어. 막은 방쪽 말고 막은 방이 있어. 남 막아 새에 이디가 막아. 올히는 서 막아서. 새해 나면 남 막아. 막은 쪽에는 안 가. 막은 쪽에가면 다신 아기 못 낳은다고 해서. 경해서 안 막은 쪽에 가서 물어 땅에.

112004 @ 산모만 이렇게 애 낳으면 기력 보충하려고 좋은 거 먹이는데 뭐 드셨마씨?

112004 #2 메역국했주게. 메역국.

112005 @ 아기 나오면 모역은 어떻 시켜마씨?

112005 #2 숙해영 숙 삶양. 쪽 삶아 이제도 경 숙 삶양 하면 피부가 예뻐. 숙 삶양 깨끗이 씻쳐.

112006 @ 깃저고리 알아마씨?

112006 #2 깃저고리는 그 저 베로 아기 난 때에 입히는 것이 베적삼이라고 아기마다 입혀. 베는 사락사락하난 이 그 몸이 막 굵어지라고 옛날 이제는 깨끗하게

뭐 모욕을 시켰주마는 옛날에는게 추운 때 낳으면 모욕도 못시키난 그거를 입혀. 이 피부 아무래도 좋게 하라고 입히는 모양이라 게 입혀난 한 칠일 동안 입혀. 경해났다가 그거 빨양 났다가 또 아기 낳으면 입히고. 경허여.

112007 @ 할망상이 뭐 말하는거마씨?

112007 #2 그 애기가 아프면 그 심방 돌아와그넝 할망상 뉘. 그 옛날엔 그 옛날에 할머니 애기 내우고 해서 할망이. 경허난 그 할망을 위하는 거라. 게 할망상 낳 할망한테 비는 거라. 채러그넝 심방 빌어당 그 할망신디 애기 잘 키와주고 아픈거 좋게 해줍서 비는 거라. 또 홍역있잖아 홍역 이젠 예방접종해부난 안허여. 홍역하는 데

그거는 남저라. 남저귀신. 애기는 할망이고 애기 귀신은 할망이고 그 홍역은 남저라. 남저가 이제 이 집안에 들어와 들어와서 그 홍역은 이제 같은 군대 갔다오는 거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허여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남자나 허면 그 남저귀신은 홍역할 때 막 흥을 잘 봐. 담배 피우, 그 애기 아픈 때 그 홍역할 때 담배 피우거나 고기 구우거나 그런 나쁜 짓 하면 막 아기 아파. 경허민 그 홍역상 뉘 막 빌어. 빌고 잘못허당 죽는 수가 있어. 그거는 이제 보난 저 열 막 나주게. 홍역할 때 그건 계난 잘못허면 죽는 거주게. 귀신이 이신지 어신지 병원 없고 허난 그 미신을 지경 살았주게. 경허난 우리도 애기 서이는 홍역해서. 그 다음에는 예방접종허난 안허고 그 전에는 세 명이 해서. 열 막 나고. 막 허여. 경허영 그거 사람마다 하는 모양이라 아무나. 그거를 예방하니깐 안햐서 지금은.

112008 @ 그 애 태어나면 머리털 맨 처음에 누가 언제 깎아마씨?

112008 #2 그거는 사월 초파일날 깎아. 아무라도 깎주게. 아무라도 사월 초파일날 깎아야 그 아이가 좋다고 해서.

112009 @ 천연두도 알아마씨?

112009 #2 그건 모르켄게.

112010 @ 출산할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는 뭐 있어마씨?

112010 #2 애기 낳그넝 한 삼일 전에 사람 잘 가지 말아야주게. 육지는 남저나면 고치 낳으면 줄 매어 사람 오지 말라고.

112010 @ 육지는 경 허는디 제주도는?

112010 #2 제주도는 그런 건 어서신디 조금 조심행 오지 않았주게.

혼례

112011 @ 옛날에 결혼식은 절차가 어떻 돼주마씨? 구식 결혼식은.

112011 #1 그 육지 식으로는 안했주게. 제주도는 특히나 이쪽에는 어렵고 해그넝 옛날 혼례도 간단하게 했주게. 육십년대 육십년대 전후 오십년대 후반 육십년대 초에는 그 옛날 식으로 결혼했고 양복 면사포 써서 신식으로 했는데.

112011 @ 그냥 절차하고 인사하고 어떻 되마씨?

112011 #1 옛날에는 육지는 신붓집에서 택일을 허주게.

112011 @ 예.

112011 #1 근디 여기는 남자가 그 여자 측에 청혼을 해서 거기에 나이를 생년 월일 받아다가 사주를 봐서 날짜를 정해그넝 신붓택에 보냈주게.

112011 @ 예.

112011 #1 그것이 남편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날은 보통 뭐 여러 가지 집안마다 다르주만은 가기 전에 대문에서 잘 갔다오겠다고 해서 신랑이 문전에 절 하고 이제 그 뭐냐 여기서 그 신부 데리고 올 사람 신부 들러리 할 사람도 하고 옛날엔 마을마다 신부름 하는 사람 잇어부난 그 사람이영 말을 잡양 갔주게. 심부름 하는 사람이 말을 끌고 신붓집에 가면은 이제 집안마다 여러 가지 있주게. 이녁 집안이 권위가 있으면 여러 가지 예장 들이는 대도 차이가 있주만은 보통 신랑 부모를 대신한 사람이 예장을 들여. 예장을 들이고 거기서 허락하면 상 받고 신부 가마에 태워 오면 끝이주게.

112011 @ 예.

112011 #1 여기 들어오면 신부가 어느 방향으로 앉으라는 것 까지는 정해져서.

112011 @ 예.

112011 #1 그 당시에는 어느 방향으로 밥상을 받아라까지는 정해져서. 육지는 닭도 놓고 행 하던데 여긴 그런 것은 없고. 어 이제 신식으로 양복입영 결혼할 때는 육십년대 후반 되면은 트럭을 이용했는데 그전에는 걸어서 하고.

112011 @ 옛날 결혼식은 절차에 대해 물어봐서.

112011 #2 우리 할 때도 우리 호끔 전이 우리 전에 그 때는 가메타고 했지. 우리 할 때는 신식으로 허연 사진 찍고.

112011 @ 그럼 구식 결혼식 기억나는 거 어서마씨?

112011 #2 게 가메타고 새서방은 물 타고. 그게 우리 동창 오빠가 이제 저 울오빠 이제도 기억나. 울오빠 이제 차로해그넝 결혼할거래. 우린 이디 학교고 우리 동창은 저 마을이고 오빠 신부는 이 마을이라. 게 일로 건너올거주게. 게난 막 그날을 기다려서 그 때는 차가 호끔 어려워난모양이라. 신식으로 할 거랜 자랑해서. 그 땐 신식으로 안하고 옛날 식으로 물 타고 허영 왔주게. 와난 밤에 행 여잔 새각시는 가메 속으로 넣고 이제 옛날은 하인이 있어서 하인 그런 사람들이 들링가. 경 물 타그넝 해냈주게. 신부 쪽에서 누구 왕 막 물어. 대답 잘 해사 해주게.

112012 @ 예전에는 중매가 많았지예?

112012 #1 그주게.

112012 @ 그럼 마을마다 중매 하는 사람이 잇언마씨?

112012 #1 아니 그런 사람은 없고. 보통 친척을 통해서 서로 소개를 받거나.

112013 @ 그럼 막편지는 뭐마씨? 막편지.

112013 #1 막편지가 몇 날 며칠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해그넝 신부측에 통보하는 걸 막편지라고 하는 거주게.

112013 @ 신랑이 신부측에마씨?

112013 #1 신랑댁에서 제주도는.

112013 @ 예.

112013 #1 육지는 신붓댁에서 택일하는데.

112013 @ 예.

112013 #1 여기는 신랑 쪽에서 신부 사주를 받아다가 서로 사주를 봐가지고 궁합이 맞으면은 언제 택일 궁합이 맞든 서로 통제도 하고 막편지는 어느 날 몇 시에 신붓댁에 신부를 데리러 오겠습니까하는 것이 막편지라.

112013 @ 신랑이 그 신부 부모님한테 보내는거마씨?

112013 #1 신랑 아버지가 신부 부모.

112014 @ 그럼 이바지는 뭐 하는거마씨? 이바지.

112014 #1 이바지음식은 신부댁에서 신랑집에 하는 건데. 거의 이바지음식 뭐 여기는 그런 거 했주. 신부댁에 갈 때 여기서 돼지 다리 하나를 신부 데리러 갈 때 가져가고 신부댁에서 당일 답례를 하는데.

112014 @ 예.

112014 #1 이바지라는 건 사실상 어 신랑이 신부댁에 하룻밤 장 올 때 신부댁에서 신랑집에 보내는 음식이주게. 이 우리 마을은 이 근방은 이바지음식 해난지가 우리가 알기로는 없었. 그렇게 어렵게 살아부난.

112015 @ 혼수도 마찬가지로 많이 안했겠다예?

112015 #1 혼수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불, 요. 그 때는 자식들 많이 나니깐 이불 요 네 채 정도 가져오면 잘 했다고 해시난.

112016 @ 그럼 예장은 뭐하는거마씨?

112016 #1 예장은 그 신랑아버지가 신부아버지한테.

112016 @ 예.

112016 #1 딸을 예장은 딸을 줘서 감사합니다 해서 신부를 데리러 가면서 옛날에는 신랑 아버지를 대신해서 친족 대표가 예장을 가져가주게. 옛날은 예장 때문에 다툼도 하영나서. 글자 하나 틀려도 싸우고 경해서. 근디 예장은 결혼 당일날 신랑 집에서 신붓집에 보내는거주게. 요즘은 쉽게 말행 거 함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함이랑 거의 비슷해. 함에다가 예장 낭 가는 경우도 있고. 개념은 함하고 틀릴 거라.

112016 @ 예.

112016 #1 여기는 그 함이나 비슷하겠다. 함 비슷한데.

112016 @ 예.

112016 #1 이 쪽은 함 거의 안써. 봉투에 문서만 담양가주게. 제주시나 저 쪽은 함에 뭐 예장도 써 놓고 거기 또 신부 예단 그런 것도 놓고 해영 하는디 여기는 함 제도가 거의 없어. 여기는 봉투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큰아들하고 댁의 딸하고 인사편지로 하는거주게.

112017 @ 가문잔치는 어 뭐하는거마씨?

112017 #1 가문잔치는 보통 결혼식 전날.

112017 @ 예.
 112017 #1 원래는 친족들만 모여서 잔치 하는 건데.
 112017 @ 그 큰 친족은 어느 정도까지마씨?
 112017 #1 옛날에는 뭐 팔촌이고 열촌이고 만약 가까운데 살면은 삼십촌이라도 성가 외가 이렇게 모여서.
 112017 @ 예.
 112017 #1 그 가문잔치 가족잔치를 했주.
 112017 @ 음식은 뭐 헐 먹언마씨?
 112017 #1 음식은 뭐 보통 먹는 거 그대로 돼지고기 쓰고 잔치 음식 그대로.
 112017 @ 결혼식 전날 하는거지예?
 112017 #1 으. 전날.
 112018 @ 그럼 우시는 언제하는거마씨?
 112018 #1 우시는 사람 얘기아니가?
 112018 @ 혼례할 때. 결혼할 때.
 112018 #1 결혼할 때 우시간다하면은 예를 들어 아버지 대신해서 가는 친족대표 거기 또 그 그 친족 대표 같이 가는 일행을 다 우시라고 그래.
 112019 @ 그럼 대반이나 중반은 뭐 하는거마씨?
 112019 #1 대반은 신붓방에.
 112019 # 예.
 112019 #1 신부를 맞이해서 모든 예를 총괄하는 사람이 대반이고. 중방은 신랑이 이제 그 신부를 맞으러 갈 때 신붓덕에 갈 때.
 112019 @ 예.
 112019 #1 신랑방에 모든 예를 담당하는 게 중방. 신랑을 안내하고 그 안에서 모든 신부 아버지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어떻게 하는 거 연락하고 모든 행사를 거 신랑방 안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중방이고. 대반은 신붓방에서 모든 예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반이고.
 112020 @ 예전에는 부조 뭘로헐마씨? 지금은 돈으로 하는디.
 112020 #1 옛날에는 좀 가까운 친족.
 112020 @ 예.
 112020 #1 한 육촌이나 팔촌 팔촌까지 그 때까지는 쌀 한 말. 먼 친척은 쌀 두 되. 요즘말로 한이 아니라 팔리터지. 가까운 친척은 팔리터. 먼 친척은 사리터. 게 그걸로 주로 허고 것도 그 요 중간에 난게 옛날에는 보리쌀로 하고. 쌀이 없을 때는 여하튼 보리쌀로 보리쌀이나 쌀이나 하여튼 가까운 친척은 팔리터 먼 친척은 사리터.
 112021 @ 암창개도 알아마씨? 암창개.
 112021 #1 한자로 안나와샤?
 112021 @ 암장개 누가 한 분 돌아가성 하는거마씨.

112021 #1 암장개는 남편이 남편이 만약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 군에 갔는데 휴가 올걸로 했는데 휴가 못 왕 결혼 못허는 거 그런 거 같은데.

112022 @사혼은 알아마씨?

112022 #1 아 사혼은 그.

112022 @ 보신적 있어마씨?

112022 #1 아 사혼 직접 시켜도 보고 했는데.

112022 @ 아 기짱?

112022 #1 그 사혼은 여기 그 후사를 잇기 위해서 게니간 조금 옛날에 양반 사농공상할 때 양반집은 한 십이삼세만 지남 돌아가면은 사혼을 시켜서 그 형제 간에 자식을 돌아간 형제 밑으로 양자를 보내서 하기 위해서 사혼을 시키는 건데.

112022 @ 예.

112022 #1 사혼은 절차나 예장행 가는 거나 우시 가는 거나 비슷한데 조금 그 엄격하지. 신끼리 결혼을 허는 거니간. 게난 후를 잇기 위해서 사혼을 하는 거라 후대를 잇기 위해서.

112023 @ 혼례할 때 금기사항 같은 거 있지않아마씨? 결혼하기 전에 몇 달전에 제사 가지 말아.

112023 #1 여기는 거의 없는데. 제주시는 복잡하더라. 무슨 장사집에 가지말아.

112023 @ 여긴 없어마씨?

112023 #1 여기는 요즘 우리 아이들 결혼 시킬 때 어제 친구 죽영 거기간 사람도 여기 오고 하난 게난 여기는 그런 것에는 앞섰다고 볼 수 이실거라.

상례

112024 @ 죽음을 맨 처음에 어떻 확인하지마씨?

112024 #1 지금은 영 하면 맥박 같은 거 보고 최종확인은 그 병원에서 안해서 옛날 옛날 여기는 숨을 여기 대보는거라. 숨이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은 아직은 살아있다고 해주게. 겐디 임종이 게니간 옛날에는 전설같이 내려온 말이지만은 다 돌아간 걸로 행 관에 입관해서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얘기도 있주게. 그것은 죽었당 산게 아니라 죽기 전에 관을 해버린거주게.

112024 @ 상 치를 때 누가 돌아가시면 누가 확인해마씨? 어떻 확인해마씨?

112024 #2 뭐실 죽으면?

112024 @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봐야하잖아예?

112024 #2 아니 이디선 누가 아프면게 친척이나 자식이나 봐야주게. 구들서 죽어가면 지키지. 언제 죽을 지 모르지. 았양 지키다가 돌아가면 뭐 동네 사람이 와서 옷 입히는 사람이 있어. 옷 입형 관에다가 넣주게.

112025 @ 복부르기는 어떻해마씨?

112025 #1 아. 혼 부르는 거주 혼.

112025 @ 그건 어떻하는거마씨?

112025 #1 아 게니깐 이제 그 돌아간 사람이 저 원래는 입관하고 끝난 다음에 복 부르는 거 혼 부르는거라해주게. 그건 세 번 허는디 그 겁나서 사람이 딱 해서 저승 찾아와서 데려와버리니까 혼하고 시신이 신체하고 영혼하고 몸이 따로따로 어 이제 있는 걸로 옛날은 생각해주게.

112025 @ 예.

112025 #1 딱 돌아가고 저승사자 왕 데리고가면 했는데. 이젠 모든 걸 갖추고 했으니까 혼이 돌아와그넝 시신에 시신에 돌아오십쇼 하고 부르는거주게. 게난 영혼하고 시신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합치는거주게.

112025 @ 복부르기는 어떻게마씨?

112025 #2 복부르기가 뭐라?

112026 @ 장지 마련은 예전에는 어떻게마씨?

112026 #1 장지는 요즘은 가족묘지 해주마는 여유있는 집 여유있는 집 있고 그 좁 명당 자리 보고 싶은 사람은 오일장 칠일장 하면서 정시 지관 정시 지관을 청해가지고 며칠 간 돌아다니명 장지를 봤주게. 장지를 봤는데 뭐 그 여유가 없는 사람은 뭐 그런데로 삼일장 오일장 해서 겐디 자기 밧 장지는 아무튼 간에 상주하고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남향으로 써야할 건디 북향 쓰거나 서향 쓰면 안된다고 해서. 지금도 택일하면 정시가 이분은 돌아간 분이 쥐띠니깐 어느 쪽은 쓰지말고 어느 쪽을 쓰라는 빛이 있주게. 정시 그 지관이 택일하고 그 사람 돌아간 사람이 맞춰 결정하는 게 장지도 마찬가지로.

112026 @ 장지를 마련해야하잖아예? 장지는 어떻게 마련해마씨?

112026 #2 정시 정시. 정시가 다 택일하고 묻을 자리를 다 그 사람이 택하지. 이제도 경허여. 이 동네는 저 마을 사람 데려다가 이 근처에서는 다 하지 그 사람 빌어당.

112027 @ 그럼 관이나 횡대는 어떻게 준비해마씨?

112027 #1 그건 옛날부터 옛날에는 있는 집안은 준비해놔뒀. 전부 짜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재료를 다 준비행 보관했다가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면은 목수 빌영 준비했던 재료로 관을 짚주게. 겐디 수의 같은 것도 게매 수의 같은 것도 돈 있는 거는 살아 있을 때 준비허주게. 보통 요즘은 장의사가 하니깐 돈만 있으면 다 돼는데 수의는 자기대로 만드는 사람이 많아. 상복들도 마찬가지로. 만들영 놔두는 사람도 있고.

112027 @ 관이랑 횡대는 어떻게 마련해마씨?

112029 @ 상장이나 짚동에 대해서 아시는거 잇어마씨?

112029 #1 상장?

112029 @ 예.

112029 #1 짚동은 저 상주 베개가 짚동이고.

112029 @ 아 베개가 짚동마씨?

112029 #1 상주 베개가 짚동이고 뭐 길이는 일정해여 요샌 워난 간소하난 사십

센치 미만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팔십센치 했는데 그걸 일곱동으로 묶어. 일곱동으로 계난 보통 일곱동으로 묶으는 게 전삼후사거든.

112029 @ 전삼후사마씨?

112029 #1 전삼후사. 사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삼년상 치르는 거라. 계난 전삼후산대. 상주데 두건에 건이 있잖아. 안에는 이렇게 대를 세개 놓고 뒤에는 네 개놔. 게니깐 전삼후사. 아까 짚동허고 뭐?

112029 @ 상장.

112029 #1 상장은 상례에 없는데.

112030 @ 그럼 두건과 복치마는 누구한테 줘마씨?

112030 #1 두건은 원래는 일반 두건은 친척들한테 가까운데 다 주는 거고, 복치마 같은 것도 요즘 광목으로 옛날엔 광목으로 만든 거는 사촌 오촌 주고. 바로 조카까지는 저 베로 만든 베로 만든 복치마는 이제 메누리나 딸 메누리 그런 식으로 가는거지. 두건도 상주 두건이 따로 있어.

112030 @ 두건이랑 복치마는 어떻 마련하고 누가 쓰주마씨?

112030 #2 복치마는 게 메누리나 딸이 입고, 두건은 친척들이 다 쓰는 거주게. 건대는 아들이 쓰고. 건대는 자식이나 딸이나 메누리 그런 사람들이 쓰고 두건은 친척들 쓰는 거.

112031 @ 상 났을 때 팔죽도 만들잖아예 팔죽은 왜 만드는거마씨?

112031 #2 그것도 방법으로. 굿 해나면 막 쫓 뿌려 굿 해놔도. 그 돌아갈 때엔 밥 사람들이 막 못먹어 사람 죽으니까 계난 쫓죽을 쑤어 먹는거라 죽을 쑤어 먹어.

112032 @ 성복제는 언제 하는거마씨?

112032 #2 죽으면 곧 허는 거주게.

112032 @ 성복제는 왜 하는거마씨?

112032 #2 성복제게 사람 죽었다해서 게 처음 햄주게 상 놓고게. 처음 시작하는 거주게.

112033 @ 일포제 지내잖아예?

112033 #2 일포는 딸이 하는 거라 일포는. 큰 딸이. 일포 허는 거는 딸이 하는 거주게. 옛날에는 경 허여. 지금에야 막 그대로 허주만은 옛날엔 딸이 해서.

112034 @ 부조랑 조문은 어떻해마씨?

112034 #2 그 게 저 영장할 대 쓸로해서 쓸로. 소상할 때는 떡 해가고 사람 죽으면 고적썰.

112034 @ 고적썰은 뭐 말하는거마씨?

112034 #2 권당게 그 혼말짜리도 있고 두개짜리도 있고. 가까운 친척은 혼말 먼 친척은 두 되. 쌀로. 소상 때는 떡 해가고. 떡으로 다 행 가고.

112035 @ 토신제는 언제 하는 거고 누가 하는 거고 왜 하는거마씨?

112035 #2 토신제는 산 묻젠허든 토신 이 땅 땅 곁앙 토신이랜허여. 땅 귀신을 이디 이제 묻겠습니다 허영 이제도 허여. 이제도 허여 토신제. 아니 그건 산제고 토

신제는 이 집 집잇어 허는 거. 아니 영장나지말고 토신제는 일년에 한 번 옛날에 해서. 토신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집 잘 지켜 달랜 하젠 해서. 영장 났을 때는 산제라고 해주게.

112035 @ 산제는 어떻게 하는거마씨?

112035 #2 산제는게 이 토신해서 시체를 놓겠습니다 허영 묻겠습니다 허영 경행 영장 할 때도 이 영장 허는 날도 산제허여. 오늘 묻습니다. 몇 시에 묻습니다. 다 끝나면 다했습니다하고 제 하고. 경허는거.

112036 @ 상여꾼도 부리잖아예.

112036 #2 상여꾼 영장 묻는 사람들.

112036 @ 누가 도와줘마씨?

112036 #2. 동네 사람들 빌영허지.

112036 @ 게믄 도와줬 고맙덴허영 뭐 줘야되지 않아마씨?

112036 #2 옛날에는 뭐 태와줘. 다 뭐 우리 전이 해갈 때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줬지. 맥여주기만허여. 그건 이 동네 사람 이 사람 죽으면 묻고 저 사람 묻으면 묻고 해서 젊은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도와주는거지. 내중에라하면 친척이나 영장 밧에 간 사람들은 난닝구도 주고 하난 그걸 태와부러서.

112037 @ 운상은 어떻게 해마씨?

112037 #2 운상은 게 그.

112038 @ 봉분은 어떻게 만들주마씨?

112038 #2 그 영 땅 팡 관 놔서 흑 놔냥 산에 있잖아. 다음은 때 해다강 때 해서 싸주게.

112039 @ 호충은 알아마씨?

112039 #2 골충 골충. 그 아니 골충 임자 없는 산.

112039 @ 골충은 뭐 하는거마씨?

112039 #2 그거는 게 영 산 물어도 자손이 죽어불거나 어디 미국 가불면 벌초 안하고 내부는 것이 골충이라.

112040 @ 장지에서 상여꾼한테 음식은 뭐 권마씨?

112040 #2 음식은 잘해줘야지. 상디꾼. 이제는 장의사들 빌영하주마는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저 몇 사람 막 불러와.

112041 @ 장제 때 특별히 수고한 사람들에게 뭐 주는거 잇어마씨?

112041 #2 옛날에는 안 줘서.

112042 @ 상식은 어떻게 헐마씨?

112042 #2 경행게 그 아까 죽으면 게 그 무시거 일포산지 무시거 하잖아. 그거 해냥 상 놓기 시작행 산에 강 상 놓고 집에 가져왕 상을 모셨주게. 상을게 이제 음식 해뵈주게. 조반 점심 저녁 음식을 해냥하는거주게.

112043 @ 삭망제도 해마씨?

112043 #2 삭망제는 게 이제 보름 초하루하고 해서. 초하루날도 저 멩질추록 지

내고 영 가까운 친척해영 보름날도 경해영 삼년을 하는 거라. 영장 끝나면 또 다음해 돌아오면 소상하고 또 다음해 돌아오면 대상하고 그 다음에부턴 제사 지내고. 경 초하루 보름을 하는 거라 이년 동안.

112044 @ 소상이나 대상에 대해서 옛날이랑 달라진 거 이시믄 곱아줍서.

112044 #2 다른 거 어서. 그냥 소상 대상 하느디. 지금은 안햐주게. 처음엔 대상 가지 하당 중간엔 소상까지 허당. 이젠 아무 것도 안하주게. 영장하면 상도 안하고 끝해그넝 이제 납골당에 가는 사람은 납골당에 가고 경 안 하는 사람은 묻고 가족 공동 묘지에 묻고.

112045 @ 토룡은 뭐 말하는거마씨?

112045 #2 토룡은 그 영 상지가 걸렘젠허여. 경허고 바쁘면 농사 때 되면 토룡했당 영장허여.

112045 @ 어떻게 하는 거마씨? 토룡은.

112945 #2 어디영 밧에 밧에 임시 묻엄주게 노람지 덮어그넝. 노람지 덮영 막 바쁠 때 죽으면 영장할 수가 없지 바쁠. 게면 토룡했당 한결허면 허고.

112945 @ 잠깐 묻었다가?

112945 #2 으. 혼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경 물어다가.

112046 @ 이묘는 어떻게 해마씨?

112046 #2 이묘게 그 묻엇당 묻엇다그넝 그 가족 공동 하젠하믄 이묘해왓주게 천리하는거라 천리 옛날엔 천리라해서. 천리를 해와야 묻는 거주게. 이디저디 묻엇던 거 천리해왕.

112047 @ 상복은 언제 벗어마씨?

112047 #2 대상 해나면 벗지.

112048 @ 상례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잇어마씨?

112048 #2 상처를 때말앙 영장 묻을 때 지금도 해여. 그 죽은 사람하고 맞지 않으면 보지 말랜. 그 자식이라도 그 죽은 사람 땅에 묻을 때 보지 말랜. 자식이라도 보지 말랜 맞지 아니하믄.

제례

112052 @ 제육은 뭐뭐 제삿상에 올리주마씨?

112052 #2 이제나 마찬가지로 생선하고 돼지고기하고 옛날엔 소고기 안해서 옛날엔 소고기 없었주게. 돼지고기만 허주.

112052 @ 생선은 뭐 안하는거어서마씨?

112052 #2 올리는건 게 생선허고 그 우럭같은 거.

112053 @ 적은 몇 종류 준비해마씨?

112053 #2 적은 게 한 가지. 게난 적 영 사람이 매지. 므물가루해그넝 적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저그넝 지정도 허고.

112054 @ 떡은 몇 종류 준비해마씨? 제삿상에 올릴 때.

112054 #2 그건 마음이라. 잘 차리는 사람은 막 여러가지 하고 못 차리는 사람은 한 두가지 하고.

112055 @ 과일 몇 종류 준비해마씨?

112055 #2 세 가지 허여 대게.

112055 @ 제주도에선 뭐뭐해마씨?

112055 #2 사과하고 미깡 배 세 가지.

112055 @ 그럼 몇 개씩 올려마씨?

112055 #2 그건 사람이 하여 올리는 사람 단단하게 행 올리고 경 안하면 세 개씩 올리고 경허주.

112056 @ 채소는 어떻 거 준비해마씨?

112056 #2 고사리는 꼭 해야지. 고사리 콩너물 미나리 경 세 가지주.

112057 @ 진설은 누가 해마씨?

112057 #2 남자들이 허지. 아들이. 이젠 아무라도 해 여자들도. 옛날에는 이 고기 것갈 하는 것도 남자들이해서. 여자들이 안허여. 남자들만 해서. 우리 할 대도 남자만 해서. 우리 중간에 살아갈 때는 여자들도 해서. 근디 우리 전에는 남자만 해서.

112058 @ 메랑 갯은 누가 떠마씨?

112058 #2 여자들 허지.

112058 @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각각 하는 거 엇언마씨?

112058 #2 시어명도 허고 며느리도 허고. 보통 며느리가 허지.

112059 @ 현관에 대해 아는거 알아줍서.

112059 #2 현관은 안 들어봐신디.

112060 @ 파제는 보통 몇시에 헨마씨?

112060 #2 열한시만 넘으면 그 다음날 되니까 열한시만 넘으면 제 지내주게.

112061 @ 문전제는 언제 지내마씨? 어떻게 지내마씨?

112061 #2 아무거나 해도 문전제는 제사해여. 이 문전에. 오늘 곶았잖아 남선비. 그건 제사 때도 처음에 해여. 이 상 차릴 때도 처음에 하고. 계난 처음에 이 집에 들어오젠하면 문전에 오지 경행 제사 할 때도 문전상부터 절 해영 제사 올리고 떡 올릴 때도 문전상부터 차려낵 하주게.

112062 @ 그럼 제반은 어떻해마씨?

112062 #2 제반이 뭐시라? 처음엔 떡하고 과일 올렸당 그 제사 시간 되가면 메해영 올령 제사 지내지.

112063 @ 지제는 언제 해마씨?

112063 #2 지제는 지금은 막 빨리 지제해부러. 옛날에는 할아버지 증조 고조 고조되면 지제해여. 지금은 하르방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 지제해 지금은. 옛날에는 고조까지 하고.

112063 @ 지제는 뭐마씨?

112063 #2 제사 안한다고 끝내부는거.

112064 @ 묘제는 어떻게마씨?

112064 #2 묘제는 옷대 할아버지한테 제사 끝나면 지체해볼면 다음은 묘제허지. 묘제. 삼월 초하루날이나. 우리 권당은 벌초하는 날 허여.

112065 @ 제사할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알아줍서.

112065 #2 제사할 때는 영장집에 가지 말아사. 영장집에 가지 말아야.

13 민간요법

113001 @ 이발할 때 머리에 뭐 나는 거 이신디 그게 기계총마씨. 그거 들어본 적 있어마씨?

113001 #2 기계로 깎긴해신디 그건 들어본적 어신거 닷다.

113002 @ 독창은 들어보셨마씨? 독창.

113002 #2 독창은게 허멸낭 허멸나면 허멸이주게. 주작 튀어 나와. 게문 옛이라고 해영 그 약처럼 맨들어그넝 하르방이 침 하는 하르방이 만들영 그걸 붙여 게문 구멍 얼른 하면 고치주게. 고름 나와볼문. 그 병원도 없고 해난게 의원 하르방이 그걸 약초에 막 삶아그넝 옛처럼 만들어 만들영 그거 발르문 좋주게. 그거 괴약이영 허주게 괴약. 만들어 괴약행 발르면 그것이 고름 터져.

113003 @ 머리에 요즘 아이들 어신디 하얗게 비듬 생기면 어떻게마씨?

113003 #2 그거 모욕을 잘 안해부난 깨끗이 안해부난. 그것이 비듬이주게. 비듬 그거 소금물에 축해영 자주 감으면 그것이 없어져.

113994 @ 초기 나면 낮게 하는 거 옛언마씨?

113994 #2 어서 어서.

113006 @ 얼굴에 막 그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여드름 나잖아예. 옛날엔 뭐 바르는 거 옛언마씨?

113006 #2 없었주게. 그냥 손으로 짜서.

113007 @ 옛날에 지미 나면 뭐 하는거 옛언마씨?

113007 #2 지미는 고치지 못허여. 그거는 아기 베면 지미 생겨 아기 가지면. 얼굴에. 계난 그것이 못 견뎌가난 지미 얼굴에 나는 모양이라 힘들어부난.

113008 @ 그문 주근깨 짜글짜글 나는 사람들 있잖아예. 그건 어떻 고천마씨?

113008 #2 그건 본래 경허여. 늙어가도 어떤 사람은 초기 나주게.

113010 @ 눈에 다래끼 날 대는 어떻게마씨?

113010 #2 거 무신거 해도 찢렸져마는. 보리로 해신가. 그것 킨아 개쫓이랜 하주게 아래 나는 건 개쫓이고. 아래도 나고 위에도 나.

113010 @ 아래나면 뭐마씨?

113010 #2 개쫓.

- 113010 @ 위에나면?
 113010 #2 개끗. 경 끝나아서.
- 113012 @ 이빨 아플 때는 어떻게하마씨?
 113012 #2 이빨 앓리면 쉼우리씨 하여. 부추열매 백상 그걸로 치료해나서.
- 113013 @ 혀에 뭐 나면 어떻게하마씨?
 113013 #2 세까지 일었잔하여.
- 113013 @ 세까지 일면 어떻게 없애마씨?
 113013 #2 혀는 건 어서. 내불면 좋주. 피곤하면 세까지 일어.
- 113015 @ 홍역 걸리면 어떻게하마씨?
 113015 #2 홍역 나면게 막 빌었주게. 뭐 약 없었주. 막 빌언. 심방해다그넝 할망 석하는 건 할망한테 비는 거고. 그 아까 곳을 할 때는 남저 남저귀신. 남저귀신한테 빌어.
- 113019 @ 여름에 땀띠 날 때 치료하는 방법잇언마씨?
 113019 #2 으. 땀두드레기 나주게. 찬물에 강 모욕하여. 바다에 강.
- 113028 @ 화상 입었을 때는 뭐 바르는 거 어서마씨?
 113028 #2 그 술 바르면 좋아. 술. 소주. 완전 좋아 이제도. 약이 필요 어서. 데 민소주 좋아부러.
- 113029 @ 동상은 안걸리지예?
 113029 #2 무사 아이들 걸리주.
- 113029 @ 동상 걸리면 어떻게하마씨?
 113029 #2 어떻게게. 그 아이들 양말 잘 안 신고 추운데 돌아다니면 막 부어.
- 113030 @ 옛날엔 감기 걸리면 어떻게하마씨?
 113030 #2 저 서가의외행 딸령 먹었주게. 하늘애기하고.
- 113030 @ 서가의외가 뭐마씨?
 113030 #2 영 외 닳은 거 잇어. 그거 딸령 먹고 수세미영 같이 먹었주게. 지금 도 약 될 거라 하늘애기하고.
- 113031 @ 기침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먹는 거 잇언마씨?
 113031 #2 그 콩나물 땡가리하고 배 놓고 해그넝 딸령 먹어. 지금도 텔레비 저 배허고 도라지 삶아 먹으라고 곶암신디 옛날엔 콩나물 땡가리 양쪽 데가리 그쳐당 그거하고 배 놔그넝 삶아 먹으면 막 좋아.
- 113032 @ 딸국질할 때는 어떻게 멈추게 하마씨?
 113032 #2 그건 영 겁나게 해볼면 좋아. 깜짝 놀라게 하면 좋주게.
- 113033 @ 코피 막 나면 뭐 하는 거 잇언마씨?
 113033 #2 코피 나면 손으로 막았주게. 코 심줄 콧줄이 끊어지면 경 피난데. 약 해부난. 운동 허는 아이들도 피 나고 피곤해도 나고 허주게.
- 113034 @ 목에서 가래 나올 때는 뭐 먹는 거 잇언마씨?
 113034 #2 서가의외하고 배 하고 딸령 먹으면 되주게

113039 @ 채했을 때는 어떻게마씨?

113039 #2 독발 사당 먹여. 그거 약이라고. 나가 어떻 행 바닷고기 주난 국 끓여 먹어난 걸어진거 닳아. 이젠 병원에 가도 어떻 안했던 채 내리러도 어떻 안 했던. 모슬포 시장 가서 나가 옛날엔 채 걸리면 아기들 독발 사당 먹였주게. 그 생각 낭 독발 캐왕 막 백상 참지름 섞엉 먹언. 누왕 자니까 뒷날 아침에 지침 나왕 가시 나완. 독발 막 약이랑게 먹어보난.

113040 @ 손 베이면 피나잖아예. 옛날에는 뭐 엇언마씨?

113040 #2 쪽으로 햄주게. 쪽이 되게 약이라. 쪽 허민 피나낭도 가두와. 피 안 나.

113042 @ 뱀한테 물릴 땐 어떻게마씨?

113042 #2 뱀 물리면 의원신디 가야주게.

113043 @ 벌 쏘였을 때는 뭐 다른 거 어서마씨?

113043 #2 벌 쏘였을 때는 새 씹엉 발라. 벌 쐬아도 그거 발라. 독똥도 바르기도 허여.

113045 @ 막 가다가 넘어지른 멍 드는데. 멍 드는데도 바르는거 잇어마씨?

113045 #2 돌에 넘어지면 돌을 귀그넝 올려. 돌을 불에 또똥하게 행 멍든 곳에 올려 그럼 좋아.

113046 @ 말 더듬는 사람한테 먹이는 거 잇어마씨?

113046 #2 그건 고치지 못하여. 본래 경 허는 건데.

113047 @ 허리 빠였을 때는 어떻게마씨?

113047 #2 개똥물 솥양 먹어. 개똥물. 개똥물 솥아그네 영 하룻밤 그릇에 놔. 하룻밤 이시른 그러면 개똥 냄새도 공기도 나가고 해서 그걸로 먹어 땀 내면 좋주게.

113048 @ 발목 빠였을 때도 개똥물 먹어마씨?

113048 #2 아니. 하늘내기 빨리 뽀사그넝 발라서.

113049 @ 귀에 물 들어갔을 때 하는 거 엇언마씨?

113049 #2 귀에 물 들면 찰라찰라 영 하면 나와.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1 @ 죽을 뻔 했던 일 곱아줍서.

114001 #2 난 창고에서 양과 잎성귀 밟았당 양과 잎사귀 밟았당 넘어정 파씩 꺾어전 이디가. 한 십년 전에 경해서. 한라의료원 강 불연 쇠로 행.

114002 @ 도깨비나 귀신 만난 적 잇어마씨?

114002 #2 난 도깨비 같은 거 안 봐나서. 옛날에는 이 마을이 막 물이 멀어. 물 지르다 놓는 디가. 물통이 머니깐 막 일찍이 일허기 전에 물을 질러왕 밧이 가야주게. 계난 뭐 도깨비도 나서라 막 곱아도 난 못 봐서.

114003 @ 어렸을 때 참외나 수박 해보신 적 있어마씨?

114003 #2 어서. 옛날엔 우리 마을 참외 수박 안해나서. 미깡도 안하고. 여긴 미깡 잘 안허여. 바람이 고산으로 바람 막 들이쳐. 바닷가에는 미깡 못허여 바람 때문에. 서귀포는 한라산이 막아주난 미깡해주게.

114006 @ 옛날에 살았던 거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마씨?

114006 #2 물도게 우리 마을은 물도 질러와신디 지금은 집 안에서 수도 나고. 이 불도 게 옛날엔 호얏불로 해신디 이젠 전기 들어왕 살기 얼마나 좋아서. 살기는 좋은디 노력은 더 해야허여. 노력은 왜냐면 돈이 많이 있어야 다 돈이라. 똥 싸는 것도 돈 물도 돈 뭐 다 돈이라부난 돈을 많이 벌어야 생활을 허는 거라. 게난 노력을 더 해야허여.

제2절 어휘

-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머리
201002	대가리	데맹이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
201005	제비초리	총대기머리
201006	머리털	머리터럭
201007	머리카락	머리꺼럭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줄르다
201010	빗[梳]	빗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참빗
201013	땡다	땡다
201014	비녀	빈네
201015	고수머리	꼬스락락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메
201017	쌍가마	쌍가메
201018	가르마	앞갈름
201019	이마	임탱이
201020	넓다[廣]	넙다
201021	이마빼기	*
201022	숨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양지
201024	낮[面]	낮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그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숫대양
201028	씻다[洗]	시치다
201029	거울	거울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빤	삐얌
201032	빤따귀	삐얌데기

201033	때리다[打]	때리다
201034	불	불
201035	불따구니	불따구니
201036	불거리	*
201037	광대뼈	불뼈
201038	보조개	보조개
201039	주름살	주름살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알
201042	검은자위	검은알
201043	눈꺼풀	*
201044	거적눈	*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지트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눈두세
201049	수침(垂針)	*
201050	거머리	거말
201051	폐롭다	폐랍다
201052	눈곱	눈곱재기
201053	눈초리	눈깍
201054	사팔눈	강개기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만지다
201058	콧마루	콧마루
201059	세다[強]	세다
201060	콧구멍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코딱지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따끄다
201064	콧수염	콧시염
201065	인중	인중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츄말
201069	거짓말	그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뒤달하다	뒤달하다
201072	입술	입바우
201073	헐다[毀]	헤싸지다
201074	입놀림	입놀림
201075	말하다	골다, 곧다
201076	입방아	입건지
201077	허풍	거자랑
201078	뇌다	*
201079	침[唾]	춤
201080	삼키다[吞]	숨키다
201081	가래침	게춤
201082	뱉다[吐]	바끄다
201083	느침	*
201084	턱받이	*
201085	혀	세
201086	활다	할르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늑
201089	앞니	앞늑
201090	송곳니	걸늑
201091	덧니	덧늑
201092	버드렁니	벌은늑
201093	어금니	어금늑
201094	사랑니	사랑늑
201095	옥니	*
201096	옥다[曲]	*
201097	돋다[出]	*
201098	옥물다	즈그물다
201099	턱	턱
201100	턱살	턱살
201101	뺨다[稍峽]	*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
201105	귓볼	귓볼
201106	귓구멍	귓고망

201107	귀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귀밥
201109	귀이개	귀오개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귀똥
201112	구레나룻	녹대수염
201113	목	목
201114	굽다[顛]	굽다
201115	모가지	모가지
201116	먹살	맥살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
201119	꼭뒤	*
201120	뒷덜미	뒷덜미

상체

201121	어깨	어깨
201122	어깨뼈	부체짱
201123	어깨죽지	*
201124	겨드랑이	즈갱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뚝
201127	새기다[刻]	*
201128	팔심	폴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득슬
201131	팔꿈치	폴곡지
201132	팔목(=손목)	홀목
201133	뼈	팡, 뼈
201134	뼈다귀	뼈다구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손
201137	오른손	오른손
201138	왼손잡이	웬팡이
201139	손등	손등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擧]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거슴, 거심
201145	할퀴다	극주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손고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노네기손가락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손가락트명, 손거림
201153	가슴	가심
201154	뛰다[跳]	뛰다
201155	젓가슴	*
201156	명치	멩치
201157	명자리	*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꼭지
201160	젓명울	젓명울
201161	짜다[攥]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베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똥
201167	옆구리	옆갈리
201168	갈비뼈	갈비짱
201169	등	등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매기	등어리
201173	가렵다[癢]	ㄱ렵다
201174	긁다[抓]	긁다
201175	결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
201177	찬물	찬물
201178	등마루	*

201179 등뼈 *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ㄱ는허리
201182 가늘다[細] ㄱ늘다
201183 엉덩이 엉덩이
201184 살집 살집
201185 볼기 *
201186 엉덩이뼈 엉치뼈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궁둥이뼈
201189 살 *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똥고냥
201191 더럽다[汚] 더럽다
201192 가볍다[輕] 게뻬다
201193 무겁다[重] 무겁다
201194 살 강알
201195 가래뿔 *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서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넓적다리
201200 무릎 독머리
201201 무릎뼈 독뿔
201202 뼈다[櫛] 뿔다
201203 정강이 정갱이
201204 정강뼈 정갱뼈
201205 종아리 종아리
201206 장딴지 주술
201207 오금 *
201208 복사뼈 구마리뿔
201209 발[足] 발
201210 걷다[步] 걷다
201211 굵다[凶] 굵다
201212 헛발질 *
201213 발목 구마리

201214	겹질리다	심트다
201215	발등	발등
201216	발바닥	발바닥
201217	발부리	*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근지럽다
201220	간지럼	즈곰
201221	발가락	발가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
201221-3	가운뎃발가락	상발가락
201221-4	넷째발가락	*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201222	발살	*
201223	까치눈	가메기눈
201224	티눈	티눈
201225	고린내	구렁내
201226	발톱	발굽
201227	발뒤축	발뒤치기
201228	쓸개[膽]	실개
201229	허파	복부기
201230	마음	므음
201231	곱다[麗]	*
201232	창자	베설
201232-1	큰창자	큰베설
201232-2	작은창자	족은베설
201233	목숨	목숨
201234	빼앗다[脫]	빼앗다
201235	한숨	훈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서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쁘다
202004	입덧	*
202005	낳다[媿]	낳다
202006	태(胎)	붓
202007	탯줄	베똥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므지
202011	갓난아이	물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어린아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의
202016	아깁다	아깁다
202017	아이보개	*
202018	업저지	*
201019	폼다	폼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
202022	오줌버캐	*
202023	오줌싸개	오줌쌌기
202024	누다[便]	누다
202025	나무라다	나무라다
202026	지린내	지린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꾸지럼
202029	배넛저고리	베넛저고리
202030	기저귀	지성기
202031	배두렁이	배부루기
202032	포대기	포대기
202033	보자기	보제기
202034	보따리	보따리
202035	풀다[解]	풀다
202036	끄르다	끌르다
202037	쳐네	뚜데기
202038	띠	띠
202039	개구멍바지	*

재통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좀매좀매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던데던데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짹짹
202045	부라부라	오들랑오들랑
202046	걸음마	걸음메
202047	걸리다	*
202048	곤두박질	*
202049	곤두서다	*
202050	가동가동	*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지다
202053	목말	정구게
202054	흉내	송구데기
202055	흉내질하다	숨구데기털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쌈
202058	자라다[成長]	자라다
202059	부아	부에
202060	참다[忍]	참다
202061	심술	심술
202062	밉다[憎]	밉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
202066	뺨지치기	뺨지치기
202067	통차기	*
202068	숨바꼭질	굽을내기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
202071	놀다[遊]	*
202072	실뜨기	실떼기
202073	풍계문이	*
202074	줄넘기	베뿔락

202075	줄다리기	줄등길락
202076	수수께끼	예숙제낄락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
202079	던지다[投]	던지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뺏기	*
202082	사금파리	사그마치
202083	말놀음질	*
202083-1	생말타기	*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
202085	달음박질	달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
202087	제기차기	쪽기차기
202088	혜엄치다	혜엄치다
202089	웃놀이	웃놀이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젓혀졌을 때	도
202090-2	개	두 짝 젓혀졌을 때	개
202090-3	걸	세 짝이 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젓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2	막동	*
202093	보리웃	*
202094	줄목	*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
202097	싸우다[鬪]	싸우다
202098	패싸움	범벅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듬치기

202100	편백하다	편백하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
202104	바람개비	바람개비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방패연
202107	가오리연	개오리연
202108	연달	*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
202108-2	공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
202108-3	긱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들고망
202110	꼭지	꼭지
202111	갈개발	*
202112	별이줄	*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별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별이줄	*
202112-3	공숫줄	연의 공숫구멍에 꿰어서 공숫달에 잡아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별이줄	*
202112-4	활별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처럼 잡아당기어 맨 별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별이줄	*

202113	얼레	얼레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쌍얼레
202116	감다[捲]	굽다
202117	개미[연놀이]	*
202118	퇴김	*
202119	그네[鞦韆]	굴메
202120	밀신개	널판
202121	굴렁쇠	굴렁쇠
202122	구르다[轉]	굴르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즈전거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키다리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선하우염
202129	기지개	기질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
202132	놀라다[驚]	놀레다
202133	졸음	조라움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졸리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소리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충이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하다
202144	트림	게트름
202145	딸꾹질	틀고지
202146	재채기	헛겅이
202147	개치네췌	*
202148	방귀	똥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푸기
202151	구린내	구렁내
202152	노린내	노린내
202153	사례들다	*
202154	감기	감기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구실
202157	학질	학질
202158	천연두	*
202159	곰보	곰보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
202163	두부백선	*
202164	옷	*
202165	버짐	버즘
202166	마른버짐	마른즘
202167	진버짐	진버즘
202168	주근깨	프리침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사막
202171	여드름	늦싸움
202172	명	명
202173	퍼렇다	퍼렁하다
202174	굳은살	굳은슬
202175	부스럼	*
202176	종기	종기
202177	습종	*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
202180	다대	*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굳인물
202183	낫다[癒]	낫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
202186	생인손	생손
202187	앓다[痛]	야트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두드레기
202190	소경	눈봉사
202191	칭맹과니	*
202192	면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
202194	사팔뜨기	사팔이
202195	다래끼	개씨, 개좃
202195-1		*
202195-2		*

202196	언칭이	얼챙이
202197	외언칭이	웨얼챙이
202198	쌍언칭이	쌍얼챙이
202199	귀떡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막쉬
202201	병어리	말모로기
202202	말더듬이	*
202203	혀짤배기	세다데기
202204	입비뜰이	입트레기
202205	구안패사	웨살풍
202206	가납사니	초란이
202207	곰배팔이	폴줄레기
202208	곱사등이	등곱새
202209	절뚝발이	발출레기
202210	얏은뱅이	얏은뱅이
202211	문둥이	용다리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방
203002	어머니	어멍
203003	아비	*
203004	어미	*
203005	할아버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망
203007	남편	서방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갓세
203010	싫다[厭]	실프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들
203012-1	큰아들	큰아들

203012-1	큰아들	큰아들
203012-2	둘째아들	둘째아들
203012-3	셋째아들	말젓아들
203012-4	막내아들	막둥이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
203012-6	둘째아들	*
203012-7	셋째아들	*
203012-8	넷째아들	*
203012-9	막내아들	*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원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심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원딸
203017	의붓딸	다심딸
203018	자식	즈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손
203021	어비딸	에비딸
203022	어비아들	에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의딸
203025	어이아들	의새끼
203026	말이	큰아들
203027	막내	막둥이
203028	형	성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성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동공아덜
203034	외딸	동공딸
203035	쌍둥이	쌍둥이
203036	다르다[異]	달르다

203037	같다[如]	ㄱ트다
203038	양자	양제
203038-1		*
203038-2		*
203039	처녀	처녀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사주보다
203044	중신	중매
203045	권당	퀸당
203045-1		*
203045-2		*
203046	얹은잔치	안팎잔치
203046-1	암창개	암창계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씨아방
203050	시어머니	씨어멍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멍
203053	외할아버지	웨하르방
203054	외할머니	웨할멍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아지방
203057	아주머니	아지방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
203060	꾸정꾸정하다	*
203061	살다[生]	*
203062	고로롱팔십	콜롱팔십
203063	병추기	*
203064	거동하다	*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지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딸엿손지
203069	친탁	*
203070	외탁	*
203071	내척	성펜
203072	외척	웨펜
203073	종내기	종네기
203074	시누이	시누의
203075	올케	아즈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방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멍
203080	조카	조카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하르방
203087	넋할머니	넋할망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90	홀어미	홀에미
203091	친아버지	원아방
203092	친어머니	원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심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심어멍
203095	웁딸	*
203096	누구	누계
203097	남[他]	남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ㄱ심
204002	꿌다	그치다
204003	명주	멩주

204004	명주실	맹주썰
204005	명주옷	맹주옷
204006	줄다[縮]	줄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썰
204009	닷새무명	닷세미녕
204010	옛새무명	옛새미녕
204011	생목	짓챇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숨	소계
204017	풀숨	맹지숨
204018	숨틀	*
204019	숨틀집	*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넛드래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
204024	번데기	*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잎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개뽕낭
204029	오디	*
204030	다듬잇돌	안반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담이마께
204032	펴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게꿈
204035	물거품	물게꿈
204036	빨랫돌	물팡
204037	빨랫방망이	서답마께
204038	빨랫바구니	*
204039	헝구다	헤우다
204040	빨랫줄	빨랫줄

204041	마르다[乾]	므르다
204042	바지랑대	*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들인다
204045	바래다[褪]	*
204046	형걸	험벽
204047	찢다[裂]	찢다
204048	나부랭이	므르레기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
204051	저고리	저구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멧자락
204054	풀치마	깍치메
204055	옷고름	*
204056	옷깃	*
204057	옷셔	옷셔
204058	단추	들멕이
204059	매듭단추	*
204060	동정	*
204061	소매	스메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폭
204066	두루마기	두루막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장중의
204069	토시	*
204070	누더기	누데기
204071	거지	거러지
204072	구두쇠	땡땡이
204073	잠방이	*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

204075	주머니	*주머니
204076	호주머니	계솔
204077	넣다[入]	넣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뽕족한 부분	*

204079	길목버선	*
204080	버선발	*
204081	대님	*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홀옷
204084	겹옷	줍옷
204085	솜옷	소게옷
204086	얹다	얹루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거죽
204091	홀이불	홀이불
204092	겹이불	줍이불
204093	사이	스이
204094	누비이불	*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푸솜
204097	홀칭	*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옷거죽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방석
204104	앉다[座]	아지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갯거죽
204107	베갯머리	*
204108	베갯모	*
204109	목침	*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
204113	병거지	병것
204114	밑짚모자	밑낭퍼랭이
204115	미사리	망
204116	짚신	짚신
204117	제총박이	*
204118	딴총박이	*
204119	미투리	미투리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나막
204122	가죽신	창신
204123	부르트다	복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
204127	부채	부채
204128	미선	*
204129	부치다[扇]	부치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짚고리	바놓상지
204131	가위	ㄴ새
204132	마르다[裁]	ㄴ르다
204133	골무	골메
204134	실	실
204135	실꾸리	실꼬리
204136	실패	실패
204137	바늘	바늘
204138	찌르다[刺]	찔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늘즐레
204140	바늘귀	바늘귀

204141	궤다	궤다
204142	깎다	*
204143	실밥	*
204144	접다	*
204145	곱치다	*
204146	휘잡치다	*
204147	재봉틀	미싱
204148	다리미	다리미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누르다
204153	씨아	*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썰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갈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 위하여 타 앉는 앉을개	*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
204153-5	씨아손	손잡이	*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

204154 물레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자세 *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두지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다
205007	빠다[湯水]	*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팥밥	팥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생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녕이
205016	눌은밥	누녕이
205017	더운밥	더운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파래밥	*
205020	밥보	밥체시
205021	밥술	밥순가락
205022	밥알	밥방울
205023	끼니	때
205024	늦다[晚]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일르다
205026	공밥	공밥
205027	눌다	눌다
205028	송늬	누녕이물
205029	화독내	그끄럭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낙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205036	국물	국물
205037	끓다[飢]	끓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팔죽	푼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국죽
205045	깨죽	빼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반찬
205048	테우다	테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늑물짐치
205051	무김치	늑뻬짐치
205052	열무김치	*
205053	물김치	물짐치
205054	나박김치	*
205055	갓김치	*
205056	파김치	패마농짐치
205057	깍두기	깍두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덥다
205060	간장	장물
205061	장물	*
205062	된장	웁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
205065	소금장수	소곰장시
205066	간	근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소곰ㅎ다
205069	콩나물	콩ㄴ물
205070	숙주나물	녹디나물
205071	무나물	눔뻬체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체
205074	고사리밥	*
205075	꺾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
205077	고비	*
205078	미나리	미나리
205079	부추	세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
205083	오이	웨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츄웨
205086	수세미외	스가웨
205087	말물	초물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간잘귀
205090	원두막	원두막
205091	갯잎	유잎
205092	고추	고추
205093	풋고추	풋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ㄴ르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악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입
205100	시들다	소들다
205101	더덕	더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침떡
205110	부스러기	보시레기
205111	송편	세미떡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고물
205114	도래떡	돌레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
205117	가루	ㄴ로
205118	국수	우동
205119	칼국수	칼국쉬
205120	삶다[烹]	슴다
205121	수제비	즈베기
205122	물다[淡]	*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붕지	붕다리
205127	과줄	과질
205128	옛기름	골
205129	감주	감주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탁베기
205133	붓다[注]	부수다
205134	기울다[傾]	자울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마시다
205137	준(罇)	추니
205138	엎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데

205140	술독	술항
205141	술심부름	*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싸다
205146	갑시다	*
205147	지짐이	지짐이
205148	누름적	*
205149	산적	적갈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제
205151	부엌문	정젓문
205152	불때다	불습다
205153	불등걸	*
205154	불뚱	불뚱
205155	부엌비	정제비차락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그스렁
205160	검댕	검댕이
205161	아궁이	아궁이
205162	재	불체
205163	모으다[集]	*
205164	부뚜막	화덕
205165	붓돌	솟덕
205166	숯	숯
205167	옹달숯	옹조리
205168	무쇠숯	무쇠숯
205169	끓다[沸]	*
205170	숯뚜껑	숯뚜껑
205171	숯귀	*
205172	숯전	*
205173	숯바닥	*
205174	숯밑	*

205175	솔검정	솔검뎡이
205176	부삽	부술
205177	군손	*
205178	군일	*
205179	살강	*
205180	부지깽이	부지뎡이
205181	짚방석	짚방석
205182	성냥	괵
205183	성냥개비	괵살
205184	성냥갑	성냥괵
205185	부시	*
205186	부싯돌	*
205187	부싯깃	*
205188	부시쌈지	*
205189	부시통	*
205190	등잔	각지
205191	관술	술각
205192	호롱	등피각지
205193	남포등	등피
205194	접싯불	접싯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가마
205199	뜯숯	*
205200	솔검정	*솔검뎡이
205201	불타다	불카다
205202	탄내	그시렁내
205203	불태우다	불태우다
205204	불티	불똥
205205	끄다[消火]	깎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청동화리
205209	봉당	*
205210	화룻불	화룻불
205211	불찌다	불초다

205212	화상(火傷)	덴그르
205213	부손	불순가락
205214	부젓가락	불집게
205215	다리쇠	적썰
205216	석쇠	석썰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
205217-2		*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피우다
205220	용고뚜리	*
205221	담뱃대	담뱃대
205222	빨다[吸]	*
205223	물부리	물부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통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떨이
205228	벼루	베루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
205232	주발	눗그릇
205233	사발	사발
205234	뚜껑	뚜껑
205235	접시	접시
205236	굽달이	*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간장종지
205241	숟가락	숟가락
205242	젓가락	젓가락
205243	수저통	수제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긧인물
205246	도시락	동고량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남비
205249	바가지	박세기
205250	박	박
205251	뒤옹박	*
205252	조롱박	*
205253	쪽박	좁박
205254	양푼	냥푼이
205255	조리	*
205256	단지	*
205257	뚝배기	*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룻마개
205260	시룻번	시룻마개
205261	경그레	*
205262	함지박	도고리
205263	바구니	바구리
205264	소쿠리	소코리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
205267	왕대	*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릿대	*
205270	굳은대	*
205271	무른대	*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물허벅
205274	뒤주	*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돔베칼
205278	빼다[拔]	빠다
205279	무디다[鈍]	*
205280	갈다[磨]	*
205281	숫돌	신돌
205282	날카롭다	늑실다
205283	행주	상삐

205284	번철	빙철
205285	국자	남자
205286	밥주걱	우굽
205287	죽젓광이	배수기
205288	수세미	상빼
205289	떡살	떡본
205290	밀판	떡판
205291	밀개	*
205292	소줏고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
205292-4	(받이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

205293	빚다	*
205294	풍로	*
205295	삼발이	삼덕발이
205296	달이다	딸리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골목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넓다[古]	늪다
206007	기와집	기와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막살이
206011	외채	*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박거리
206014	안팎채	안팎거리

206015	문간채	이뭇간
206016	결채	모커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팡
206021	헛간	창고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일르다
206024	마구간	*
206025	변소	도통
206026	부춘돌	드딜팡
206026-1	부출	*
206027	기척	*
206028	맞서다[拮]	맞사다
206029	냄새	냄세
206030	맡다[臭]	마트다
206031	울담	우жат담
206032	울안	우жат
206033	터알	우영팻
206034	가리	늘
206035	보릿가리	보릿늘
206036	짚가리	찍늘
206036-1	출늘	출늘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
206039	사닥다리	사다리
206040	이영	늑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여끄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퐁체
206043-1		*
206043-2		*
206044	디딤돌	*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마리
206047	마루문	마릿문
206047-1	‘호령창’	호령창
206048	마룻널	마릿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얇다	얇다
206053	구들직장	고망우럭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밧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천아반
206059	닿다[觸]	닿다
206060	윗바람	우풍
206061	안방	안구들
206062	방문	구들문
206063	비[帚]	비치락
206064	빗자루[柄]	비치락
206065	쓸다	썰다
206066	버리다[棄]	*
206067	바람벽	백브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스렁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알	*
206075	풀비	*
206076	찾방	*
206077	광	안방
206078	두다[置]	두다
206079	광문	안방문
206080	간수하다	가수하다
206081	안뒤곶	*

206082	지붕	지부
206083	함석	*
206084	지붕물매	*
206085	이다[蓋]	*
206086	평고대	*
206087	처마	가제
206088	처맞기슭	집지실
206089	낙숫물	지숫물
206090	땃돌	이잇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진흑
206093	찰흙	춘학
206094	흙덩이	흑덩이
206095	새벽	새백
206096	흙길	*
206097	이기다[沍]	*
206098	산자(撒子)	*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
206101	뿔기둥	*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지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
206106	보	*
206107	대들보	*
206108	반자틀	*
206109	귀틀	*
206110	외(椽)	*
206111	인방	*
206112	문설주	*
206113	문곶도리	*
206114	문열굴	*
206115	문틀	문골
206116	문머리	웃지방
206117	문흙	*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지갯문
206120	닫다[閉]	닫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3	창호지	창오지
206124	뛰창문	*
206125	구멍	고냥
206126	미닫이	밀문
206127	여닫이	*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덧문
206131	문틈	문틈
206132	돌쩌귀	도절귀
206133	암톨쩌귀	암토절귀
206134	수톨쩌귀	숫돌철귀
206135	문고리	문걸세
206136	배목	*
206137	괘	괘
206138	열다[開]	열다
206139	장식	장식
206140	자물쇠	통쇄
206141	열쇠	열쇄
206142	부수다[碎]	*
206143	서랍	설합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
206146	거도	*
206147	틀툽	*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
206150	옥자귀	*
206151	노루발장도리	*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거린장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마괘
206158	대패	데피
206159	개탕대패	홈미리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루다
206162	굽자	굽은자
206163	먹통	*
206164	먹줄	*
206165	먹칼	*
206166	흙손	*
206167	쇠흙손	*
206168	나무흙손	*
206169	흙받기	*
206170	돌물레	*
206171-1		*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농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어염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드로
207006	병작(並作)	병작
207007	갈다[耕]	글다
207008	쟁기	쟁기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주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무클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곤게 선 나무	설깃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호령못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쇧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쇧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
207008-9	‘뚝’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뚝

207009	육보다	속다
207010	겨리	*
207011	벧밥	*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밧머리	명에질
207014	밧두둑	밧두둑
207015	밧고랑	밧고랑
207016	밧이랑	밧이렁
207017	거웃	고지
207018	극쟁이	글쟁기
207019	씨레	*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뾰족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팽이	팽이
207022	곡팽이	곡팽이
207023	과다[堀]	과다
207024	쇠스랑	쉐시랑
207025	삽	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글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
207031	백씨	웹씨
207032	뿌리다[撒]	뿌다
207033	망태기	망챙이
207034	꿍계	그서귀
207035	남태	*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벌
207040	두벌매기	두불검질
207041	세벌매기	*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
207043	호미	굴갱이
207044	홍아기	선비소리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삯	품삭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중석
207050	품앗이	수눌음
207051	삼태기	굴체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
207052-3	낫쟁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빼기	어욱
207055	새끼	스끼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막작

207058	노	노
207059	끈	끈
207060	참바(바[索])	*
207061	짐바	*
207062	질빵	*
207063	잇다[承]	*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둥산 모양의 나무	*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
207066-5	둥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207066-6	경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
207066-7	경거리끈	경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
207066-8	경거리막대	경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
207066-9	배뎛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

207067 멩에 멩에

207067-1	목대	멩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
207067-2	붓줄	멩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
207067-3	한태	붓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
207067-4	(오리목)	붓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
207067-5	비겨미	붓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붓줄에 꿰는 막대기	*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켓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
207068-2	지켓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뻗어 나간 가지	*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
207068-4	지켓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
207068-5	지게꼬리 (밀뼈)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
207068-6	지켓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

207069 바지게 *

207070 밭채 *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이삭

207072-1 *

207073 짚 짝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

207076 벼훅이 나록클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

207078 타작하다 태작하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진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짓먹은힘

207083 겨를 *

207084 도리깨 도끼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끼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

207085 여물 출

207086 쭉정이 죽쟁이

207087 꿀 출

207088	꼴뻓	출뻓
207089	꼴꾼	출눓
207090	꼴단	출뭇
207091	신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마차
207093	복두	*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덕석
207096	거적	거적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 체)	ㄱ는체
207099	굽은체	굽은체
207100	말총체	총체
207101	챗바퀴	*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래미	얼멩이
207104	키[箕]	*
207105	키질	*
207106	까불다	*
207107	드리다	*
207108	‘솔박’	*
207109	풍구	푸는체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
207112	되	뉘
207113	관되	*
207114	사삿되	*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
207115-2	모말	*
207116	가웃	*
207117	굵다[不充滿]	*
207118	고무래	당그네
207119	불당그래	*
207120	떡등구미	*
207121	가마니	가멩이
207122	끗다[引]	끗다

207123	곡식	곡식
207124	홀다[散]	허끄다
207125	자루[袋]	*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게으름	게으름
207129	노라리	*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밭
207132	누리다[黃]	노랑치
207133	밟다	블르다
207134	까끄라기	ㄱ스락
207135	보리쌀	보리쌀
207136	보릿겨	보리체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술보리
207139	맥주보리	겉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짚
207141	매끼	무께미
207142	감부기	감비역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팏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원조
207148	슈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
207151	비비다	부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제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짚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범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멧자리
207159	맛벼[山稻]	산뒤

207160	맞벼 이삭	산뒤 이삭
207161	맞벼밭	산뒤밭
207162	맞벼쌀	산뒤쌀
207163	맞벼짚	산뒤짚
207164	맷돌	그레

207164-1	맷돌짜	맷돌의 위아래 돌	*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짜	*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짜	*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짜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짜 한가운데 박힌 물건	*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

207165	맷방석	*
207166	매함지	*
207167	풀맷돌	*
207168	풀매	*
207169	썰기	*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남방에
207171-1		*
207171-2		*
207171-3		*
207172	방아확	방엿혹
207173	방앗간	방앗간
207174	븀비다	부피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
207177	연자매	*
207178	방앗돌	*
207179	연자맷간	*
207180	절구	방에
207181	절곳공이	절곳대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늪	늪
207184	고르다[擇]	골르다
207185	씹다[嚙]	*
207186	겨	*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잎
207189	기름콩	*
207190	콩깍지	콩깍지
207191	콩짚	콩짚
207192	꼬투리	*
207193	두부	두부
207194	두붓물	두붓물
207195	뜨겁다	*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주생이
207198	완두	보리콩
207199	강낭콩	강낭콩
207200	동부	뚝비
207201	팥	팥
207202	팥알	팥방울
207203	팥밥	팥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꽤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참지름
207208	갯묵	*
207209	고소하다	코시롱ㅎ다
207210	메밀	모멸
207211	메밀밭	모멸밭
207212	나깨	*
207213	메밀껍질	모멸체
207214	메밀국수	모멸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모멸츠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모멸칼국수
207217	메밀떡	모멸떡
207218	메밀묵	모멸묵
207219	무르다[軟]	물르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절간감저
207222	찌다[蒸]	*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지실
207225	마늘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
207225-3	마늘종	마늘종
207226	마늘장아찌	*
207227	파	패마농
207227-1	파밀동	*
207228	무	늪삐
207229	무청	늪삐입사귀
207230	시래기	씨래기
207231	장다리무	*
207232	열무	*
207233	배추	늑물
207234	고갱이(배추)	늑물동지
207235	나물	*
207236	채소	채소
207237	겉대	*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낭재죽
207240-1	옥수수	강낭대죽여물
207241	수수	대죽
207242	쌀수수	찰대죽
207243	비목수수	빃대죽
207244	사탕수수	세당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낭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녀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옷	물옷
207249	물안경[水鏡]	물안경
207249-1		*
207249-2		*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빗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뜰채	족바지
207256	그물	구물
207257	돛단배	돛배
207258	이물	*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
207259	고물	*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
207260	돛	돛
207261	마룻대(돛대)	돛대
207262	마룻줄(용충줄)	돛줄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노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놋구멍	*
207273	놋줄	*
207274	돛	돛
207275	돛가지	*
207276	돛줄	돛줄
207277	돛돌	돛돌
207278	돛걸이	*
207279	키[舵]	치
207280	킷구멍	치통문
207281	키잡이	치잡이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
207284	떼[浮筏]	떼

기타

207285	이웃	이웃
207286	더불다[與]	더불다
207287	마을	마을
207288	고을[村]	고을
207289	누리[世]	세상
207290	윗마을	웃드리
207291	옮다[移]	움다
207292	아랫마을	아랫마을
207293	마을가다	마을틀다
207294	밤마을	밤마을
207295	가게	가게
207296	구멍가게	고망가게
207297	다녀오다	댕겨오다
207298	심부름	부름씨
207298-1	부름씨	*
207299	잔돈	잔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주리
207302	있다[有]	있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남지기
207307	홍정	홍정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벤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왕
207313	풀무	불미
207314	손풀무	손불미
207315	모루	*
207316	모루채	*

207317	갓양태(양태)	양태
207318	망건	망근
207319	망건골	망근골
207320	탕건	*
207321	결다[編]	*
207322	사냥	*
207323	사냥개	*
207324	사냥꾼	*
207325	쏘다[射]	*
207326	꿍잡이	꿍바치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코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누누다
207331	갖다[持]	앗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서이
208001-4	(4)	너이
208001-5	(5)	다섯
208001-6	(6)	여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여덟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수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여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	*
208005-2	(2/두)	*	*
208005-3	(3/서, 석)	*	*
208005-4	(4/너, 녀)	*	*
208005-5	(5/닷)	*	*
208005-6	(6/엿)	*	*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	*	*
208006-2	(2-3/두세)	*	*	*
208006-3	(2-3-4/두서너)	*	*	*
208006-4	(3-4/서너)	*	*	*
208006-5	(4-5/네댓)	*	*	*
208006-6	(5-6/대여섯)	*	*	*
208006-7	(6-7/예닐곱)	*	*	*
208006-8	(7-8/일고여덟)	*	*	*
208006-9	(8-9/여덟아홉)	*	*	*

208007 여남은 여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 208009 뺨 뺨
 208010 집게뺨 *
 208011 발[單位] *

208012 밍다 *

208013 필(무명/명주) *

208014-1 *

208014-1	무명	미녕
208014-2	명주	멩주
208014-3	광목	*
208014-4	베	베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

208016 못 무생이

208017 묏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

208019-1 *

208020 조짐 *

208021 바리(종류) *

208021 *

208021-1	보리	보리
208021-2	조(이삭 있음)	조
208021-3	콩	콩
208021-4	밭벼	산디
208021-5	꼰	출
208021-6	띠	걸레
208021-7	각단	*
208021-8	어욱	*

208022 모금 *

208023 섬 *

208023-1 *

208024 덩이 *

208025 포기 포기

208026 그루 그르

208027 돌이(양태) *

208028 마리 *

208028-1 두[頭] *

208028-2		*
208029	축	*
208030	쾌미	*
208031	쌍(돼지)	*
208032	채(집)	*
208033	장(무덤)	*
208034	컬레(신)	*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못	*
208037	죽	*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아이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신할망
209004	깃저고리	봇땃옷
209005	배냇머리	*
209006	돌	돌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스방
209009	가마	가마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딸풀다
209012	장가가다	장게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아들풀다
209014	함	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테반
209017	신부상	신부상
209018	휘다[樛]	휘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주
209021	사돈	사돈
209021-1	안사돈	안사돈

209021-2	바깥사돈	맞사돈
209022	곁사돈	가지사돈
209023	상갓집	영장집
209024	수의	초상옷, 호상옷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상주
209028	말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
209031-2		*
209032	짚동	*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고에 간다
209035	뒗자리	*
209036	지관	*
209037	패철	*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여
209040	보장(寶帳)	*
209041	계(契)	*
209042	상뒤꾼	상뒤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영장밭
209045	광중	개광
209046	횡대	*
209047	호충	소피
209048	무덤	산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
209053	마치다[終]	*
209054	벌초	벌초
209054-1	소분	*

209055	묘위전	*
209056	고총	골총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갯집
209059	편틀	*
209060	퇴물	*
209061	메	메
209062	갱(羹)	게영국
209063	제육	제육
209064	제편	지편
209065	인절미	인절미
209066	절편	절변
209067	웃기떡	웃기떡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테우다
209070	몹	*
209071	면례(緬禮)	천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설날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
209075	걸립	*
209076	금줄	*
209077	매다[結]	메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
209080	팽과리	*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살구침
209085	추석	팔월멩질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밭
210008	명두	*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사르다
210012	살(煞)	살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살방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체비
210016	허깨비	헛것
210017	어둑서니	그슨새
210018	무섭다	막섭다
210019	겁쟁이	겁쟁이
210020	고사(告祀)	코시
210021	고수레	케우진다
210022	포제	포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들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에
211004	불다[點火]	부트다
211005	내[川]	*
211006	넷가	*
211007	물가	*
211008	따르다[從]	*

211009	건너다[渡]	*
211010	낭떠러지	*
211011	다리[橋]	다리
211012	가깝다[近]	기깝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불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불
211015	돌무더기	*
211016	갈림길	*
211017	묻다[問]	묻다
211018	비탈길	*
211019	벼랑길	*
211020	내리막길	내리막길
211021	오르막길	오르막길
211022	길가	길가
211023	큰길	큰길
211024	분화구	*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
211028	산바람	*
211029	산꼬대	*
211030	상고대	*
211031	구렁	*
211032	고랑창	고랑창
211033	건너가다	건너가다
211034	넘어지다	푸더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
211037	숲	*
211038	성(城)	*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바닷가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바당브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트다
211045	물먹다	복쟁이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자갈
211049	갯가	갯가
211050	펼	*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돏소리	*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너울
211056	굵뉘	문둥절
211057	물결	물결
211058	잔물결	사스레기
211059	무수기	물끼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10일
211059-2	두무날	*	*
211059-3	서무날	*	*
211059-4	너무날	*	*
211059-5	다섯무날	*	*
211059-6	여섯무날	*	*
211059-7	일곱무날	*	*
211059-8	여덏무날	*	*
211059-9	아홏무날	*	*
211059-10	열무날	*	*
211059-11	열한무날	*	*
211059-12	열두무날	*	*
211059-13	(열서무날)	*	*
211059-14	아끈첼기	*	*
211059-15	첼기	*	*
211059-16	한조금	*	*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든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쌀물	쌀물

시후

211066	오늘	오널
211067	내일	내일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넬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저녁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게
211074	그끄저께	그끄지게
211075	새벽[曉]	새벽
211076	꼭두새벽	동새벽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빛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
211083	초저녁	초저녁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
211090	별	*
211091	은하수	은하수
211092	달	달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달머리
211095	초승달	초승달
211096	보름달	보름달

211097	그믐달	구믐달
211098	햇무리	*
211099	무지개	*
211100	쌍무지개	*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가을
211104	겨울	겨울
211105	입춘	입춘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구믐

211110-1	하루	흐르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단세
211110-6	엿새	엿세
211110-7	이레	일워
211110-8	여드레	여드레
211110-9	아흐레	아으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댓새	너닷세
211113	대엿새	대엿세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
211119	선달	선들
211120	올해	올히
211121	내년	내년
211122	내후년	내후년
211123	작년	작년
211124	재작년	재작년

날씨

211125	별	벳
211126	별살	벳살
211127	따스하다	뜨뜻흐다
211128	땡볕	즈작벳
211129	가을볕	ㄱ을벳
211130	양지받이	벳남석
211131	아지랑이	*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
211137-2	바람아래	*
211138	맞바람	*
211139	바람받이	*
211140	바람살	*
211141	회오리바람	*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마파람
211144	서풍	갈브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살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풀돋잇마
211149-2	가을장마	ㄱ슬장마
211150	곰팡이	곰쟁이
211151	소나기	쏘나기
211152	여우비	지나가는비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시원ㅎ다
211156	도롱이	츄쟁이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ㄱ뭄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바람
211161	안개	안개
211162	번개	번개
211163	천둥	처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함박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스라기눈
211170	도둑눈	아이모른눈
211171	내리다[降]	내리다
211172	희다	희다
211173	춡다	춡다
211174	떨다[慄]	떨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곱다	곱다
211180	진눈깨비	눈비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저껏
211185	옆	옆
211186	위	우희
211187	아래	알
211188	밝다[明]	붉다
211189	어둡다[暗]	어둡다
211190	왼쪽	왼쪽
211191	오른쪽	오른쪽
211192	밑	밑
211193	흐르다[流]	흘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밖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서리
211198	가[邊]	가
211199	가장자리	가쟁이
211200	가운데	가운데
211201	곧다[直]	곧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쉐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쉐
212004	수소	숫쉐
212005	흰소	*
212006	불까다	불까다
212007	불알	붕알
212008	황소	황쉐
212009	얼룩소	얼룩쉐
212010	부리망	망울
212011	쇠고삐	쉐늑대
212012	끌다	끌다
212013	송아지	송아지
212014	배넛소	벵작쉐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룻(1)	*	*
212015-2	이듭/두듭(2)	*	*
212015-3	사룻(3)	*	*
212015-4	나룻(4)	*	*
212015-5	다듭(5)	*	*
212015-6	여듭(6)	*	*
212015-7	이룻(7)	*	*
212015-8	여듭(8)	*	*
212015-9	아듭/구룻(9)	*	*
212015-10	열룻/담불(10)	*	*

212016	작두	작도
212017	쇠죽	쉐죽
212018	구유	구시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암말
212023	수말	숫말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레물
212026	청총마/총이말	청총이
212027	절따말/적다마	*
212028	얼룩말	얼룩물
212029	유마	*
212030	백마	흰물
212031	고라말	*
212032	곰배말	*
212033	조랑말	조랑물
212034	달리다[走]	들리다
212035	마소	물ㅁ쉬
212036	글경이	글쟁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물무젤미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비리
212048	비루먹다	비리올르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코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녕이
212053	살쾅이	식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수득
212057	멀떠구니	*
212058	산떡	*
212059	닭의어리	들꼬달
212060	닭장	득망
212061	달걀	득세기

212061-1	노른자위	노린알
212061-2	흰자위[卵]	흰알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빙아리	빙아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수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ㅎ다
212069	가르다[分]	가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شم씨	일성머리
212072	생둥이	서툰바치
212073	새끼 돼지	죇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통제
212075	돼지고기	도새기고기
212076	적	적갈
212077	적꼬치	적고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관(푸줏간)	*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시랭이
212081-1	둘암소	지시랭이췌
212081-2	둘암말	지스렁돌
212081-3	둘암돼지	지시랭암툫
212081-4	둘암개	지스랭이개
212082	거위	계위
212083	오리	올랭이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
212087	취슬다	*
212088	가시	가시
212089	구더기	똥버랭이
212090	취파리	취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ㄱ다귀
212096	장구벌레	장글레비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
212099	이[蟲]	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훤이	쉬챙빃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
212103	거머리	거말
212104	바구미	돛보리
212105	콩바구미	*
212107	땅강아지	하늘강생이
212108	그리마	검수에기
212109	쥐며느리	*
212110	노래기	구레기
212111	지네	지냉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다	진쉬지다
212114	하루살이	사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
212116	달팽이	들벙이
212117	민달팽이	*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미
212120	왕개미	왕게미
212121	불개미	노린게염지
212122	메뚜기	만축
212123	방아깨비	산뒤말축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각취기
212126	귀뚜라미	공쟁이
212127	풍뎅이	풍뎅이

212128	장수풍뎡이	하늘썩
212129	무당벌레	*
212130	쇠똥구리	*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집제기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노린재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심방나비
212137	날다[飛]	날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산태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잠자리
212141	장수잠자리	장수잠자리
212141-1		
212142	매미	매미
212143	매미허물	매미뿔
212144	말매미(왕매미)	*
212145	쓰르라미	*
212145-1		
212146	소금쟁이	소금바치
212147	방개	방개
212148	반딧불이	불란지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청벌
212151	꿀	청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사상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진독
212155-1		
212155-2		
212156	송충이	송충이
212157	개구리	가개비
212158	올챙이	강배록
212159	맹꽁이	맹꽁이
212160	두꺼비	두체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띠
212161-2	뱀허물	베염옷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띠
212163	도마뱀	독다귀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들짐승

212166	여우	여시
212167	노루	노루
212168	염소	염소
212169	토끼	튀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쥐
212172	값다	굽다
212173	쥐구멍	쥐구녕
212174	박쥐	박쥐
212175	다람쥐	드라미
212176	오소리	오소리
212176-1		
212177	지달(이)	*
212178	지달피	*
212179	멧돼지	산토세기
212180	원숭이	원생이
212181	원숭이띠	원생이띠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호랭이띠
212184	꼬리	꼬리

날짐승

212185	새[鳥]	새
212186	꿩지	꿩지
212187	깃[羽]	깃
212188	새총	늘애기
212189	새가슴	독가심

212190	참새	참새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
212195	솔개	*
212196	까치	간치
212197	까마귀	가마귀
212198	딱따구리	남도래기새
212199	삿꾸기	버꼭새
212200	종달새	종조리
212201	올빼미	올빼미
212202	평	평
212203	까투리(암평)	까도리
212204	장끼	장평
212205	평알	평독세기
212206	꺼병이	평비아기
212207	두루미	하기새
212208	기러기	기레기
212209	갈매기	갈매기

바다 동물

212210	고등	보말
212211	개울타리고등	*
212212	명주고등	뎡쟁이
212213	눈알고등	돌보말
212214	밤고등	먹보말
212215	팽이고등	수두리
212216	각시고등	심방ㄹ메기
212217	두드럭고등	*
212218	대수리	마타살
212219	타래고등	가마귀보말
212220	대롱빨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북손	대오살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
212225-1		
212226	진주담치	가마귀부리
212227	소라	구제기
212227-1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212228-2		
212229	전복갑	전복껍데기
212230	오분자기	오분제기
212231	계	강이
212232	바위계	지름강이
212233	부채계	돌갱이
212234	엽낭계	*
212235	참계	춤강이
212236	꽃계	꼭갱이
212237	소라계	계틀레기
212238	그물무늬금계	*
212239	집게발	아강발
212240	갯강구	밥계
212241	말미잘	말미잘
212242	성계	구살
212243	말뚝성계	슴
212244	군소	굴멍이
212245	새우	새위
212246	불가사리	고냉이방석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
212248	해파리	물췌기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물꾸럭
212251	서대	서대
212252	해삼	해삼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닷고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흐리다
212257	잘다[細]	잘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베카다
212261	생선(生鮮)	생선
212262	미끼	미끼
212263	갯지렁이	게수리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숫대	낙숫대
212266	만들다[造]	만들다
212267	낙숫줄	낙숫줄
212268	붕돌	뿡돌
212269	참대	츄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
212272	주낙배	*
212273	지느러미	늘개
212274	아가미	구생이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보리멜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
212279	베도라치	베들레기
212280	말뚝망둑어	붓벨레기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렁놀래기	*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옥돔
212288	흑돔	*
212289	돌돔	돌돔
212290	감성돔	검은돔
212291	벙에돔	*
212292	황돔	보리돔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212294	고등어	고등어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에
212299-1		
212300	불바리	*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취치	객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
212307	독가시치	*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가다리
212310	상어	상에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괭이상어	*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곰세기
212321	귀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무낭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가라지
--------	-----	-----

213002	갈대	꿀대
213003	억새	어옥
213004	새품	어옥꽃
213005	화승(火繩)	*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
213008	길차다	질차다
213009	빨기	뺑이
213010	사초	상고지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췌터럭
213013	쇠무릎	*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
213016	조개풀	북제완지
213017	방동사니	산뒤삼촌
213018	마디풀	막작쿨
213019	솔새	*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
213023	원추리	*
213024	메꽃	메마
213025	갯메꽃	개꽃낭
213026	비름	비눔
213027	쇠비름	췌비눔
213028	개비름	개비눔
213029	참비름	참비눔
213030	땅빈대	*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평밥
213033	여우구슬	득풀
213034	질경이	베채기
213035	쭈	숙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쭈떡	숙떡
213038	토끼풀	튀끼풀

213039	개자리	개자리풀
213040	냉이	난지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
213043	여뀌	*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귀	소왕이
213046	췌기풀	췌기
213047	수크령	*
213048	망초	천상쿨
213049	별꽃	진풀
213050	병풀	*
213051	깨풀	복쿨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푸깨기
213054	땅파리	*
213055	피막이풀	빈네
213056	도깨비바늘	개바농
213057	도꼬마리	조부레기
213058	모시풀	*
213059	왕모시풀	*
213060	천남성	*
213061	맥문동	맥문동
213062	밀나물	멘순
213063	살갈퀴	*
213064	차풀	*
213065	결명자	*
213066	까마중	*
213067	하늘타리	두레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
213069	부처손	푼채손
213070	방가지뚝	*
213071	닭의장풀	고낭귀
213072	배풍등	*
213073	췌	칙
213074	췌덩굴	칙줄
213075	췌뿌리	칙빨리

213076	땡땡이덩굴	정당
213077	노박덩굴	*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
213081	함바기	정동낭
213082	담쟁이	눈벨레기
213083	송악	송악
213084	인동	*
213085	멸꿀	멍꿀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등디쿨
213090	수영(승아)	*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
213093	땡싸리	비싸리
213094	명아주	제낭
213095	갓	갓
213096	달래	평마농
213097	씀바귀	*
213098	고들빼기	*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
213104	구릿대	구리대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
213107	피마자	*
213108	뉴질랜드삼	*
213109	양하	양에
213110	파초	*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칠비

213113	개구리밥	물웃
213114	줄	*
213115	마름	물망쉬
213116	싱경이	*

꽃

213117	꽃	꽃
213118	꽃봉오리	꽃봉오리
213119	채송화	땅꽃
213120	민들레	고름풀
213121	봉선화	봉숭아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고냉이풀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도체비꽃
213127	맨드라미	독고달
213128	해바라기	해바래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쭉부쟁이	*
213133	수국	사발꽃
213134	산수국	도체비낭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물마농꽃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불히
213142	잔뿌리	잔불히
213143	줄기	줄기
213144	가지	가지
213145	잎	썸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흐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썸
213151	솔가리	솔썸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멜감	멜감
213154	마디다	므디다
213155	갈퀴	글쟁이
213156	도끼	도끼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동박낭
213160	붉다[赤]	붉다
213161	멀구슬나무	*
213162	버드나무	버디낭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웨가시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
213167	삼나무	숙데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벗낭
213170	왕벗나무	*
213171	사옥	*
213172	느티나무	굴목낭
213173	주목	*
213174	종려나무	*
213175	윤노리나무	윤노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굴거리낭
213179	생달나무	사닥낭
213180	굴나무	굴낭
213181	따다[摘]	따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213183	유자나무	유자낭
213184	비자나무	비자낭
213185	치자나무	치자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례기낭
213189	배롱나무	*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개웃낭
213192	팥팥나무	팥낭
213193	노린재나무	제낭
213194	때죽나무	*
213195	마가목	마깨낭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곱낭
213199	향나무	상낭
213200	웃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솔리낭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닥낭
213205	돈나무	개똥낭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쥐똥나무	개팥낭
213208	섬쥐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중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호랭이가시낭
213214	돌가시나무	돌가시낭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
213217	덜꿩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좁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때	*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
213227	천선과나무	*
213228	실거리나무	실거리낭
213229	굴피나무	굴낭
213230	후박나무	*
213231	풍개나무	검복낭
213232	먼나무	먼낭
213233	박달나무	박달낭
213234	떡갈나무	츠낭
213235	상수리나무	가시낭
213236	참나무	참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저슬살이
213242	모람	*
213243	누리장나무	*
213244	아왜나무	아왜낭
213245	순비기나무	*
213246	붉나무	붉낭
213247	협죽도	*
213248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과일
213250	껍질	껍질
213251	깎다	가끄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탈, 딸기
213254	뱀딸기	베염탈

213255	명석딸기	보리탈낭
213256	복분자딸기	검은탈낭
213257	줄딸기	줄탈
213258	산딸기	한탈
213259	가시딸기	가시탈
213260	검은딸기	감은탈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개즈밤
213263	머루	멸취
213264	개머루	고냉이멸취
213265	까마귀머루	가마귀멸취
213266	산머루	산멸취
213267	상동나무	상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
213270	다래	*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
213273	보리수	*
213274	보리장나무	*
213275	앵두나무	앵두낭
213276	앵두	앵두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화낭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개탕쥐
213282	탱자나무	개탕쥐낭
213283	감	감
213284	뽕다[柿]	초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시
213287	풋감	폴감
213288	청미래덩굴	멜레기낭
213289	맹감	멜레기
213290	짚레나무	도꼬리낭
213291	영실	새보리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떨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붓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게낭
213303	복숭아	복숭게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유름
213307	오미자	오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
213310	미역쇠	메역세
213311	김	짐
213312	파래	프래
213313	톳	틀
213314	패	*
213315	넓패	*
213316	지충이	지충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몹
213321	청각	청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